



7

199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7. 7 호

(루게 597)



◆◆◆◆◆◆◆◆◆◆ 차 례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	4
조선의 세월	7
푸른기슭	8
성인	20
영생	20
수령님 부디 안심하십시오	21
번영하라 김일성 조국이어	22
7월의 거리에서	30
이 광장에서	31
하늘	32
김일성대원수님이시여!	40
태양의 노래	41
위대한 하루	44
영웅의 고택에서	47

적기가	48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서 꽃핍니다	52
우리의 승리, 조선의 승리는	54
세 계절이 함께 오는 들에서	55
조선의 메아리	56
세기와 더불어 영원할 태양의 노래	57
《민촌》에게 따사로이 비친 은혜로운 해빛	61
추억의 탑	69
청춘시절과의 상봉	7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80여성상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서거하신지 3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조국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우리의 전제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3돐을 맞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일 충성의 한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천재적인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으로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다.

20세기 우리 조국의 역사에서와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에서 이룩된 모든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직접 결부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깊이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이민위천의 새로운 철학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사상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시고 그 보물고에 빛나는 공헌을 하시였으며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다.

주체사상의 화불로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레없이 준엄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우리 혁명이 억년 드눌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위력한 주체형의 혁명적당과 혁명정권, 불패의 혁명무력을 세우시고 새 조국 건설의 굳건한 토대를 닦으시였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몸소 진두에서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로 이끄시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곧바른 승리로 이끄시여 혁명과 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운동력사에 영원히 빛날 혁명업적을 쌓아 올리시였으며 지난날 뒤떨어지고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독립되고
통성변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
로, 무력하고 천대받던 우리 민족을 세상사람들
이 부러워하는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민족으로 되
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먼 앞날까지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우리 당과 인
민이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명맥을 순
결하게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
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는 가장 고귀
한 혁명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
설을 령도하여오신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
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으며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
시고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었으며 북과 남, 해외의 7천만 겨
례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현명하게 이끄시
여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에
게 잃었던 내 나라를 찾아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여 우리 나
라와 인민을 민족적 룡성과 번영으로 이끌어주신
주체조선의 위대한 창건자, 령도자이시고 인민
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정치의 공
인된 원로로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세
계의 진보적인민들을 자주위업으로 인도하시여
불멸의 공적을 쌓아 올리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영원한 상징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은
수령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에게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인민이 앞으로 그 어
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채부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 만세 높이 받
들어모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건
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전체 인민의 한결같
은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결을 떠나신
때로부터 지난 3년간은 우리의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근로자들, 남녀로소 전체 인민이 상제가
되어 사무치는 그리움과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수령님을 추모해온 전인민적애도의 나날이었으며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힘과 용기
로 바꾸어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를 건결히 고수하고 우리 혁
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승리의 나날이었다.
우리 인민은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히 충성으로 높
이 우러러 받들어모시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
을 훌륭히 보여주었으며 당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해나가

러는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수령님은 무궁토록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전체 인민과 온 민족의 절대적인 흠모와 신뢰를 받으시며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들어섰다. 새 시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결정적승리가 이룩될 위대한 시대, 조국땅위에 주체의 강성대국이 일떠서고 통일조선민족의 위용과 기상을 높이 떨치게 될 역사적시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3돐을 맞으며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

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억만년 흐를 주체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내어나갈것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대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년호를 제정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을 대양절로 제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투쟁에서 새로운 더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조 선 로 동 당 중 앙 군 사 위 원 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1997년 7월 8일

조선의 세월

-위대한 수령님 서거 3년상에-

최영화

수령님 가시여 세해는
가시였으나
가시지 않은 세해
그리움에 사무칠수록
우리들 마음속 더 깊은곳에
수령님 생존하신 세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월에는
수령님 가신 해와 달은 없습니다
수령님 탄생하신 해와 달만이
영원히 빛납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그토록 위하시고 사랑하시었는데
어찌 그 인민을 두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을 떠나시는 길은 없습니다
인민에게로 오시는 한길만이 있습니다

세해전
온 수도가 피눈물에 잠기었던
그 영결식날 평양의 100여리 길도
수령님 가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통한 통곡소리로 구천을 흔들고
절통한 가슴에 땅을 안고 몸부림치는
그 인민을 두고 못가실
수도의 수백만 인민들에게로
온 나라 수천만 인민들에게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먼 출장지에서 돌아오시는듯
승용차도 평소에 타시던 그 차로
한평생 위대한 심장으로 물들이신
그 붉은기를 온몸으로 안고
수령님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 선두차에
평생의 인자하신 그 모습으로
수령님 인민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상을 모셔주신것 아닙니까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
혁명을 시작하시고
인민들속에서 그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고도
다시 인민들속으로 들어오시는것으로
위대한 생애를 총화하시고 영생하시는
아버이수령님!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인민을 위해 솟아오르시고
인민만을 위해 불타시고
인민의 세상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그 빛이 없이는
인민의 삶도 행복도 꽃필수 없고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빛날수 없고
그 빛만이
인간을 인간으로 찬란히 빛내주는
인간사랑의 무궁한 광원이십니다

그 광원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주신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그리도 만족하시여
세상이 더 환해지게 웃으시는 수령님과
그 광원으로 빛나시는 우리 장군님은
꼭 같으신 한분의 인민의 태양!

20세기에서 21세기로
태양의 빛발을
눈이 부시게 이어주신 우리 수령님
수령님 가시여 새해는
금수산기념궁전 태양의 집에서
인민들과 함께 사신 세해입니다
조선의 세월은
장군님 충효의 세월로 끝없이 이어질
영생의 세월입니다

푸른기슭

최봉무

1

목장사무실 옆방에 들여놓은 책상에 마주앉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교시원문을 놓고 깊은 사색에 잠겨있던 군당위원장 홍성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벽시계가 열한점을 쳤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뒤집을 지고 창가로 다가가 갔다.

멀지 않은 압록강변에서 우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거기에서는 강변을 정리하느라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있을것이다.

얼마전까지만도 이런 밤에는 주얼대는 강물소리와 더불어 산촌의 특이한 정적속에 잠들곤하던 림포목장마을이었다.

홍성범이 강변을 한번 돌아볼 생각으로 서류들을 거두는데 조용한 방안공기를 흔들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도당위원장에게서 오는 전화였다. 아버지수령님의 현지교시집행정형에 대하여 묻고 있었다.

언어생활에서 구구한 설명을 좋아하지 않는 홍성범은 지금 목장에서 돌격대를 못하고 전투를 벌리고있는데 산갈령기슭에는 벌써 뚝을 다 심고 이제부터 압록강수몰지 갈밭조성에 달라붙었다고 간단히 보고하고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군방식상학이라?!...》

그는 잠시 커다란 주먹으로 책상을 지그시 누르고 섰다가 돌아섰다. 전화를 받고나니 생각이 더 깊어졌다.

(방식상학에서 무엇을 보여줄것인가? 군당위원회확대회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더 실감이 있겠는가?...)

홍성범은 이런 생각에 잠긴채 작업복상의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노별사업소에서 당위원장으로 사업하다가 한개 군을 갖 말아가지고 수령님으로부터 첫 파업을 직접 받은 그로서는 참으로 어깨가 무거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을 굴려보곤하는 것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들사이로 밤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라보였다.

《저 사람들이 또 밤을 새우려는 모양이로군.》

홍성범이 중얼거리며 그쪽으로 향하는데 누군가가 허리를 구부정하고 마주 걸어왔다. 오춘삼로인이었다.

《마침 나오시누만요.》

춘삼로인은 군당위원장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며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두사람은 자갈밭을 파헤치고 부식토를 두툼하게 퍼놓은 강기슭에 발자국을 찍으며 수몰지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울긋불긋 주먹같은 글자들을 안은 프랑카드와 속보판들, 강변을 환히 밝히는 불무지들을 예돌아 걸었다. 어디서나 청년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강변을 들었다놓는다.

군당위원장 홍성범은 며칠전까지도 자갈과 측대만이 무성하던 압록강변이 정리되고 갈밭이 꾸려지는것을 보니 한달전에 아버지수령님을 이곳에 모셨던 일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그날은 가없이 푸른 하늘에 꽃구름 몇송이가 뜨고 바람 한점 없었다.

새로 건설된 직조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돌아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압록강동쪽길에 오르시여 이윽도록 차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차를 세우게 하시었다.

승용차는 오춘삼로인이 뚝을 치고있는 갈밭모퉁이의 해묵은 버드나무밑에 와서 조용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오춘삼로인이 일하는곳으로 향하시었다.

춘삼로인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 굳어져있었다.

그는 칠순의 자기 눈을 의심하였던지 눈시울을 몇번 습벅이다가야 《수상님!-》하고 허둥지둥 달려 갔다.

그는 목이 짝 메여와 아무 말씀도 못드리고 그저 머리에 동여뒀던 수건을 벗어 마주잡고 허리를 굽혀 인사만 올렸다.

《수고하십니다. 로인님》

수령님께서 허리를 굽히시며 손을 내미시자 로인은 《수상님, 손이...》하고 말을 얼버무리며 수건으로 손등을 문다지었다.

《일하는 손이 그렇지요.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로인의 흠뻑은 손을 앞으로 끄당기여 마주잡아주시었다.

이때 강기슭의 얇은 물에서 바지가랭이를 잔뜩 건어울린 소년이 줄을 맨 등그런 박통을 들고 뛰라고 소리치며 달음박질해왔다. 춘삼로인의 손자였다.

춘삼로인이 수령님의 손을 잡은채 당황한 기색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응석받이 손자가 할아버지앞에서처럼 버릇없이 굴지나 않겠는가 하여

마음을 놓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소년은 수령님앞에 이르자 눈을 반짝 빛내이며 《원수님, 안녕하십니까?》하고 꾸벅 인사를 올리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였다.

《오냐, 허허... 얼굴이 새까맣게 탔구나.》

《그녀석이 하루종일 이 할아버질 따라 강변에 붙어삽니다.》

수령님께서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소년의 앞섶을 쥐여짜주시고나서 손에 들려있는 박통을 들려다보시였다.

《이거 청미끼가 아니냐. 낚시질을 잘하는 모양이구나.》

《할아버지 낚시에 끼여드립니다.》

《그래 참 용쿠나. 그럼 내 한가지 물어볼가.

할아버지하구 무슨 물고기를 잡지?》

《예- 송갱이, 메사구... 또 툽지...》

소년은 더 생각나지 않았던지 머리를 가우뚱하고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의 지원을 청하는 모양이였다.

《잡자기 생각이 돌지 않는게지. 내가 텅겨줄가? 거, 맛좋은 잉어도 있잖느냐.》

소년은 그제서야 머리속에 뱅뱅 돌던 이름이 탁 텅겨올랐던지 《야!》하고 손뼉을 쳤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쏘가리.》

이 말에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젖히시고 크게 웃으시였다. 둘러섰던 수원들도 한바탕 따라웃었다.

《네가 압록강물고기<박사>로구나. 꼬마물고기<박사>야. 이름이 뭐지?》

《남필입니다. 여덟살이구...》

《응, 그래. 참 툽툽하구나.》

수령님께서는 인자하신 웃음을 머금으시고 남필이의 어깨를 두드려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드시여 춘삼로인이 가꾸는 갈밭에 눈길을 주시였다.

이른 봄에 심은 갈뿌리에서 새파란 순이 한뼘이나 돌아나 마치 모를 낸 논판같았다.

수령님께서는 갈밭을 좀더 넓히려고 여기저기에서 캐다 쌓아놓은 갈뿌리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로인님, 이 많은 갈을 심어서 무엇에 리용하십니까?》라고 물으시였다.

《가을이 오면 갈은 베여 사을 틈니다. ... 그리고 저어게 종종이 돌아난것은 왕골이고 그 우편에 좀더 푸른 색이 짙은것은 부들이라는것인데 왕골로는 돛자리를 틀고 부들로는 포아리나 지적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것은 농민시장에 내다 팝니다.》

수령님께서는 그런가고 머리를 끄덕이시며 너그러운 안색을 지으시였다.

《로인님은 정말 좋은 일을 하고계십니다. 여러 가지 필수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파니 인민생활에 기여하여 좋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땅에도 천연식물을 잘 가꾸고 강하천을 정리하니 더 좋은 일이 아니요!》

춘삼로인은 자기가 부업으로 하고있는 일을 두고 이토록 파분히 치하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황송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옆에 서있는 홍성범을 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군당위원장동무, 같이나 왕골, 부들 같은것은 이 군에서 얼마든지 재배할수 있지 않소. 압록강을 낀 조건을 잘 리용하여야 하겠소. 이런 자연원료는 사람의 품이 적게 들고도 손쉽게 얻을수 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들이 아니요.》

수령님께서는 압록강의 물줄기를 따라 기슭을 얼마간 살피시다가 홍성범에게 물으시였다.

《이 군에 수물지가 얼마나 되오?》

《강이 굽어 도는곳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홍성범은 낮빛이 약간 상기되면서 말썸드렸다.

《그곳들에는 무엇을 심소?》

《거의나 다 공지입니다.》

《공지라?!...》

홍성범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군내 경지면적과 산림을 장악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면서도 젊은 시절 땀을 타고 다니며 늘 보아온 압록강기슭의 수물지나 황초평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밖이였다.

《수물지를 공지로 버려서야 되겠소. 군당위원장동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산갈령기슭에는 흙을 심어 집짐승먹이를 조성하고 압록강수물지에는 갈을 심도록 하시오. 같이나 왕골, 부들은 다 공업원료로 리용할수 있지 않소. 이 도에 많은 같이나 달은 자연번식을 점차 인공번식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발전시켜서 이 강반에 갈숲이 설레이게 하잔말이요. ...배를 줄테이니 압록강을 마음대로 오르내리면서 사람도 타고 갈과 칩, 왕골, 부들 같은것들을 실어나르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여 군마다 종이공장도 만들어놓고 직물공장도 만들어 놓고 신의주에는 화학섬유공장을 크게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요. 얼마전에 팔프공장에서 갈로 인견팔프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소.

당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가 있은후 한달도 못하는 사이에 벌써 전국각지에 일천여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일어섰소. 그러므로 그에 따르는 원료기지를 잘 조성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당위원장동무, 이 름토목장을 본보기로 꾸립시다. 여기서 지방산업원료기지 조성을 위한 방식상학을 하여 도내에 일반화도 하고... 어떻소?》

수령님께서서는 믿음이 담긴 눈길을 군당위원장에게로 돌리시었다.

《알겠습니다. 수령님!》

신중한 생각에 잠겨 펼쳐든 작은 수첩에 수령님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빠짐없이 적어넣고 있던 홍성범은 조용하나 힘있게 대답올렸다.

《이 일에 로인님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터실터실한 춘삼로인의 손을 어루 만져주시며 말씀하시었다.

《수상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춘삼로인은 수령님의 덕에 이렇듯 자기가 가꾸는 보잘것 없는 이 갈밭이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원대한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꿈같은 일앞에서 황송함을 금할수 없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수원들에게 오늘은 좋은 일을 하는 로인을 만나 참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이제는 떠나자고 하시었다. 그러자 춘삼로인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런데… 이것참, 섭섭하게 그냥…》

《로인님, 오히려 우리가 로인님께 수고를 끼쳐드리게 뻔했습니다. 년로하신 몸인데 아무튼 건강하셔야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시고 차에 오르시려다가 돌아서시여 남필이 아버지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춘삼로인이 수상님의 덕에 농업대학을 나오고 과학원에서 연구사로 일한다고 말씀드리자 《훌륭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시면서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서있는 남필이에게로 허리를 굽히시었다.

《9월에는 남필이도 학교에 가자.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할아버지에게 좋은 노래도 불러드리고 낚시미끼도 잡아드리구… 잘있거라.》

수령님께서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여 차에 오르시었다. …

회상에 잠겨 걸다나니 홍성범은 춘삼로인보다 몇발자국 떨어졌었다.

앞으로 스택스적 걷던 춘삼로인은 무슨 생각이 났던지 주춤 돌아섰다. 우등불무지앞에서 머리에 빨간 수건을 동인 목장회계원처녀가 부르는 청고운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홍성범이 그리로 눈길을 돌리는데 춘삼로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군당위원장어른, 함지덕풀밭에 소와 양, 염소들을 이동방목시키면서 거기서 부식토를 실어내리면 로력도 풀리고 부식토문제도 풀릴것 갈수다.

그런데 갈뿌리때문에 야단났수다. 수상님께서서는 우리를 굳게 믿고계시겠는데… 그만한 애로때문에 수상님의 교시를 집행하지 못하고 우물거린다는게 내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웨다. 그래서 군당위원장어른과 좀 의논하고 함지덕을 뒤져보자고 찾아 가던 길이였수다.》

홍성범이 잠시 생각끝에 말하였다.

《각 리에서 지원받으면 어떻습니까? 갈뿌리는 공업품처럼 당장 생산할수도 없으니…》

《지원이요?!》

춘삼로인은 혼자소리처럼 이렇게 반문하더니 머리를 저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었다.

《수상님께서서는 우리더러 본보기를 꾸리라고 하셨는데 남의 손을 빌어야야 되겠는가요? 될수록 우리 손으로 하는 방향에서 노력해보겠습니다.》

홍성범은 로인의 진정에 가슴이 무뎠음을 느꼈다. 로인의 그 마음이 고마웠다.

《아무튼 수령님 의도대로 갈밭을 잘 꾸립시다. 방식상학에서야 현실을 훌륭하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모두 보고가서 그대로 할수 있게 말입니다. 그대로!…》

홍성범은 그대로라는 말마디에 력점을 찍어 한번 더 반복하였다.

《알겠습니다.》

춘삼로인은 우등불빛에 반사되어 밤색으로 번쩍 거리는 강심에 눈길을 준채 황초평쪽의 강변으로 걸으며 대답하였다.

2

어느날 저녁 오춘삼로인은 터밭에 갓 심어놓은 갓씨를 닭들이 자꾸 헤집고 쪼아먹는 성화에 못이겨 울바자를 틀어세우고있었다.

웃방토방우의 앞벽에 매달아놓은 닭둥지에서 《꼬끼요. 꼬끼덕, 꼬끼덕…》하고 검정암닭이 해를 치며 날아났다.

춘삼로인은 찌리나무가지를 쥔채 기웃이 그쪽을 넘겨다보았다. 어느새 손자애가 둥지에서 따끈따끈한 닭알을 꺼내들고 할머니에게로 뽀르르 달려 간다.

《허허허… 녀석, 닭똥무니에서 떨어지기가 바빠다.》

언제나 대견해만 보이는 손자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데 아래동네에서 개짖는 소리가 쾅쾅났다.

춘삼로인은 그리로 고개를 돌렸다. 군당위원장 홍성범이 흰 도면마리를 낀 웬 젊은이와 같이 곧바로 올라오고있었다.

영거주춤해서 바라보고있던 춘삼로인이 영문도 모르고 기웃기웃하다가 마주나가 그들을 맞아들였다.

홍성범이 반가운 낯색을 지으며 같이 온 젊은이를 소개하자 춘삼로인은 《아, 그럼 남필이 애비부서에서 왔구만. 과학원에서…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는데 어서 들어가세. 어서-》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 개들은 다 잘 있나?》

《예, 모두 잘있습니다.》

춘삼로인과 마주앉은 젊은이는 이렇게 인사소개를 하기 바쁘게 아버지수령님께서 며칠전에 과학원을 친히 찾으시고 많은 배려를 돌려주셨다는 이야기부터 하였다.

《그래 우리 애네 직장을 직접 찾아주셨단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원을 찾으신 수령님께서 승태동무를 직접 만나시여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남필이도 펴 컸다고 안부를 전해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지금 아버님이 우리 과학자들도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한 큰일을 하고계신다고 하시며 승태동무가 직접 서해안쪽에 가서 갈뿌리를 마련하여 고향에 보내도록 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원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시고나서 떠나셨지요.》

《그럼 자네도 수상님교시를 받고 이렇게 왔나?》

춘삼로인이 이렇게 묻자 홍성범이 젊은이를 대신하여 《그렇습니다. 여기 토양조건과 기후조건을 조사해가지고 오라는 과업을 받고온 동무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령님께서 먼저 림토목장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계시는데 힘을 더 내자고 하면서 젊은이를 떨궈놓고 돌아서 목장사무실로 내려갔다.

《잘 왔네, 잘 왔어.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 내가 나라일에 바쁘신 수상님께 수고를 더 끼친셈이 아닌가? 수상님께서 두메풀이 늙은것을 위해 몸소 시간을 내주시다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소!》

춘삼로인은 뜨거운것이 자꾸 복받쳐올라 눈시울을 습벅이었다.

《잠간만 기다리게.》

로인은 황황히 부엌에서 로친네를 불러올리고 마당에서 닭장에 닭을 몰아넣느라고 휘여휘여하며 뛰어다니는 손자까지 불러들이었다.

《올라왔으면 빨리 앉아야지. 집안에 경사가 있는데 뭘 그렇게 썼소. 막대기를 먹었나! 젠장...》

춘삼로인은 너무 기뻐 자신이 오히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참 령감두, 먼길을 온 손님대접 그렇게 하슈. 원 시장하시겠는데...》

《차 저런... 아 수상님께서 우리 승태를 만나셨다지 않소.》

부엌으로 다시 내려가려던 로친네가 깜짝 놀라며 《뭐라구요?! 게 정말이요?》하고 되돌아올라왔다.

《정말이 아니구. 그런 거짓말두 하오.》

춘삼로인은 로친네를 나무라더니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울방자를 틀고 젊은이와 마주앉았다

《자, 계속하세.》

로인이 이렇게 권하자 젊은이는 방에 들어온 남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다음날 저물녘이었다.

까만 승용차 한대가 과학원정문앞으로 미끄러지듯 달려왔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부관을 보내어 승태연구사와 가족을 데려오도록 하시었던것이었다.

정말 꿈만같은 일이었다. 승태연구사와 안해의 인사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날이 어둑기전에 먼저 소풍이나 하자고 그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가시었다.

정원의 한쪽 끝에는 식물교재원같은 포전이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수령님의 뒤를 바투 따르던 승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곳에 눈길을 주었다. 그찰나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거기에는 갈과 달, 왕골과 부들, 닥풀과 닥나무, 노박, 쉼 등 우리나라 강 하천류역과 산기슭에서 자라는 여러가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아침저녁 그것들을 가꾸시면서 손수 연구사업을 하고계신다는것이였다.

시험포전을 다 보여주신 수령님께서서는 《승태동무, 내가 몇해동안 이 식물들을 가꾸어보았는데 참 재미있었소. 내륙지방에 자라고있는 이 돌갈이나 달은 염분을 먹고 자라난 신도의 갈 못지않게 번식률도 좋고 또 그 섬유질도 좋더군요만...》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갈잎은 젖소와 염소 먹이로 아주 좋고 갈뿌리에서 낸 가루는 국수를 만드는데 좋으며 뿌리줄기는 리뇨제, 해열제, 진통제로 좋으므로 같은 여러가지 값있는 원료로 훌륭히 리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므로 림토목장같은데서는 목장조건에 맞게 갈을 잘 키워 대는 공업원료로 수매하고 잎은 사료로 젖소와 염소를 많이 기를수 있다고 하시었다.

승태는 나라일에 그처럼 분망하신 수령님께서 밤잠도 미루시며 조국의 일목일초에 대하여 깊이 헤아리고계시는데 너무 감동되어 아무말도 올리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며 승태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더니 간곡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 과학자들이 자연을 정복해나감에 있어서 그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것과 반드시 승태동무의 아버님과 같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거대한 변혁이 일어난다는걸 명심해야 하겠소. 과학사업에서도 항상 인민은 선생이라는것을 잊지 말

아야 하오. 그리고 큰것과 작은것을 배합할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서해안의 갈숲에 중심을 두면서 인민들이 사는 우리 나라 모든 강줄기를 따라 갈숲이 설레이게 하며 그 원료에 기초한 여러가지 지방산업공장을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질 좋고 값은 인민소비품을 적극 생산공급할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각 방면에 걸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수령님께서서는 전정가위로 옆에 드리운 나무가지를 잘라주시었다. ...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젊은이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승태동무는 과학자로서 량심에 가책되는 일이 너무 많아 고개를 들수가 없었습니다.》

《아암, 그렇구말구... 그 말이 옳지, 그 말이 옳아.》

춘삼로인은 젊은이의 말을 거듭 긍정하며 흥분에서 떠서 무릎을 두드리었다.

한참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하던 젊은이는 깜짝 잊은것이 있었던지 출장용가방을 벌컥벌컥 뒤지더니 웬 편지봉투를 꺼내 펼쳐드는데였다.

《제가 이리로 오던 날 승태동무집에 들렸는데 아주머니가 이 보따리와 함께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넣어주더군요. 마침 아버님과 어머님께 편지를 부치려던 참이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는 편지봉투에서 먹즙으로 깨알같이 박아 쓴 속지를 꺼내보였다.

《응, 남필이 어미 글씨가 눈에 익군. 어디 한번 죽- 읽어보게.》

춘삼로인은 물기 어린 눈언저리에 웃음을 담으며 턱수염을 어루만지었다.

젊은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편지의 마감부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우리가 수령님저택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영화까지 보고났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어요.

수령님께서서는 영화랑 자주 보는가, 가정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은 없는가, 남필이가 보고싶지 않는가고 물으시더니 아버님은 나라에서 잘 돌봐드리겠으니 몇해후에 모셔오도록 하고 남필이는 그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있도록 하며 장차 농업대학에서 공부시켜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자고 하시였어요. 그러시고는 승용차에 우리 가족을 태워 보내주도록 해주시였어요.

수령님께서서는 마당에까지 나오시여 우리를 바래주시면서 <승태동무, 꼭 성공을 바라오.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지금 큰일을 하고계시는데 우리도 지지 말아야지. 하하하... 우선 마을앞 강변과 황초평에 심을 갈뿌리를 준비해야겠소.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소. 자, 어서 가보오. 피곤할텐데...>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수령님께서 그냥 서시여 손을 저어주시는걸 우리는 차창으로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그날 집에 도착한 우리는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어요. 세상에 행복이면 이런 행복, 기쁨이면 이런 기쁨이 또 어데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가문이 대를 이어 이날을 잊지 말고 수령님을 더 잘 받들자고 <붉은 수첩>에 그이의 말씀을 빠짐없이 적어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대자연개조에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는데서 선구자가 되어 한 몸을 바치자고 굳게굳게 맹세하였어요. ...》

《...!!...》

춘삼로인은 목이 꺾 메어 말을 못하였다. 머느리의 초랑초랑한 목소리가 그냥 울리는것 같았다.

자꾸만 눈곱이 더워올랐다. 몇번이나 눈시울을 습벅이던 로인은 겨우 《아무렴, 그래야지.》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열어놓은 문밖으로 황혼이 비낀 암록강의 물가에 이윽도록 눈길을 주었다.

어느해 가을, 박지주의 마름이 순사 두놈을 앞세우고 마을에 나타나서 몇폐기의 갈밭에마저 불을 놓고 달아나던 일, 보기 드문 흉년에 칙뿌리로 연명해가다가 부황이 들어 숨진 량친을 한낱한시에 산갈령기슭에 묻고 땅을 치며 통곡하던 기막힌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그는 축축이 젖어내리는 물기를 주먹으로 흠치었다.

(수상님, 이 오춘삼이 복을 받았습시다!)

3

《어려운 삭도공사를 끝냈으니 부식토운반은 다 풀린셈이지!...》

젊은 연구사와 군당위원장이 떠나간지 달포가 지난 어느날 바지가랭이를 오금까지 걸어올린 춘삼로인이 강변의 버드나무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불로초》를 말며 중얼거렸다.

요즘 부식토문제가 풀리니 춘삼로인의 뇌리에 봄에처럼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실것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갈마들군한다. 그럴수록 젊음과 욕심이 불끈불끈 솟아났다. 그래서 어제는 청년들과 갈뿌리문제를 놓고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한달전에 춘삼로인은 산갈령벼랑등성의 함지덕에 양과 염소들을 이동방목시키면서 땅바닥에 한뼘이나 깔려있는 부식토를 파서 벼랑턱에서 강변까지 곧추 삭도를 놓고 대대적으로 날라내릴 묘안을 찾아냈었다. 이것은 크게 걸린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그때 목장에서는 먼저 삭도공사를 시작하고 뒤이어 황초평에 허궁줄다리를 놓을것을 계획하고 내밀었던것이다.

이제는 방목공들이 부식토를 삭도광주리에 폭폭 담아주면 강변에서 그것을 받아 포전에 두툼하게 깔기만 하면 되지 않는다.

춘삼로인은 그때 해불을 지펴들고 산갈령뒤골짜기로 줄지어오르던 일이며 청년들과 함께 아슬

한 절벽우에 삼각대를 든든히 세우고 활자를 매
던 일을 생각해보았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도 안되는 일이야. 당장
싫어야 할 갈뿌리를 그렇게 해결할수 있다문야
오죽 좋겠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연하기만 하였다.

이때 큰길쪽에서 왁작 고아대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제법 어깨우에 풀잎견장을 붙이고 나무
대기총을 하나씩 멘 마을 조무래기들이 줄을 지
어 노래를 부르며 강변으로 나왔다. 소담한 꼬리
를 꼬아리처럼 틀어올린 강아지들이 앞질러 뛰어
다녔다.

아이들은 몸을 잔뜩 뒤로 젖히고 무릎을 터무
니 없이 높이 올리고 팔을 저으며 잔디밭에 들어
선다.

《허참… 그너석들이 제법인데…》

4살에 할머니등에 업혀온 남필이가 맨앞에서
조무래기들의 대장질을 하였다.

춘삼로인은 방금 굴리던 생각을 가뭇없이 잊은
듯 슬그머니 일어나 농림모를 벗어두고 부채질을
하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두패로 갈라져 군사놀이를 하다가 맞
붙어서 잔디밭우를 딛굴었다. 강안은 붉은기발을
날리며 작업하는 목장사람들의 흥성거림에 아이
들의 웨침소리까지 합쳐져 큰 건설장처럼 끓어번
지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동안 뛰놀던 아이들이 툭툭
털고일어나 서로서로 마주보며 귀를 강구는것이
였다.

《애들아, 가만있어. 저게 무슨 소리냐?》

남필이가 산갈령쪽으로 돌아서 두귀바퀴에 손
을 오그려대었다.

비행기발동소리와 같은 강한 금속성이 산갈령
절벽에서 메아리쳐 울려왔다. 향방을 몰라 두리
번거리던 아이들의 의아쩍한 눈길이 그리로 쏠리
였다. 처음 듣는 동음이였다.

열성스레 질통을 지고 달리던 패들, 삽질을 하
는 패들, 썩은 나무뿌리에 바줄을 매여 당기는
패들… 춘삼로인도, 아낙네들도 모두들 일하던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통통… 통통…》하는 동음이 하나의 기관소리
로 변하면서 강파로운 산갈령벼랑굽이를 돌아서
거울같은 수면우에 한척의 기관선이 이물을 드러
냈다.

하늘색 선체에 붉은 수선을 두른 기관선은 두
갈래의 흰 물줄기를 좌우로 갈아번지면서 넓다란
물결을 따라 거슬러 올라왔다. 선미의 추진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공작새꼬리마냥 평롱한 무늬
를 수놓으며 뚜렷한 담청색의 새로운 물길을 형
성하였다.

사람들은 그 어떤 신비롭고 황홀한 동물이나
만난듯이 슬금슬금 한곳에 모여서기 시작하였다.

(도대체 무슨 배가 저렇게?!…)

모두 이런 생각이다.

물에 있을 잠근 새초밭에서 물새들이 날아났다.
초행길을 더듬느라고 조심스레 거슬러 올라오는
기관선의 이물에서 웬 건장한 사나이가 마치 폐
목우에 선 류벌공의 자세로 손을 흔들고있었다.

《아니 군당위원장어른이 아니오?!》

춘삼로인이 얼결에 손을 쳐들었다. 아이들이
와- 달려가며 강기슭에 늘어섰다.

천천히 다가오는 기관선의 뒤에 매생이 두척이
달려있었다.

기관선이 물끓이 깊은 기슭에 닿자 홍성범과
몇명의 간부들이 상자 하나를 맞들고 발판을 내
리였다. 뒤이어 같이 온 해안사업소 노동자들이
방수포를 씌운 매생이를 강변에 끌어다붙이였다.

마을 조무래기들이 배가 하두 신기하여 올라가
만져도 보고 들어다도 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
녔다.

홍성범의 얼굴이 전에없이 밝았다. 그는 몸가
짐을 바로하고 모여선 사람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말하였다.

《여러분, 어버이수령님께서 갈조성에 펼쳐나선
동무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생이에 씌운 방수포를 벗기고 등글
등글하게 묶은 갈뿌리단을 가리켰다.

둘러선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그리로 쏠리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춘삼로인은 눈이 커지며 자석
에 이끌리듯 몇걸음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가
슴속에 쌓였던 시름이 한순간에 풀려서인지 그자
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수상님께서 우리 림토목장사람들의 걱정을 어
떻게 아시구… 이렇게 갈뿌리를 보내주시다니
요!… 군당위원장어른, 이제 됐수다! 수상님 은
혜에 보답하게 됐수다!》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해서 마음을 다잡지 못하
는 춘삼로인과 군당위원장을 둘러싸고 갈뿌리무
지를 보며 환성을 올렸다.

홍성범은 사람들이 보는데서 방금 내리운 상자
를 들어다 춘삼로인앞에 놓았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춘삼로인에게 보내주신 선
물입니다. 자, 어서 열어보십시오.》

춘삼로인은 어리둥절해 서있었다. 그러자 군당
위원장이 다시한번 어서 뜯어보라고 재촉하였다.
춘삼로인은 그래도 선뜻 손을 대지 못하였다.
한동안 마음을 진정한 다음에야 가늘게 떨리는
두손으로 상자를 더듬다가 정중하게 뚜껑을 열었
다.

크지 않는 상자속에는 붉은천으로 정성껏 싼
조성로동당 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 문헌과 갈채
배방법에 대한 기술서적들이 들어있고 그옆에 고
무장화와 비옷, 보약과 갖가지 낚시류 그리고 학
생용 책가방이 들어있었다.

홍성범은 소책자와 기술서적들을 꺼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나서 학습장과 연필이 들어있는 책가방을 꺼내들고 남필이를 찾았다.

《수령님께서는 오촌삼로인의 손자가 인차 학교에 가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책가방까지 보내 주셨습니다.》

《!...》

홍성범은 할아버지곁에 조용히 서있는 남필이에게 책가방을 메워주었다. 그것을 보는 촌삼로인의 눈언저리가 다시금 붉어지며 눈물이 그렇게 고이었다. 그저 목에 걸었던 타울수건으로 눈굽을 닦을뿐이었다.

잠시후 홍성범은 남필이의 손목을 잡고 버드나무 밑에 만들어놓은 통나무의자에 걸터앉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빙 둘러쌌다. 늘 웃는 인상인 군당위원장과 허물이 없었다. 모두들 군당위원장의 말을 듣고싶어하는 기색이었다.

홍성범은 해빛에 거뭇거뭇하게 탄 목장사람들의 얼굴들을 둘러보더니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어제 도당에서 불려서 올라갔었습니다. 도당위원장동무가 매우 반가와하면서 그저께 밤 12시가 넘어서 부관한테서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

모두 숨을 죽이고 감동에 젖은 얼굴로 군당위원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도당위원장동무의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 글썽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림토목장사람들이 산갈령절벽에서 압록강강변까지 삭도를 놓고 함지덕부식토를 날라다 갈밭을 조성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 동무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겠소.>라고 하시면서 북방의 제철소를 돌아보시고오신 피곤도 푸실사이 없이 곧장 서해안으로 떠나셨다지 않습니다.》

홍성범의 이야기는 참으로 뜨거웠다. 목장사람들은 첫마디부터 감동되어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홍성범도 흥분을 누르지 못하였다.

그날은 초저녁부터 내리던 비가 새벽녘에도 계속 내렸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차창으로 도저히 앞을 분간할수 없었다.

힘겹게 앞을 주시하던 부관은 어버이수령님의 신상이 넘려되어 차를 천천히 물게 하고 수령님께 조용히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렸다.

《수령님, 날이 몹시 사나운데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 쉬고 래일 떠나십시다.》

부관의 청을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근엄한 안색을 하시며 눈길을 드시었다.

《부관동무, 이쯤한것을 못이겨낸다면 무슨 혁명을 한다고 하겠소. 아마 지금쯤 과학원연구사 동무들은 간석지의 천막속에서 당세포회의를 열

고 내각수상이 준 과업을 집행하자고 밤을 패울 거요. 또 오촌삼로인을 비롯한 림토마을사람들은 갈뿌리가 모자라서 애쓸게구... 그들이 온몸이 그대로 물주머니가 되거나 흙투성이가 되어 수상이 준 과업을 수행하자고 아글타글할 때 수상은 뭘하겠소. 나는 이런 우리 인민을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소. 자, 계속 행군을 합시다.》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히려 부관을 설복하시었다.

부관은 수령님의 말씀에 자꾸만 가슴이 뜨거워져 더 청을 드리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승용차가 서해기슭에 이른것은 새날이 휘뭇히 밝아올무렵이었다.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는 곧바로 간석지로 나가시었다. 찬비에 두 어깨를 적시며 한동안 갈숲두렁길을 걸으시던 수령님께서는 좌-좌- 설레이는 파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더니 그냥 바다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거기에는 서해를 마주하고 자그마한 천막이 쳐져 있었고 천막문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해바람이 벌써 새벽에는 서늘하구만. 연구사동무들이 감기라도 걸리겠소. 우리가 그들을 떠나 보낸후에 일이 바쁘다고 미처 돌봐주지 못했소.》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비바람속을 뚫고 천막앞으로 다가가시었다.

가설실험대에 마주앉아 연구사업에 몰두하던 연구사는 수령님께서 천막안에 들어서시는줄도 모르고있었다. 그가 바로 승태였다.

수령님께서는 연구사의 사색을 깨뜨릴가봐 조용히 다가가시여 실험대우에 놓은 《토양조건과 갈영양실태분석표》를 잠시 들여다보시다가 《수고하오.》라고 하시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주시었다.

깜짝 놀라 일어선 승태는 처음 자기눈이 환각을 일으킨줄 알고 우두커니 서있다가 《수령님!》하고 목메여 부르며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었다.

수령님께서는 승태의 등을 어루만져주시며 《비바람속에서 정말 수고하오. 이렇게 무리하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겠소. 동무들은 나라의 보배들인데... 응!...》라고 걱정하시었다.

그러시고는 허물없이 누기찬 널판자의자에 자리를 같이하시고 림토목장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주시었다.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있던 승태는 두손을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령님, 목장마을에 보낼 갈뿌리는 수령님의 말씀대로 어제까지 다 준비해놓았습니다.》

승태의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대견하시여 그리로 가보자고 하시며 천막에서 나오시었다.

그이께서는 말없이 두렁길로 걸음을 옮기시다가 얼마전에 군당위원장으로부터 림토목장종업원

들의 협의회소식을 보고받았다고 하시면서 그중 한토막을 전달해주시었다.

《...림토마에서 산갈령 뒤골짜기를 따라 오르면 십리나 되는 함지덕에서 발구길을 닦고 부식토를 실어내린다는것은 가축방목과 갈발조성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하는 그곳 실정에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소. 이것을 푼 사람이 바로 오춘삼로인이었던말이요.

그곳 산세를 잘아시는 춘삼로인은 산갈령벼랑턱에서 압록강변까지 삭도를 놓을것을 생각해냈소. 그다음날 로인은 청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박달나무를 베고 피나무껍질을 벗기여 한 짐씩 걸머지고 돌아왔소. 로인은 박달나무로 둥이만한 활자 두개를 깎았소. 그리고 피나무껍질을 잘이겨서 온 목장이 달라붙어 꼬박 닳새밤을 새워가면서 팔뚝같은 피나무바줄을 꼬았소.

생각해보오, 칠순의 로인이 허리에 바줄을 매고 수상이 준 과업을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하면서 보기만해도 소름이 끼치는 절벽우에 활자를 매었다지 않소. 그 소릴 듣고 나는 잠을 잘수 없었소. 그래서 그길로 북방의 제철소로동계급을 찾아 길을 나섰겠소...

이렇게 해서 강변에 삭도대를 세우고 활자를 맨 다음 바줄을 련결하고 커다란 느릅나무팡주리 두개를 바줄에 달아서 자체중량에 의하여 부식토를 나르는 큰 예비를 찾았소. 이것이 바로 자력갱생이요. 아직도 공업의 방조가 그런 세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당에서는 이런 창발성을 요구하고있단말이요. 물론 몇해후이면 이것이 다 옛말처럼 들릴거요.

나는 이런 사람들과 자주 무릎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게되고 혁명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오.》

수령님께서는 절절하게 말씀하시며 단을 묶어 쌓아놓은 갈뿌리를 하나하나 더듬어보시더니 《뿌리하나 상하지 않았구만!》라고 만족해하시었다.

서해의 새벽녘은 안개가 짙게 끼여 점점 눈앞을 분간할수 없었고 더구나 비바람까지 휘몰아쳐 몹시 울씨년스러웠다.

수령님께서는 승태에게 몸소 입으셨던 비옷까지 벗어주시고 허리에 손을 얹으시며 간석지공사장쪽을 한동안 바라보시었다. 이따금 지척에서 기습을 치는 파도소리가 들려왔다.

수령님께서는 다시 휘연히 밝아오는 동녘하늘가로 눈길을 옮기시었다.

《벌써 날이 밝누만. 동무들이 정말 수고했소. 목장마을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소.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탐구의 나날들을 더 값높게 보냅시다!》

분에 넘치는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수령님께서는 젖은 옷을 말리울새도 없이 돌아서시었다.

수령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시여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앞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보이는듯 방불하게 안겨왔다. 그들은 감격에 묻혀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홍성범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고 숨을 돌리었다. 그의 얼굴은 천진한 애들처럼 감동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아마 도당위원장동무는 그 연구사가 승태동무인줄 모르고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다 끝난뒤에 그 연구사가 오춘삼로인의 아들이라고 하였더니 저으기 놀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참후에 이야기를 마친 홍성범은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일을 더 잘하자고 둘러선 사람들을 고무해주며 한사람한사람 손을 굳게 잡아주었다.

별에 탄 춘삼로인의 두볼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

로인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남먼저 삽자루를 쥐고 일어섰다. 황초평허궁줄 다리공사장으로 걸어가는 춘삼로인의 걸음 걸이는 방정하지 못하였다. 눈앞이 뿌연게 흐려졌던것이다.

강안을 따라 봄에 춘삼로인이 심고 가꿔놓은 갈들이 검푸르게 자라났다. 《음메-》하는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해빛이 눈부신 산갈령절벽에 메아리쳐 길게 울려왔다. 늘쌍 들어오는 송아지의 울음소리이지만 산촌의 정서에 어울려 류달리 정답고 사랑스러웠다.

4

방식상학날자가 하루하루 눈앞에 다가오자 군당위원장 홍성범의 마음은 몹시 초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관심안에 있는 방식상학인데 어찌 조급해지지 않겠는가.

목장사무실에서 간단한 모임을 끝낸 그는 사람들이 헤어져나가기 바쁘게 송수화기를 들어 군당접수를 찾아 차를 불렀다.

수화구에서 《네, 네. 이제 곧 떠나겠습니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더 다른 생각없이 송수화기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직 생각은 방식상학준비 그 하나뿐이다.

홍성범은 간밤에 도당위원장에게서 한주일 이내로 방식상학날자가 예견되니 준비를 다그쳐야 하겠다는 전화가 왔으므로 급히 림토목장으로 내려와 점심참을 리용하여 이렇게 긴급하게 모임을 가지였었다. 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나 한주일안으로 갈조성을 완전히 마감짓자는 긴박한 문제를 토의하였던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임에서 포치된 내용도 알려주고 거기서 차가 도착하면 제창 떠나려고 강변으로 나왔다. 오춘삼로인과 목장일군들도 뒤따라 나왔다.

깨끗이 정리된 강변에서는 황초평의 마지막 포전에 갈을 심으려고 물에 담그어놓았던 갈뿌리층들을 매생이에 싣느라고 벅쩍 떠들고있었다.

기슭을 따라 훌륭하게 꾸려진 갈밭들을 보는 홍성범은 자기가 처음부터 골똥하던 문제가 이제는 불을 보듯 명백해짐을 느꼈다. 더 달리 생각할바 없는 결론인듯싶었다.

(이번에 각 군당위원장동무들에게 새로 꾸린 갈밭들을 그대로 보여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것을 통하여 산과 강을 많이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 당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 방침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정당성과 의의가 얼마나 큰가를 인식시키는것이 보다 중요한것이다! 군당위원회 확대회의 문건들도 그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빨리...)

홍성범은 이런 생각을 굴리면서 이밖에도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갈조성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조직지도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머릿속에 정리해보았다.

젊은 나이에 비하면 매사에 침착하고 로동계급 출신답게 대범한 일군이였지만 다시금 수령님을 모시게 된다고 생각하니 흥분되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걷는 그의 뇌리에는 전번에 도당에 올라갔을 때 도당위원장이 수령님께서 과학원연구사들을 찾아 서해안으로 나가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들려주시던 다른 한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서 읽은 일이었다.

...밤은 깊어 내각청사 뒤편숲속에서 소쩍새가 울고있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집무실에 불이 켜져있으므로 부관은 조심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소후식이라도 하실줄 알았던 수령님께서 《로동신문》 교열지의 사실을 가필하고계시였다.

부관이 평양시건설장에 종일 나가계신 수령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쉬실것을 권하자고 다가서자 수령님께서서는 보시던 교열지를 탁자한옆으로 밀어 놓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동강 건너 새로 복구확장된 방직공장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로동신문>사실에 간부들의 이신작직문제가 실렸구만. 아주 중요한 문제요. 내용을 읽어보니 생각되는 점이 많소. 거, 전번에 새로 건설된 직조공장에서 만났던 군당위원장동무 있잖소. 로동계급출신 젊은 동무말이요.》

《알겠습니다. z군당위원장 홍성범동무...》

《옳소옳소. 그 동무요.》

수령님께서서는 힘있게 몸을 돌리시며 부관에게 자애깊은 시선을 보내시였다.

《그 동무는 압록강 류별공의 아들로 태어나 해방후 폐물밭에서 우리 글자를 배우고 건국의 첫뎀을 몰았소. 대학도 못나오고 당에 대한 충실성 하나로 일하고있는 동무인데 우리가 도와주지 못했소. 내가 방식상학에 참가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애쓰겠소. 일이 바쁘다나니 그의 사업에 대해선 미처 생각을 못들렸소. 당장 도당에 전화를 걸어 도와주도록 하고 우리 동무들중에서 누가 직접 내려가서 실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탁자앞으로 걸어오시며 깊은 사색에 잠기는것이였다.

《그리고 떠날 때 좀더 상세한 방향을 토론합시다.》

《알았습니다.》

부관이 대답을 올리고 자기방으로 돌아오는데 세명의 설계일군들이 찾아왔다. 몇시간전에 수령님께서 전화로 부른 일군들이였다.

부관은 그들을 수령님집무실로 안내하고 밖으로 나왔다. 새날에 접어들어도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일을 보고계시였다. ...

홍성범은 이처럼 바쁘신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지 못하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가슴을 조이였다. 생각할수록 자그마한 갈밭확장공사와 도안에서 진행되는 군방식상학준비 하나 능숙하게 하지 못하여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있는 자책감과 죄송함에 머리가 수그러졌다.

벌써 차가 갈밭머리에 와닿았으나 그는 거기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오전중에 황초평허궁줄다리공사를 끝내고 버드나무밑에 모여앉아 점심을 들고있는 청년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느때같으면 《군당위원장동무!-》하고 소리치며 뛰여올 청년들이 웬일인지 자리에서 하나둘 일어서며 의아쩍한 눈길만을 보내고있었다. 춘삼로인도 한분새였다.

자동차운전칸에서 뛰여내린 웬 처음보는 중키의 건장한 시나이가 군당위원장의 뒤를 성큼성큼 쫓아왔던것이였다.

《군당위원장동무!》

《?!》

홍성범은 뜻밖의 부름에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뒤를 돌아보았다. 뒤따라 오는 사람은 아버지수령님의 부관이였다.

《아니? 부관동무가?!...》

홍성범은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군당접수실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시다.》

《뭐요?! 부관동무가요?》

홍성범은 다시한번 놀라며 부관을 쳐다보았다.

뒤미처 춘삼로인이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갈밭머리에 온 그를 본 기억이 났던지 《아!- 이 총기 봐라!》하면서 허둥지둥 달려가 부관의 손을 덥석 마주잡았다.

《이게 누구요. 예!... 그래 수상님께서서는 건강하시겠지요?》

《네, 건강하십니다. 로인님을 비롯한 전체 우리 인민의 념원처럼 수령님께서서는 아주 건강하십니다.》

몇달만에 춘삼로인을 또 만나게 된 부관도 무척 반가와 로인의 손을 놓치 못하였다. 그는 한동안 군당위원장과 모여선 목장사람들을 둘러보고 나서 금방 터져나올듯한 걱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나직하나 정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수령님께서 군에 오셨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일시에 환성을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떠나갈듯한 만세소리가 압록강반을 뒤흔들어놓았다.

《수령님께서요?!》

순간 춘삼로인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뇌었고 흥성범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모두다 한사람같이 격동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부관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군당위원장동무는 방식상학과 군당위원회 확대회의때문에 몹시 걱정하고있는것 같은데 수령님께서서는 그래서 소문없이 내려오셨습니까.》

부관의 말에 흥성범은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하여 그를 물끄러미 쳐다볼뿐이었다.

부관은 계속하며 춘삼로인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 방식상학과 함께 가지게 될 군당위원회 확대회의에는 오춘삼로인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고 하시며 승태동무도 함께 내려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남필이에비두요?》

이렇게 말하는 춘삼로인의 아래입술이 가볍게 떨리고 두눈확이 일시에 불깃해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늙은것이 국사를 의논하는 군당위원회 확대회의에 참가하다니요?!...》

춘삼로인은 도무지 안될 일이라고 도리질을 하였다.

《그러잖아도 수령님께서서는 저를 보시며 <동무도 아다싶이 그 로인은 같이나 왕골 재배에선 누구보다 경험에 있는분이요. 군당위원회 확대회의에 그 로인을 참가시켜 인민의 목소리를 듣는것은 우리 당사업에도 부합되는것이요. 로인을 꼭 참가시킵시다. > 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렇다구 해도... 제가 뭘 했대구요...》

춘삼로인은 입술을 떨며 말을 더듬거렸다.

《너무 말씀을 낮추지 마십시오. 로인님은 이번에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로인님을 만난것을 대단한 <행운>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여간만 기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차안에서 승태동무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승태동무, 아버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 내가 전쟁시기 수풍쪽으로 갔다가 어느 한 농가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때 있던 일이 생각나누만.

그날저녁 웬 로인이 나에게 주인집로인을 통하여 정성들여 뜬 갈노전 한방을 보내왔댔소. 그때 나는 그 로인을 찾아보고싶었지만 시간이 급해서 그냥 떠났소. 그러나 그 갈노전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였소. 전쟁이 끝나면 압록강기슭에도 무성하게 갈을 조성하고 원로기지를 축성할 하나의 방도를 생각하였댔소.

그런데 봄에 직조공장을 돌아보고오던 길에 갈밭에서 일하는 로인을 보고 그때 일이 떠올라 차를 멈춰세우게 하였소. 그 로인은 내가 아무때든 꼭 찾아보자고 생각하던 그 로인은 아니였소.

하지만 나는 정말 기뻐소. 정말 반가웠소. 사람이란 자기가 늘 생각하던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그 사람을 만난것 못지않게 반갑고 기쁜법이요!>

우리는 수령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 시간이느줄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옛말처럼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부관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아직 돌아갈 시간이 푼푼하였던지 그들이 드리운 버드나무의 통나무의자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며 조마조마해 서있는 군당위원장을 마주 보았다.

《군당위원장동무, 며칠전에 왔던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생각나겠지요?》

《예, 생각납니다.》

《그 동무가 그때 도당에 들렀다가 올라가서 림토목장사람들이 자체의 힘으로 황초평에 허궁줄다리를 건너놓고 그곳에 갈조성을 끝내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수고했다고 그의 손목을 잡아주시었습니다. 그러시기도 농친것이 있을가봐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더 물으신 수령님께서서는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집무실을 조용히 거니시다가 저를 향하여 <됐소. 부관동무, 떠날준비를 합시다. > 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제가 생각되는것이 있어 <수령님, 그럼 회의준비를 할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문의하자 수령님께서서는 오히려 손을 들어 가볍게 저으시며 <가만있소...>라고 하시더니 잠시후에 <알만하오. 도당위원장동무에게만 알리고 절대로 알리지 마오. 괜히 사전에 알려놓으면 회의준비를 하느라고 보고서요, 토론이요, 뭐요 하면서 떠돌고 또 인민들만 들볶아놓을수 있소. 절대로 알리지 마오.>라고 엄하게 이르시었습니다. 저는 그때에야 비로소 수령님의 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시간후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평양을 떠나시었다.

수령님을 모신 승용차가 수도의 거리를 벗어나 서북방향으로 몇시간 잘 달리었을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차창으로 흘러가는 수려한 산발들과 계곡을 깊은 명상에 잠겨 바라보시다가 차를 멈춰세우시었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끝없이 펼쳐진 구름의 바다에 이윽도록 눈길을 주고계시었다.

하늘에는 구름한점 없고 이따금 불어오는 산바람에 밀림이 좌-좌- 설레이고 숨멍치같은 구름이 발밑에서 몽실몽실 흘러갔다.

수령님께서는 장엄하고 우아한 조국의 대자연을 유유히 부감하시며 강산에 환한 미소를 보내시었다.

《조국의 자연은 얼마나 아름답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40년전 내가 저 길을 걸을 때와는 달리 오늘은 류달리 더 아름답고 풍만하구만.

아마 인민이 이 자연의 주인이 되어 그런가 보지... 참 좋소!》

수령님께서는 혼자소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좀 갈릴사하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었다. 대단히 기분이 좋으시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아버이수령님의 귀익은 음성에 실린 선율은 한껏 부풀어오른 수원들의 가슴에 파고들며 하많은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부관의 머리에는 바로 만경대의 수수한 초가집을 나서시여 걸으신 중강과 림강, 무송과 길림, 오가자와 복만, 해방후 농촌마을의 이름없는 두령길과 눈내리는 제철소의 구내길, 포화속의 전선길에 잇닿은 무수한 현지지도의 길, 오늘은 멀고먼 산촌의 직조공장과 한적한 이 림토목장의 소로길에까지 뻗은 수령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려정이 펼쳐졌다.

부관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수령님께서는 깊은 명상에서 깨어나시며 천천히 말머리를 떼시었다.

《부관동무, 나는 방금 조선혁명군대원 세명을 데리고 오가자의 한 농촌에 나갔던 일을 생각했댔소. 그때 우리에게는 조선인 농민들이 많이 살던 그곳에 민족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는 농우회를 농민동맹으로 개조할 과업이 나서고있었소.

우리는 공식적인 회의장을 꾸리고 틀을 차리고 앉아서가 아니라 발머리에서 호미자루를 쥐고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조선사람들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어떻게 뭉쳐야 하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었소. 설참이면 그들에게 내가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갈들을

보면서 조국의 서해기슭에 길차게 자라나는 갈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기도 하고 저녁이면 야학방에 찾아가 우리 글과 조국의 력사를 배워주시기도 하였소. 또 로력이 부족한 집은 일손도 거들어주었소.

이렇게 되자 농민들은 우리가 내놓은 일은 모두 옳다고 손발을 걷어올리고 지지해나섰소. 그리하여 우리는 계획한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였소. 험하게 말해서 이것은 혁명군식 사업이었소.

이번에 군당위원장동무들이 림토목장사람들이 꾸려놓은 포전에 갈을 심으면서 경험을 체득하면 방식상학이 더 실감있고 배우고 느끼는것이 많을거요.

사실 나도 이런날에 한포기의 갈이라도 조국땅 기슭에 직접 내손으로 심고싶소. 수상을 포함한 우리 일군들이 림토목장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손을 도와주면 우리자신도, 그들도 얼마나 힘이 나고 궁지가 생기겠소. 그래서 이번에 황초평에 갈을 다 심기전에 서둘러 떠났소. 어떻소? 좋지, 부관동무!》

《좋습니다! 수령님!》

부관은 코마루가 시큰하였다. 수령님의 말씀이 너무도 뜨겁고 절절하여 더 다른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승태도 수원들도 모두 같은 심정이였다. 그들은 이번 군방식상학에서 받아안게 될 아버지수령님의 그 고귀한 뜻을 벌써 육감으로 느끼며 걱정을 삼키었다. 다만 다함없는 경모의 눈길로 그이를 우러를뿐이였다.

《떠납시다. 승태동무는 부모님들과 아들이가 몹시 그립겠는데 길이 지체되는것 같구만. 자 어서...》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다시 차에 오르시었다....

여기서 말을 끊은 부관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때까지 아버지수령님께서 좀 쉬실시간을 조절하는것 같았다.

《시간이 됐군요. 떠납시다. 군당위원장동무.》

《예, 떠납시다.》

홍성범은 방식상학과 함께 군당위원회 확대회의도 특색있게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기울이시는 끝없는 사랑과 로고에 가슴이 뻐근하였다. 그는 달아오르는 가슴노리를 어루만지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른 봄에 심어놓은 푸른 갈숲이 강바람에 물결 쳤다. 홍성범의 마음도 설레이는 갈파도마냥 건잡을수 없이 흥분되어 진정하지 못하였다.

오금을 치게 자란 갈이 마을앞의 후미진 넓은 기슭과 산갈령절벽밑으로 뻗어간 수물지에 푸른 청포단을 펴놓은듯 한별 쪽 덮이였다. 이제 한해가 지나면 저것들이 키를 넘게 될것이고 해마다 오뉴월이 되면 갈품을 날리고 가을이 오면 누런 갈숲이 와삭와삭 설레이게 될것이 아닌가. 그때는 저 푸른 하늘아래 그림처럼 서있는 산갈령절

벽을 에돌아 갈새들이 깃을 치며 날아들것이다.
또 갈단을 실은 배들이 압록강물결우에 평롱한
은구슬을 뿌리며 꼬리를 물고 떠날것이다.

그리고 군당위원장들이 돌아가면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조국의 하많은 강하천
기슭에는 잡초대신 무성한 갈숲이, 나라의 억만
재부가 설레일것이다. 그때 후대들은 이 갈숲의
력사에 대하여, 이 재부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기율이신 사랑에 대하여 잊지
못하리라! 그 심저에 도도히 굽이치는 열렬한 애
국의 녀에 눈굽을 적시리라!

홍성범은 고개를 비쩍 들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나는 군당위원장들에
게 그것을 말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
상학이다.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그 의의도 바
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꽃피난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애국의 녀! 그 애국
의 녀이 없이 어찌 한적한 기슭의 이름없는 로인
을 만나주시며 비바람 부는 한밤중에 먼 서해간
석지를 찾으시겠는가. 그것이 없이 어찌, 이땅의
일목일초를 그토록 귀중히 여길수 있겠는가. 그
것이 원천이다!

만년대계의 위대한 대자연개조의 거대한 힘은
애국심이다!! 우리 일군들은 갈숲 설레이는 이
기슭보다 그것을 심장에 안아야 한다. 우리 수령
님께서 조국의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사
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수천년이 흘러간 뒤
에도 우리의 후손들은 자자손손 수령님의 이 마
음을 재보로 안고 살아야 할것이다!)

홍성범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는
무한히 행복하였다. 복받치는 기쁨을 견잡을수
없었다. 온몸을 휩싸는 흥분과 환희, 격동으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이때 마을쪽에서 빨간
머리수건을 쓰고 연록색작업복상의를 덧입은 부
기원처녀가 동독을 가로질러 부리나게 뛰어나왔
다. 그 뒤로 할아버지를 부르며 남필이가 따랐다.
뜰에서 풀을 뜯던 염소가 놀라서 《매에-에-》 하
며 달아났다.

회계원처녀는 군당위원장앞에 와서 멈춰서며
숨을 튼느라고 얼른 말머리를 떼지 못하였다.

《군... 군당위원장동지, 전... 전화가 왔어요.
빨리 바꾸랍니다. 빨리요.》

《전화가?》

《그럼요. 군당에서요.》

《그럼 우리 목장사무실을 거쳐 잡시다.》

부관이 이렇게 말하며 홍성범을 데리고 서둘러
자동차에 올랐다.

회계원처녀가 더 해야 할말을 잊었던지 다시
자동차로 달려가는데 벌써 차는 부르릉 소리를

지르며 바쁘게 미끄러져갔다. 회계원처녀는 벗겨
지는 머리수건을 거머쥐며 아쉬운듯 잠간 서있다
가 다시 춘삼로인과 목장사람들이 있는데로 걸어
왔다.

《할아버지, 전화를 받으니 원수님께서 우리 목
장으로 떠나셨다는것 같아요.》

《뭐?!-》

춘삼로인은 눈이 휘둥그래지며 이렇게 한마디
뇌이더니 병병해 서있을뿐이었다. 꿈같은 소식에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심장이 뛰어나
울듯 툭툭 뛰었다.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였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달걀침을 삼키며 목에 걸었던
수건을 움켜쥐기도 하고 옷설을 털기도 하고 심
호흡을 하기도 하고... 안절부절을 못해하였다.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수많은 동그라
미가 생기여 아물거리면서 갈숲과 동쪽길만 퍼렇
게 혹은 누렇게 보였다. 이따금 수염발이 선 아
래 턱이 떨리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삽자루를 더
듬어 움켜쥐었다.

《할아버지, 원수님께서 오셨대요. **김일성**원수님
께서요!》

그제서야 남필이가 강변으로 뛰어오며 회계원
누나에게서 들은 기쁜소식을 할아버지에게 전하
였다.

《오냐, 수상님께서 네 아버지도 데리고 오셨단
다.》

《아버지두?》.

《그럼 아버지두...》

《야, 좋구나!》

춘삼로인은 손자의 천진한 눈동자를 들여다보
며 금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 같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푸른 하늘을 떠이고 아슬하게 솟은 산갈령절벽
우에 햇숨같은 구름송이가 떠있고 수리개 한마리
가 높이 날아올라 빙빙 돌며 커다란 원을 그렸다.

부관과 군당위원장이 타고 목장사무실로 들어
갔던 차가 급히 되돌아 강변으로 나오고 사람들
이 하늘이 떠나갈듯 만세를 부르며 동쪽길로 달
려갔다. 남필이도 신발을 벗어쥐고 기를 쓰고 달
려 간다.

벌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신 승용차
가 산갈령절벽을 낀 압록강동쪽길을 따라 해빛에
차창을 번쩍이며 달려오고있었다.

춘삼로인은 잡고섰던 삽자루를 툭 떨어뜨렸
다.

《아! 수상님!-》

로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견잡을수 없이 흘러내
렸다.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눈물, 행복
의 눈물이었다.

성인

최승철

어찌하여 세계의 모든 대륙들이
오늘도 경모의 꽃을 안고 찾아오는가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동지
그이는 인류를 비치는 성인이지였더라
이름난 모든 거인들우에 솟은!

예언하노니 21세기의 세계사도
수령님 위업으로 계속 씌여지리라
부처와 초생달, 십자가의 세계우에
자본과 약육강식의 소용돌이우에
주체문명의 대사조 펼치시고
인민을 자주의 별천지에 이끌어올리신
김일성 동지

그이의 사상은 눈부신 해발
어둠을 쓸어내고 새 생명 키우도다
그이의 목소리 투쟁의 친구마다

자주의 성가로 올리고
인간사랑의 열풍 일으키나니

못신들에게는
저마다의 성지가 있다 하라
인류는 세월과 더불어 깨달으리라
인간자주의 성지는 평양인것을
누구나 머리숙여 생각하리라
범접할수 없었던 하느님의 자리에
천대받던 인민을 안아올리시고
천만가지 보화를 안겨주신 수령님을!

아, 그이는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대성인
하기에 그 미소 봄별처럼 눈부시고
서기어린 그 눈길
그렇게도 무한을 꿰뚫어보셨더라

영생

리동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는 바뀌어 어느덧 세해
다시 왔구나
못잊을 7월

조용히 달력을 번지니
눈언저리 뽕양게 흐려와
보이지 않아라
7월 8일

무정해라, 세월이어
어쩌면 그리도 모질게
우리의 가슴가슴에
비통함을 채워야만 했더니

눈물을 머금고 나는 달려갔노라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뵈고싶어, 못견디게 뵈고싶어
노을피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나는 들었노라, 아버지 그 품에서
마음속 공허를 말끔히 가셔주는
부드러운 숨결

은정어린 음성
-눈물을 거두라고,
동무들이 충효를 다해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어가니
나는 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있다고...

아, 조용히 이 마음 달래이시는
수령님의 그 숨결 그 음성
순결한 자양이 되어
온 몸에 맥맥히 흘러드나니

함께 계시여라
온 나라 보살피는 아버지 마음으로
해빛같은 미소를 뿌리시며
철의 기지 용해장과 농장별 포전머리에

함께 계시여라
섬마을 찾으셨던 오붓한 가정에도
전원초소 다녀가신 중대의 병사들속에
전천의 영웅소장과 이야기도 나누시며...

아, 사랑과 미덕으로
한평생 이룩하신 수령님 위업과 함께

인민의 가슴에 새겨진
영생의 7월은 가지 않아라

하늘같은 장군님의 충효의 절정우에

영생하시여라, 우리 수령님은
주체의 새 세기를 밝히시며
인류태양의 모습으로!

수령님 부디 안심하십시오

석광희

가서서는 아니 될
그 길을 가시면서
무거웁게 안고가신 심려
과연 얼마입니까?

더 있어야 할
석탄이며 전기며 비료며
인민생활이며
그리고 조국의 통일이며...

어이 한두가지라 하겠습니까?
생애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슴속깊이 품고계시던
일만가지 그 많은 심려

그러히도 안타까이 속을 태우시다
떠나신지도 어언 3년
아마 어제같기도 하고
혹은 30년같기도 한 그 나날

수령님의 심려를 그대로 이어안으시고
장군님 안가신곳 어디입니까?
적들을 지척에 둔 최전방고지
공장과 농장, 사회주의건설장...

실로 난관은 한두가지 아니였어도
나라일이 피이게 하셨습니다
탄벽을 허물며 막장은 깊어만가고
새 발전소 세워 전기를 더 내게 하셨습니다

전야는 전야마다
황금나락 영글어 실리게 하고
양지바른 산기슭엔 새 창문들이
행복의 미소처럼 비치게 하셨습니다

자연이 제아무리 재해를 들썩우고
적들이 제아무리 재난을 몰아와도
바람이 세차면 세차질수록
더욱더 나래치는것이 붉은기가 아닙니까?

보십시오
활기편 저 출근의 물결을
들으십시오
소년단소고대의 우렁찬 저 북소리를
신심과 락관에 넘쳐
90년대 《고난의 행군》에 나선 대오
《남패자》를 떠난 마음이 되고
《북대정자》로 향한 마음이 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만을 따르면서
비록 힘들게 걷는 걸음이지만
그이이시야말로 최후에 크게 웃으실 령장이심을
억척같은 신념으로 심장깊이 새기면서

수령님, 그리운 수령님
부디 안심하십시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조선은 더 부강한 나라로 솟아오를것입니다

서사시

번영하라 김일성조국이어

이 서사시를 어버이수령님 서거 3년상에 삼가 드린다

김만영

사람들이여

세번째 7월을 가슴에 안는 인민이며

이 땅에 흘러간 3년세월

천구십륙일의 그 낮과 밤을

차마 못잊어 하나도 못잊어

내 다시 붓을 들었노라

그리움이 쌓이고쌓여

시련이 겹치고겹쳐

결코 짧지 않은 3년

우리 눈물겹게 체험하고

가슴사무치게 절감한것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4월은 있어도 7월은 없다는

이 나라 인민의 피의 절규를 안고

심장에 새긴 진리

동시대 사람들에게만 터놓을수 없어

저 멀리 후손들도 오늘에 불러

이 가슴을 헤치나니

정일봉을 높이 받들어올리고

줄기줄기 굽이쳐내린 백두대산줄기

어머니 대동강이

만경봉을 감돌아흐르는

이 땅, 이 강산에서

영원히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인민이어

천년만년 살아갈 후세의 사람들이여

오,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안고살

운명의 참된 진리를

내 오늘

7월의 이 언덕우에서 웨치노라

×

하늘은 푸르고

산천도 풍요한 내 나라, 내 조국을

수령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후세사람들은 물을수 있으리

우리가 어떻게 길이길이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게 되였는가를

노래로

전설로

수령님 이야기 행복속에 꽃피우며

그대들은 물을수 있으리

어버이수령님이

어떻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를

내 말해주리라

만만년 유구한 민족사에서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

가장 운명적인 세월을 살아온

이 나라의 한사람으로

로동당시대의 시인으로

말해주리라

잃으면 영영 숨지고말

우리의 햇빛이며 공기

넋이며 숨결인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켜졌는가를

만경대고향집 들메나무에도

백두의 청청밀림에도

그리움이 촘촘히 년륜으로 깃든

그 세월 3년

꿈결에도 수령님을 뵈옵는

그런 밤이면 아, 그런 밤이면

한밤중에도 깨어나

소리없는 눈물로 베개잇을 적시는

인민의 애라는 마음이어

이 나라의 푸른 하늘

저 련련한 산발들에

그리움이 타는 노을로 비껴흐른 3년세월은

짧았던가

길었던가

그 세월 한가슴에 안고
그 세월을 새겨보니
눈앞엔 펼쳐지는구나
3년세월이 흘러간
삼삼히도 어려오는 낮익은 길이

하거니 사람들이여
나와 함께 걸어보자
이 나라의 높고낮은 산발들을 넘고넘어
이 나라의 사뭇치는 강하를 건너건너
조국의 산야로
아득히 굽이쳐간
전선길
전선길

무적의 기상 펼치는 고지와 고지
구름을 휘감는 아아한 산정
멸적의 폭풍을 안은
대련합부대 지휘부들과 야전지휘소
굽이굽이 뻗어간 참호들과 교통호를 따라
걱정의 만세소리 우렁차던
전선길
전선길

깊어 깊어만가는 전선길의 이밤
최고사령부의 밤
작전도를 마주하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우리의 **김정일**동지

4월의 봄날이 가까와올수록
이 땅에 3년상이 가까와올수록
더욱더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먼먼 평양의 하늘쪽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록음을 돌리시여라

문득
울려나오는 음성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언제나 마음속에 젖어있는
아,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어

때로는 천막안에서
때로는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잠도 휴식도 다 잊으시고
듣고 또 들어오신 수령님의 말씀

가슴미여지게 생생히도 되살아오르는
오, 추억이여 추억이여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끝없이 나누시던 그 말씀들이여

불노을 피어나는 제강소구내길
황금물결 설레이는 전야의 들길
불빛은 교정과 거창한 건설장들
령넘어 굽이굽이 이어지던 초소길
그 길들에서 나누신
그 음성이 울려와라

먼먼 외국방문의 길
장군님 전화로
수령님을 찾아뵈울 때 나누시던
그날의 말씀도 이밤에 들으시는듯

언제나 친근하고
언제나 힘을 주는
그 음성 들으시고서야
하루일을 시작하는것이
어느덧 몸에 배신 장군님

탁월한 사상
비범한 령도로
력사의 장장만리에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그 위업을
한가슴에 다 안으시며
아, 수령님의 한평생과 함께 계시는
전선길의 이밤

수령님 모시고 걸어온 천만리
수령님 모시고 가야 할 천만리
다 새겨보시고 다 밝아보시며
수령님 모시고 건설할 새 세기를
다 안아보시는 력사의 밤이어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하늘의 별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에
새벽노을이 소리없이 비끼는데

문득 끊어지는 그 음성
이윽고 고요한 밤에
빈테프만 풀리는 소리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서신 장군님
록음을 다시 돌리시건만
수천수만개로 이어지던 록음테프
수령님 음성은 여기서 끊어졌거니

아, 이제 다시
수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수 없단말인가
이것이 이 땅에 남기신
수령님의 마지막음성이란 말인가

생존해계실 때는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시더니
가실 때에는
자신을 위해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
우리 아버지!

수령님도 인간이시여서
몸이 고달플 때도 아플 때도 있었건만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그 아픔과 피로움을 다 참고 이기시며
자신의 건강을
늘 잊고 일하시던 수령님

못잊을 그 어느 설날아침
신년사를 하시는
수령님 음성이 퍼지고
안경에 자주 손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던
우리 장군님
순간 그 누구도 느낄수 없는것을 감촉하셨거니
수령님의 눈에
병조가 생겼을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수령님을 믿고 사는
이 나라 인민이 다 비껴있고
이 나라 강산이 다 비껴있고
조국의 어제와 오늘
천만년 미래가 다 비껴있는
그 빛나는 안팎
우러러 바라만 보아도
인민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자애로운 안팎

수령님의 눈에
순간의 피로가 깃들세라
보실 문건의 활자와 색깔에도
크나큰 마음을 기울이시더니
언제부터인가는 문건들조차
록음으로 올리시던 우리 장군님

눈을 밝게
더 밝게 해드리시려
그리고 애쓰시였건만
수령님 과로로 눈에 병이 깊어진것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긴급치료를 벌리도록 하시고
수술도 하게 하시고
새로 안경도 마련해올리시였어라

이제는 눈이 잘 보인다고
젊었을 때처럼 시력이 좋아졌다고
그처럼 기뻐하시며
그 안경을 끼시고
외국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 안경을 끼시고
조국통일의 문건에
활달하신 친필을 남기시더니

그 안경을 벗지 못하신채
그 안경을 벗지 못하신채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
우리 수령님

안경이 내 눈에 꼭 맞아 좋다고
수령님 못내 만족해하시더니
아아, 그 안경이
자신께 다시 돌아올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못잊을 추억을 안고
가슴아픈 사연을 안고
우리 장군님
날을 새우고 또 이어가시는
전선길

우리 수령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혁명의 난국을 헤치시였고
우리 장군님은 준엄한 이 세월

인민군대를 찾으시여
사회주의의 진지를
한몸으로 다져나가시나니

수령님의 필생의 뜻
수령님의 영생을 위해
3년세월 한지에 계시며
우리 장군님 걸으신 길은
그 얼마이더나

그 길은 그 길은
우리 장군님
시대의 최전선
혁명의 최전선
사회주의 최전선에 계시며
이 세상 처음 열어놓으신
아버이수령님 영생의 길!
위대한 영생의 대로!

그 길로
우리 수령님 오시였다
언제나 해가 지지 않는 금수산성지
그 숭엄한 계단을 내려
낮이나 밤이나
우리에게 오시였다
인민에게 어제도 오늘도 찾아오시였다

그 길로
한여름의 땀약별이 내리는
금당벌의 포전을 거쳐
연백벌의 논벌을 지나
수령님은 우리에게 오시였다

군인정신이 이 땅에 나래쳐오른
안변의 백리물길
월비산의 아흔아홉굽이를 돌아
우리 장군님과 수령님은
언제나 함께 오시였나니

아, 우리 살아온 3년은
짧고도 긴 세월이었구나
진정 그 3년은
수령님 떠나가신 3년이 아니었다!
수령님 우리에게 오신 3년이였다!

길은 길이어도

이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여라
산기슭엔 꽃들이 피고
산새들이 우짖는 길이어도
쉬이는 걸지 못할 길이어라

눈여겨보시라
눈여겨 새겨보시라
우리 장군님 걸으신 그 자욱자욱이
내리는 눈비속에 보여오고
굽이굽이 흘러가던
군용차의 불빛속에 어려오는 길

걸음걸음 뜨거운 길이어라
우리 바라보는 저 언덕바위우에서
찬 죽을 드시고 가지는 앓았는지
저 굽인돌이에서
잠시 군용차를 세우시고
쪽잠에는 드시지 앓았던지
저 이름없는 강변에서
젖은 옷을 말리워입고 가시지나 앓았던지

송구해라
3년세월
우리 장군님
이런 길 가지 않으시면 안되었던가

이 길에 서니
차창을 두드리던 비소리가 들려오고
판문점에 흐르던 안개가
이 가슴에 스며들고
길길이 밤하늘에 일어서던
그날의 초도의 파도소리가 가슴을 치는구나

파도가 높아
전설도 많은 림당수
그 거친 창파를 헤가르며 나아가는
작은 패속정우에
우리 장군님 계시었거니

초도는 수령님께서
꼭 가겠다고 하시다
생전에 끝내 가시지 못한곳이라고
그래서 내가 꼭 가야 한다고 하시며
수령님 자욱이 찍히지 못한 공간을
자신의 자욱으로 이어놓으시며
최전연의 초도로 떠나신 길

폭풍은 불어치고
파도는 배전을 치고
산악같은 격랑우에
가랑잎처럼 배는 뒤흔들리는데
휘뿌리는 파도의 물갈기를 맞으시며
갑판에 계시는 그이

흠뻑 젖은 야전복에서는
물이 흘러내리고
벗어 기울이시는 신발에서도
물이 쏟아져나왔거니

그 모습을 우러르며
병사들이 울었다
인민들이 울었다
꿈결에도 뵈고싶던
아버이품에 안겨
파도에 젖은 장군님의 야전복을
눈물로 다시 적시었다

하여 인민은 보았어라
병사들은 보았어라
해풍에 옷자락 날리시며
최전연 섬초소 가득히
해빛을 뿌리며 오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을

그 길에서 보았어라
허리에 가벼이 손을 얹으시고
풍년들판에 환하신 웃음을 보내시는
수령님의 인자하신 그 모습

《고난의 행군》길을 함께 걸으시며
힘을 주고 고무를 주고
투쟁의 신념과 신심을 주시는
수령님의 그 모습

위대한 그 손길을 높이 드시여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새 세기로 이끌어가시는
거룩한 그 모습을
인민은 분명 보았나니

아, 그 길은 정녕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가
그대로 높뛰는
김일성민족의 피줄기!
영원한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길!

그 길을 열며
그 길을 넓히며
장군님 천신만고 이기며 가시는
풍찬로숙의 길

그 길에서
피로가 쌓이고쌓여
몸에 신열이 나고
입맛을 다 잃으셨을 때에는
자리에 좀 눕고싶어도
수령님 영생을 지키시느라
그리도 로고가 많으시였거니

하루 스물네시간
수령님 생각으로 꼭 차계시는 그이
길을 가시면서
차창에 비껴오는 나무 한그루
밭이랑 하나를 보시여도
거기에 수령님의 손길
수령님의 자욱이 어려있는것 같아
다시다시 눈여겨보시는 그 깊은 마음

언제였던가
이 나라 서북변
먼 산촌길을 가시던 장군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 세운
수령님 현지도표식비앞에
이름모를 나 어린 소녀들이 놓은
세송이의 들꽃을 보시고
차를 멈추신 그날은

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들꽃 세송이에서도
사무치게 헤아려보시며
눈굽을 적시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

길이여 길이여

수령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인민의 마음을 안고
우리 장군님
자옥자옥 열어놓으시는 길이어

우리 3백년 3천년을 걸어도
못다 걸을 길
지난 한해에도 걸으신
2만 5천여리 장정이
력사의 한구간으로 놓여있는 길

그래서 더 뵙고싶구나
이 길을 걸으신 그이
못견디게 못견디게
더욱더 뵙고싶구나

간절한 이 마음 달래며
마음속 길을
걸고 또 걸노라니
최전선의 메부리
오, 1211고지로 이어지는구나

하늘에 땅에
봄빛이 가득히 흐르고
봄날의 훈향도 넘치는 4월
생각도 하찮아
가실 곳도 하찮으시련만
장군님 가신 곳은 그 어디였던가

인민은 화창한 봄날을 즐기게 하시고
자신은 이 봄날을 지켜주시려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주시려
조국의 지혜산
최전연고지에 오르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전화의 그날
조국의 운명을 안으시고
쏟아지는 불비를 헤치시며
싸우는 전사들을 찾아오신
수령님의 그 모습
수령님의 그 자옥을
더듬어보시는 그이

포연속에 작전도를 펼쳐놓으셨던

못잇을 그 너럭바위
타다남은 나무들
하나하나 다 쓰다듬어보시며
사적비앞에 걸음을 멈추신
거룩한 영상이여!

한자한자 비문을 읽어보시며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사무쳐
걱정을 누르지 못하시던 그이

강산을 굽어보시며
조국과 인민앞에
시대와 력사 앞에
엄숙히 내리시는 구령소리
경건히 손을 올려 드리시는
영생의 경례

-차렷!
위대한 수령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산천을 울리고
천하를 떨치시는
장군님의 그 구령소리에
우리의 혁명무력이 정렬하였다
인민이 정렬하였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력사가 정렬하였다

산정에 울리는 그 구령소리
련련한 산발넘어 메아리쳐가자
온 강산이 일시에 화답한다
하늘땅이 일시에 화답한다

끊어졌던 수령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
차렷!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업적의 영원불멸을 위하여
차렷!

정녕 1211고지는

수령님의 영생을 지킨
공산주의도덕과 의리가 승리한 1211고지
혁명가의 신념과 랑심이 승리한 1211고지
위대한 인간의 충성과 효성이 승리한 1211고지

아, 3년세월
우리 장군님
수령님의 영생을 받들어올린
그 위업의 봉우리는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이
대를 두고 오르고올라야 할
위대한 인간의 의리의 최고봉
영원히 빛날 력사의 메부리여라!

×

사람들이여
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 길에 이야기도 끝이 없어
내 또한 하고싶은 말도 많고많아라

허나 그대들
결어보면 다 알수 있으리
태양의 길우에
태양의 집이 솟아있고
영생의 길우에
영생의 집이 솟아있거니

새벽노을속에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
장군님 높이 받들어올리신
인민의 궁전
김일성민족의 국보

3년세월 하루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듬으시고
불타는 충효로 꾸리시여
세상이 다 바라보는 집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색을 모르는 태양상
휘넓은 화강석광장
수려한 풍치
긴긴 외랑의 창문들
그 하나하나에 어린

로동당시대의 정성을 보며
후세에도 인류의 경탄을 불러일으킬
태양의 집
영생의 집

이 나라에는 단 한분의 수령
김일성동지밖에 없다고
엄숙히 말씀하시며
세계가 영원히
수령님만을 알게 하시는분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우리 어찌 민족의 존엄을 떨치며
세계앞에 당당히 가슴펴고
금지높이 살수 있으랴

진정 어버이수령님 모시여
우리는 제 나라 말과 글
제 민족의 녀과 감정
제 민족의 모든것을 가지였노라
민족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며 터전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가지게 되었노라

한평생 인민의 락을 위해
그 어느 하루
그 어느 하루밤도
편히 쉬지 못하신 수령님이시였기에
오늘도 가슴치는 그날의 이야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가을
먼동이 트기도전에
풍년든 연백벌에 나오신 수령님
안개자욱한 논두렁에서
탐스런 이삭 알알이 세여보시려
벼이삭 한대를 뽑아드시였건만
사위는 아직도 어둠에 잠겨
안타까이 안타까이
날뵈기를 기다리시여라

몇번이나 두령길을 오고가시였는지
몇번이나 동녘하늘을 바라보시였는지
내리고내리는 이슬에
옷이 다 젖는줄도 모르시고
사연도 많은 그 안경을 벗어
닭고 또 닭우시던
어버이모습이여

천리길을 오신 수령님은 새벽벌에 계시고
인민은 단잠에 들어있었으니
이슬에 젖은 그날의 벼이삭
오늘은 눈물에 젖어 눈물에 젖어
수천수만의 이삭으로 패여
우리 가슴에 파도치고있는것 아니던가
인민에게 안겨주는 하나하나의 행복에
아, 수령님 이렇듯 천만공력을 들이셨던가

그런분이어서
우리 수령님은 그런분이어서
눈물의 바다에서
온 나라가 몸부림치던 그날
당중앙청사우에 나뭇기는 붉은기를
오래오래 바라보시며
우리 장군님 하시던 말씀

-당중앙청사의 저 붉은기를
더 높이 날리게 합시다!

아, 하늘에 번개치고
폭풍이 불어쳐도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빛내가시려는
위대한 선언이여!

수령님 남기신 유산
이 나라 나무 한대 풀 한포기
이 나라 공기와 물 한방울
이 나라 푸른 하늘 한조각도
자신의 온몸으로 여기시며
이 땅에서 천만후대가 살
민족번영의 길을 굳건히 다져주시는
그 높은 뜻이여

3년세월
상복을 벗지 못하신채
상체가 되시여
마음고생이란 고생은 다하시며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장군님

수령님의 영생이 그 길에 있기에
새집들이하는 강동의 은정마을에도
서해의 구월산과 동해의 칠보산에도
불멸의 자욱을 수놓아오시지 않았던가

해칠보와 내칠보 외칠보
일만경치 펼쳐들고
봉이마다 굽이마다
기암괴석 저저마다
제 모습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동해의 천하절승 칠보산

인민이 즐기는
인민의 명승지로 꾸리시려
골마다 걸으시고
바위마다 찾으신 그이

수령님 물려주신
이 나라 이 강산을 더 아름답게 빛내여
수령님의 영생에
그 아름다움을 드리신
숭고한 마음이여!

걸음걸음 그 길에서
인민의 가슴에
노래를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신심과 락관을 주시며
이 세상 가장 밝은
태양의 미소를 안겨주신 그이

수많이 집필하신
불멸의 로작들에서
수령을 혁명의 최고선배로 받들어올리시고
수령의 사상을
영원한 기치로 안겨주시여
인민의 신념을
더욱더 굳건히 다져주셨거니

보시라 조국이여 인민이여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비통하고 어려웠던 이 3년은
슬픔의 가장 깊고깊은 그 밑바닥에서
승리의 상상봉으로 치달아오른 3년세월

불굴의 신념과 순결한 량심
뜨거운 의리로 뭉친
아, 아-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3년은
혁명의 최전선에서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오신
최고사령관의 3년이라고

수령님을 떠나보내신 3년이 아니라
수령님을 우리에게 오시게 하신 3년이라고
김일성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빛내여준
3년이라고

그렇다
장군님 지켜주신
수령님의 그 품은
어제도 오늘도 먼먼 래일도
우리 민족이 수령님의 한식술로 안겨살
영원한 어머니조국의 품

백년, 천년 세월은 흘러도
위대한 **김정일**동지 계시여
수령님의 그 사상 그 은정은

억만가닥 해살이 되어
붉은기 날리는 사회주의하늘가에
행복한 이 땅우에 영원히 비치리니

길이길이 빛나라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끝없이 끝없이 울려퍼질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어!
천추만대 룡성번영하라
슬기롭고 용감한 **김일성**민족이어!
영광스러운 **김일성**조국이어!

(1997. 6. 25)

7월의 거리에서

황성하

기다린듯
다투어 꽃들이 피어
이 가슴에 골라엮은 꽃을 안았습니다
하니 자꾸만 뜨거움이 젖어올라
7월의 거리에 나왔습니다

가닥가닥 뿌려오는 해살은 눈부신데
목메이게 꽃향기가 풍겨옵니다
아마도 대지가 쏘는 그리움의 바다인듯
대동강 푸른 물이 숙연히 쓰다듬는
사연많은 수도의 유보도들...

누구나 수령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거리에 넘치는 눈빛과 마음들
한창 장난밖에 모를 철부지애들도
타박타박 꽃을 들고 만수대로 오르니
바라보는 마음조차 눈물에 젖습니다

한생토록
우리를 그리도 사랑해주신 수령님
수령님이 그리워

하늘도 그리움에 젖고
한줌 흙조차 그리움에 젖은 이 땅

그리움이 차고넘친 이 강산에
오늘도 수령님은 계십니다
태양같은 미소를 우러르며
베푸신 그 은정 오늘도 느껴안은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계시여
낮이나 밤이나 따사로움 주시니
우리 《고난의 행군》길을 가면서도
절망과 비관에 마음 열지 않았습시다
승리의 신심이 차고 넘쳤습시다

7월의 거리거리에
수령님은 밝은 미소만을 뿌려줍니다
붉은기 높이 들고 장군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에 해빛을 뿌려주십니다
희망찬 미래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더 뜨겁게 겨안으십니다

이 광장에서

-한 전쟁로병이 부르는 노래-

전계승

이 광장에서
나는 또다시 떠나리
우리 장군님 명령하신다면
포연속 화선천리
섬멸의 길 천리
또다시 떠나리

우러르면
전승의 그날
승리의 열병식장에서
환히 웃으시던 수령님의 그 미소
오늘도 해빛같이 넘쳐나는
금수산기념궁전 이 광장

이 광장에 들어서면
그날의 영상이 어려온다
전쟁!
세계를 진감한 그 포화의 현실을 누르며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단호히 선언하시던
그 음성도 귀전에 울려오나니

조선의 존엄으로
지구를 울리던 그 음성
그 배짱이 내 숨결에 높뛰여
호미자루밖에 모르던
이 손에 총대를 쥐고
돌격전의 고지, 육박전의 그 언덕에서
내 용맹을 떨친것 아니던가

결사전의 낮과 밤
성장의 날과 날
화전민의 아들인 내 발밑에서
《기술우세》의 신비성이 밝히던 소리
《강대성》의 신화가 나뿜굴던 모양
오늘도 자부하며 느끼나니

진격의 날과 날
수령님의 크나큰 담력과 믿음
빛나는 지략과 전법으로
런전런승의 합성을 터치던
승전의 낮과 밤이여

7.27 전승기념일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 높이 모신
수령님의 영상 우러러볼수록
북받쳐오르는구나
넘쳐나는 옛병사의 배짱과 용맹이여

오, 이 광장에서 떠나리
김일성대원수님 그대로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또다시 명령 내리신다면
이 손에 다시 총을 잡고

오, 이 광장에서
내 다시 달려갈 전선천리
승리의 그 길을 바라본다
영원한 승리자의 용맹이 솟구친다

하늘

부관의 이야기 (1)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두 어깨우에는 언제나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실려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또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생의 순간순간을 그 어떤 위인이나 억만장자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의 절정속에서 맞고보내기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어떻게까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란 단 한가지-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의 부관이라는 그것입니다.

위대한 그분께서는 지금 머지 않은 앞날에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대기념비적창조물의 형성도안을 보고계십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의 내부형성도안입니다.

공화국의 손꼽히는 창작가, 설계가들이 미중유의 사색과 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은 형성도안입니다. 어쩌나 섬세하고 어쩌나 생동한지 도안이라기보다는 완공된 구조물을 마주한듯한 심정입니다.

넋직한 방안에는 숨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창작가들, 설계가들은 조각상마냥 굳어져있습니다. 모두의 눈길은 위대한 그분의 손짓 하나, 표정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한껏 긴장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날씬한 지시봉의 한허리를 뒤흔쳐 그것으로 다른 손바닥을 천천히 다독이시며 내부구조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아가십니다. 점 하나, 선 하나마저도 세심히 살펴보아가시는 그이의 어글어글하신 눈에서는 섬광이 번뜩이는듯 싶습니다. 뒤늦게야 도착한 기록영화, 텔레비존 촬영가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세라 일손을 다그칩니다. 조명을 준비한다, 빛을 채어본다, 줄을 늘인다...

저 키가 큰 (하기야 촬영가로서는 안성맞춤이겠지만) 텔레비촬영가를 좀 보십시오. 너무 높이 올라섰습니다. 접이식사다리에서 한단 내려서야 합니다. 내려면 차라리 내려서겠습니다. 그래야 최고사령관동지의 모습을 더 정중하고 친근하게 포착할게 아닙니까.

주제넘다고 비웃지 마십시오. 언제인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큼직한 진회색트렁크를 저의 생일선물로 주신적이 있습니다. 흥분속에 트렁크를 여니 뒤통에도 각종 굵기의 모필, 화필타스들이며 각종 굵기의 연필타스들, 고급 조선했을 색감들, 지우개... 미술도구 일식이 가득차있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어 고개를 드니 그이께

전창철

서는 정겨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동무를 언제까지나 내 곁에 붙잡아둘수야 없지 않소. 중학교때 미술소조원이었다지?!... 꼼꼼하고 침착한 성미로 보나 한번 본것은 사진기처럼 기억하는 그 관찰력으로 보나 동무에겐 확실히 미술가다운 기질이 있소.

늦은감은 있지만... 밑천은 있는셈이니 짬짬이 그림공부를 하는게 어때?》하십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한채 트렁크를 내려다보며 눈물만 툭툭 떨어느라니 아득히 흘러가버린 소년시절, 걸터부터 들어가지고는 화가들을 흉내내느라 내 손으로 뚜드려 만든 대문짝같은 《화판》을 걸치고 뻗뻗한 머리칼을 걸음마다 쓸어 넘기면서 내가로, 들판으로, 건설장으로 게사니마냥 거들먹거리며 쏘다니던 짜릿한 추억의 봄향기가 가슴뭉클하게 흘러들었습니다.

제가 가슴속에 늘 품고다니는 수첩속에는 저를 위해 짬짬이 해주시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적어 넣은 뜻깊은 글밭들로 가득차있습니다. 손수 저의 하루일과표도 짜주시고 제가 읽는 책들의 감상도 물어주시고 감기에라도 걸렸을 때엔 손수 저의 입에 약물도 떠넣어주시고...

트렁크를 받아안던 그날 《최고사령관동지, 저는... 영원히 최고사령관동지의 부관으로 복무하겠습니다.》하고 울먹이며 말씀드렸을 때 장군님께서 저를 품안에 꼭 껴안아주시며 《그래그래, 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영원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되자구. 하지만 그림공부는 해야 돼.》하시며 저의 먼먼 앞날을 염려해주시었습니다.

그 트렁크를 받아안은 그날부터 그이께서 새로 짜주신 일과속에 소묘의 연필을 놀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의 가슴속에는 정말로 화가가 되어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우리의 장군님에 대한 사랑의 전설들을 화폭에 담아볼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도 내 식대로 잡아보는 구도와 촬영가들의 구도를 대비해보며 불만을 품는것입니다.

김정일 동지의 표정은 여전하십니다. 저렇듯 열정이 넘치는 사색속에 잠겨계시는 순간에는 아마도 가까이에서 폭음이 울린대도 모르실듯싶습니다.

그렇듯 진지하게 살펴보아가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다독이시던 지시봉을 멈추십니다. 지시봉을 놓고 팔짱을 끼시더니 몇걸음 뒤로 물러서십니다. 한순간 서계시다가 다시 또 몇걸음 물러서시더니 커다란 형성도안을 한눈에 담으신채 점도록 서계십니다.

이제 그이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수 없는 모두의 눈동자마다에는 불안과 기대, 초조가 한껏 실려들었습니다.

내 심정 역시 다름바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장군님의 저 엄숙해보이시기도 하고 근엄해보이시기도 한 표정속에서 지금 몹시 흥분하고계심을 푹푹히 가려보고있습니다.

그이께서 마침내 팔짱을 푸십니다.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방안을 울립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훌륭합니다.》

방안을 둘러보시는 그이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가득 실렸습니다. 눈부신 조명등으로 한껏 밝아있는 방안이 한결 더 밝아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간이었습시다. 어째서인지… 그이의 눈가에는 또다시 그 근엄한 빛이 서서히 비끼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치도 자기자신과 하시는듯한 조용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십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생존해계셨을 때… 이런 훌륭한 공전을 마련해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토막토막 끊기우는 그 음성… 화락하니 물기에 젖어드는 그 말씀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사정없이 허비는듯싶습시다. 어느새 그이의 눈동자에도 물기가 번뜩입니다. 누군가가 흐느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씩어삼킵시다. 헤아릴수 없이 크나큰 슬픔이 온 방안을 짝 채웁니다.

나의 두볼도 눈물에 젖어듭니다. 생전이나 지금이나 별식 한점시가 생겨도 그래, 좋은 옷감이 생겨도 그래… 크지 않은 새 집을 한채 지으시고도 걸음걸음 수령님생각으로 마음쓰시는

김정일동지이십니다.

손수건을 꺼내시여 눈굽을 닦고나신 그이께서는 알릴듯말듯 가벼이 도리머리를 저으시며 말씀을 이으십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하는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시다. 자신과 관련해서는 공전이라는 이름조차 허용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니 우리모두… 살아계실 때 해드리지 못한 우리 인민의 소원을 이제라도 풀어봅시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려는듯 잠시 서계시던 그이께서는 다시 지시봉을 잡으시며 창작가, 설계가들을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설계가를 향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입구이고 … 여기는 출구겠습니까?!… 옳습니까?》

《예. 그렇습시다.》

《어떤 리유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

뜻밖의 질문인듯 설계가는 한순간 당황해하는 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간신히 《온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올곳인데… 복잡성을 피하려고… 그리고… 레닌이랑…》하고 이어

져가던 그의 대답은 자신심을 잃고 흐리마리해집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다만 다하지 못한 설계가의 말뜻을 리해하시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십니다.

그이께서는 창작가들, 설계가들을 향해 돌아서시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그들의 어깨너머 그 어디엔가에 닿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무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보기엔 동무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의 참뜻을 아직 다 깨닫지 못한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시다. 이게 웬 말씀입니까?... 다치면 터질듯한 팽팽한 긴장이 온 방안을 채웁니다.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 펼쳐든 수첩들에 그이의 귀중하신 말씀을 받아쓸 생각마저 까맣게 잊은채 망연히 서있을뿐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시봉으로 지팡이마냥 방바닥을 가벼이 짚으시며 단호하신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내 오늘 명백히 말해두지만 이 금수산기념궁전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동무들이 명심해야 할것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는 일에서는 다른 나라의 본을 딸 필요가 없으며 또 따올래야 따올데도 없다는것입니다. 이 일에서 다른 나라들의 기존 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념원에 기초하여 그리고 우리 식대로 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도안앞으로 바싹 다가서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수 있도록 한옆으로 비켜서시며 지시봉으로 짚어나가십니다.

《이 입구의 모양은 시원하면서도 정중한맛이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옮겨야겠습니다. 여기… 여기로 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하면… 주작봉마루도 마주 보일것이고… 아침이면… 아버지수령님의 립상에 붉은 햇빛이 비쳐 들수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문의 위치를 세밀하게 타산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구는(그이께서는 그곳에 곱하기 표식을 하십니다.) 없애야겠습니다. 수령님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들이 같은 계단을 리용하기때문에 복잡해질수는 있겠지만 일없습시다. 여기서부터(그이께서는 중앙계단을 가리키십니다.)…이렇게… 이만한 폭으로 넓힐 방도를 생각해보시오. 그것만 해결되면 동무들이 우려하는 복잡성도 문제될것이 없을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셨을 때 …수령님의 접견을 받던 그때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지시봉을 내려우십니다. 몇걸음 방한복판으로 나서시며 한결 같았으신 음성으로 《이제는 내 말뜻을 알만합니까?》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에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어

제날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이 궁전에서 살아계시는 수령님을 만나뵈워야 합니다.》라고 그루를 박으시었습니다.

감격의 파도, 환희의 파도, 놀라움의 파도가 사람들의 가슴가슴마다에서 출렁이는듯합니다.

이 몇분 안되는 짧은 순간에 또하나의 위대한 인간의리의 대학문을 나서는듯한 그런 심정입니다.

병사의 이야기 (1)

그날아침에 우리 병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금수산의사당(당시 이름입니다.)에 와계시는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저 여느날과 다름없이 다음교대성원들에게 작업장을 인계해주고있었습니다. 나-조행복은 부분대장과 함께 기중기를 인계해주었습니다. 부분대장은 기중기 운전공이요 나는 그의 조수인셈입니다.

기중기인제라야 별게 없습니다. 공구함을 확인시키고 기름친 상태를 알려주면 그만입니다.

우리 두사람은 사다리를 밟으며 다람쥐처럼 쭈르르 기중기에서 내렸습니다. 밤새껏 억수로 퍼붓던 비줄기는 어느덧 보슬비로 변해가며 바람질을 시작합니다.

중대모임장소로 우리는 어깨나란히 걸어갑니다.

《행복동무, 집에 누나가 있다지?!》

부분대장이 느물거리며 묻습니다.

《?》

《동무처럼 생겼나?》

《글쎄... 제보기엔 영 판판인데...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신통하다구.》

《그-래? 내 그럼 행복동무 매부나 되여볼가?》

《애-》

《왜? 싫소?》

《관두십시오. 맨날...》

입이 뽀죽해서 썩 앞서갑니다.

이건 나의 생김새를 두고 놀려대는 말입니다. 뭐 치마를 입고 나와야 하는건데 덤비다가 바뀌고 나왔dannayo, 내참.

하긴 그건 사실입니다. 나는 원래 입대전에도 한학급동무들로부터 《색시》라는 별명을 달고있었습니다. 녀자들처럼 부끄럼을 잘 타는데다가 살결은 새뽕양지... 오죽했으면 우리 학급 처녀들이 내가 쌍까풀진 두눈을 초생달처럼 휘우며 웃어댈 땐 《아우!》하며 돌아서군했겠습니까.

부분대장이 따라섭니다.

《뭐 그다지나 새뜩해서 그래, 처녀애들처럼. 그러지 말구 그 보물구경 또 좀 하자구.》

《안됩니다.》

나는 눈을 찡 흘리며 저도 모르게 두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잡습니다.

나의 군복안주머니속에는 담배갑이 있습니다. 담배 한가치가 들어있는 담배갑이랍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로 이 조행복에게 주신 담배갑입니다.

이렇게 담배갑에 손이 가닿을 때면 가슴이 활랑거립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그 모습이 금시 안겨오고 다정하신 그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아 눈앞이 흐려옵니다.

《앗, 누구얏?》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해도 글쎄...최고사령관동지를 알아뵈지 못하고... 이렇게 구멍을 찢겠습니다.

그때 나는(바로 며칠전입니다.) 작업장보초를 서고있었습니다. 보초라야 총은 메지 않고 완장만 끼고 서는 보초입니다.

《아, 보초병동무로구만. 수고하오.》

그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적에야 나는 펄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상상속의 이런 순간은 그 얼마나 황홀합니까! 하지만 나는 그때 온몸과 함께 허까지 굳어졌던 모양입니다. 아마 행복도 도수를 넘어서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모양인지 인사는 고사하고 《상등병 조행복!》라고 답변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름을 물으셔서야 대답했습니다.

《조행복, 행복이라... 이름이 참 좋구만.》

작업장으로부터 비쳐오는 희미한 불빛속에 저의 얼굴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웬일인지 웃으셨습니다.

《원, 이렇게도 곱게 생긴 얼굴에서 그렇게 담찬 호령소리가 울려나오다니, 하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부관을 (내 짐작입니다.) 돌아보시며 웃으십니다.

《미국놈들이 우리 이 행복동무의 호령소리만 들어도 기절하겠소. 하하하.》

부관도 따라웃습니다.

졸리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담배는 하루에 몇대씩 공급되느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물으십니다. 잠간새에 긴장이 풀린 나는 물으시는대로 척척 대답을 드렸습니다.

《자, 이만 헤어지자구. 또 만나지요. 그럼 수고하오.》

그이께서 저벅저벅 밤길을 걸어가십니다. 어째서인지 문득 걸음을 멈추십니다. 돌아서십니다. 가시던 걸음을 되돌려 저에게로 다가오신 그이께서는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드셨습니다. 한 순간 망설이시는듯싶던 그이께서는 저를 보시며 《근무중엔 물건을 주고받을수 없으니... 어쩐다?...》

하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그러시다가 걸 건너 잔디밭기슭의 키낮은 장미덩굴을 향해 다가갑니다. 쥐고계시던 그것을 바로 그 장미덩굴 위에 정히 놓으시더니 《보초병동무, 여기에 담배 한갑을 두다가니 근무를 교대한 다음 피우라구.》하고 정찬 말씀을 하십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가셨습니다.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가 떠나가는 차바퀴소리가 저 멀리로 자르르 가늘어져갑니다. 나는 멍청히 서있기만 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보아도 꿈을 꾸고

있는것만 같은, 이 꿈을 깨고나면 눈앞의 이 현실이 훌쩍 사라져버릴것만 같은 불안을 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화속의 보물인양 떨기나무우에서 하얗게 빛을 뽐고있는 그것을 바라보느라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쩌면 그러도 다정하실가요. 어쩌면 그러도 시원시원하실가요. 어쩌면 그러도 소박하실가요. ...

어릴적부터 나의 가슴속에는 소설가가 되려는 소중한 꿈이 간직되어있습니다. 그 꿈은 자라나는 나의 키와 더불어 나날이 커만잡니다.

말그대로 아직은 꿈입니다. 군사복무의 나날에 한두번 습작을 해보았는데 그것을 읽어본 우리 분대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이 《괜찮구만 뭐, 한데 그... 뭐랄까...》라는 정도입니다.

언젠가 우리 중대에 내려왔던 한 소설작가의 말에 의하면 소설가가 되는 길은 간단치 않답니다.

그렇겠지요. 험하다면야 왜 사람들이 소설가들을 그토록 존경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바로 험치 않은 길이기에 기어이 그 길을 걸을 결심입니다. 단편이나 중편정도가 아니라 다부작으로 된 대장편소설을 쓸 결심입니다. 그 다부작대장편소설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모시렵니다. 나의 이 결심이 어느때부터 시작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한생이 끝나는 그 시각까지 쓰고 또 쓰렵니다. 나의 이 결심은 여기 주체의 성지를 꾸러가는 이곳에 온후로, 매일이다싶이 이곳을 찾으시는 장군님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전해듣는 과정에 더더욱 역세게 굳어져 갑니다. ...

《교대-셋!》하는 구령소리가 바로 나의 코앞에서 울렸지만 나는 그 구령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인차 깨닫지 못합니다.

교대병이 내앞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걸음이 저리도 굼뚱니까!

《근무중 이상없음. 인체품...》

내 목소리는 술에 취한 사람같습니다. 얼굴은 교대병을 향하고있지만 나의 두눈, 나의 온 마음은 장미덩굴의 그 하얀 점에서 떨어질줄을 모릅니다. 《...보초소로부터 앞으로 갔!》라는 보초장의 구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몇걸음 정보로 내짚던 나는 더 참지 못하고 그 하얀 점을 향해 달려듯 다우쳐갔습니다.

《어디루 가?... 셋!... 왜 그래?》

벼락치듯하는 보초장의 성난 고향소리조차 내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불시에 낮아지는, 나의 신상에 그 어떤 이상이 생긴건지 아닌가 하여 두려움이 섞인 조심스러운 부름소리가 다시금 울립니다.

《행복동무...》

그러거나말거나 나는 벌써 그앞에 와섰습니다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이제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보물》이 훌쩍 사라질것만 같습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알아차린 보초장이 다급히 내걸로 다가옵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지켜봅니다. ...

그렇게 생긴 담배갑입니다.

그 담배 한갑을 온 중대가 피웠습니다. 온 대대가 피웠습니다. 군관이든 병사이든 상관없이 한 모금씩이었습니니다. 다만 마지막 한대가 남은 그 담배갑만은 나의 가슴속에 소중한 보관되었습니다.

너도나도 그 담배갑을 보잡니다. 어떤 병사는 세번, 네번 보고도 또 보잡니다. 군관들도 나만 보면 보잡니다. 간호원들도 졸라댁니다.

모서리가 닳아집니다. 담배속이 빠집니다. 참다 참다 정 참을수가 없어 어느 대대인지 낮도 코도 모르는 상등병이 또 보자고 했을적엔 《물-라!》하고 발작 성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등병은 처음엔 깜짝 놀랐다가... 다음엔 나의 심정이 이해된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됐어. 내 생각만 했구만. 내 이제 멋진 담배갑케스를 만들어다주지. 그랜 좀 볼수 있겠지?》하며 오히려 나를 동정해주는것이었습니다.

하긴 그 다음날부터 더는 그런 《성화》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내시는 담배가 듬뿍듬뿍 안겨졌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뜻밖의 배려속에 이름없는 한 병사-이 조행복이와 나누신 그 짧은 담화과정에 밤낮으로 맞교대를 들이대는 우리 병사들에게는 규정량의 담배만으로는 모자라겠다고 헤아리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는 사업에 동원된 군인들에게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신께서 다 맡아 풀어주시겠다고 하신 크나큰 사랑이 흐르고있을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

《2중대 모이시오!》라는 우리 중대장의 구령소리가 바람결에 간신히 들려옵니다. 어찌나 바람이 센지 눈을 뜨기조차 힘듭니다.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에서 또 누군가가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람소리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통 알아들을수는 없으나 바로 그 목소리에서 풍기는 이상한 예감이 나의 걸음을 우뚝 멈춰 세웁니다. 부분대장도 섭니다.

왜들 저렇가요?... 고향소리가 울린 바로 그곳에서 한무리의 병사들이 어디론가 우르르 달려갑니다. 《셋!... 셋!...》하는 당황한 구령소리가 날아갑니다. 그래도 병사들은 그냥 달려갑니다. 오히려 달려가는 병사들의 수는 건잡을새 없이 불어만 갑니다. 마침내 《장군님이시다!》하고 웨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립니다.

가슴이 후두두 뛵니다. 나도 달려가야 하겠지만 땅바닥에 못박히기라도 한듯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달렸습니니다. 발이 어디에 닿는지도 모르고 달립니다. 어느쪽인지도 모르고 달립니다. 눈앞에서 얼른거리는 그 누군가의 넉적한 잔등을 바라

보며 달려가다가 무엇인가 발이 걸려 사정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냅다 뛰어갑니다. 아픈게 다 뭉니까. 맞받아 붙어치는 바람이 귀바퀴에서 웅웅 울어댑니다.

부관의 이야기 (2)

형성도안을 보아주시고 떠나가시는 **김정일**동지를, 차안에 계시는 그이를 어떻게 알아보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옷등을 벗어붙인 병사, 군복을 제대로 입은 병사, 맨머리바람의 병사... 병사들이 달려오고있습니다.

차창밖을 향해 손을 흔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차를 세우오.》라고 이르십니다. 광장 한복판을 천천히 미끄러져가던 승용차가 채 멈춰서기도 전에, 만류할 사이도 없이 차문을 손수 여시며 성큼 내리십니다.

나는 너무도 급하여 반대편 차문을 열어제끼며 웅수철마냥 뛰어나갔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차에 오르셔야 하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의아하신 표정으로, 마치도 자신의 부관이 아닌 처음보는 사람을 대하시는듯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다.

《나를 만나고싶어 저렇게 달려오는데...》

그이께서는 손을 들어 가리키시며 저를 에도십니다.

나는 단호한 태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정대로 곧바로 회의장으로 가셔야 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 반정신이 나간것 같은 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시다가 락심하신듯한 표정으로 나직이 말씀하십니다.

《이러지 마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리도 아끼고 사랑해주시던 병사들인데... 나를 보고 저리도 좋아라 달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갈수 있단말이요.》

《...》

《지체하지 않겠소. 정말이요.》

이러는사이에 병사들은 벌써 지척에까지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그대로 그이의 품에 안겨들환입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나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칩니다.

《서시오!... 셋!- 서시오!...》

그러나 나의 목소리는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하고 웨치는 병사들의 부르짖음, 사나운 바람소리에 짓눌려워 내 귀에조차 잘 들리지 않습니다.

철부지 아이들처럼 리성마저 잃은채 울며불며 장군님을 부르며 달려오는 이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미 저들의 눈에는 이 부관같은 존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더구나... 병사들이라면 오금은 못쓰시면서 (용서하십시오. 달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덮어놓고 마중가시려는 장군님의 이

뜨거우신 사랑의 앞길을 내 무슨 힘으로 막을수 있단말입니까.

이런 혼잡, 이런 무질서속에 장군님을 모신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나의 좌우로, 나를 떠밀치며 그이께로만 달려갑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치도 내가 달려가는 앞길에 박혀있는 막돌만큼이나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병사들이 갑자기 주춤거립니다. 멈춰섭니다. 어찌된 일인지 미처 알아차리기도전에 장군님의 호탕하신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울립니다. 돌아섰습니다.

《몸이 좋구만. 팬찮아. 미국놈들이 이 주먹을 보면 기절하겠소! 하하하!》

장군님께서 런닝그바람의 한 병사를 품에 안고계십니다. 땀이 번질거리는, 차돌같은 근육들이 불끈불끈한 탐스러운 굵직한 팔을 잡고계십니다.

《부관동무!》

김정일동지께서 웃으며 저를 보십니다.

《동무가 아무리 힘이 장사라 해도 이렇게 내 품으로 달려오는 병사들을 막지 못해!》

사기가 난 병사들이 그이를 따라 와- 웃고있습니다. 평생소원을 풀고있는 병사들은 너무도 좋아서 《히야!》, 《야, 이거!》하며 어쩔줄을 몰라합니다.

나의 가슴은 무엇이라 형언하기 어려울만치 놀랍니다. 이 순간에는 내가 부관이 아니라 그이를 둘러싼 이 보통의 병사들중의 한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수령님을 잃은후부터 우리 병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몇십, 몇백배로 더해진것 같습니다. 장군님에 대한 우리 병사들의 그리움 역시 몇백, 몇천배로 더해진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병사들에게 산악을 허물라면 주저하겠습니까! 적진을 들부시라면 주저하겠습니까! 지구를 깨어버리라면 못할것 같습니다!

웁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있는곳이라면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결사옹위》, 《총폭탄!》, 《성새, 방패》라는 말들은 어느 선동가나 연설자가 만들어낸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신념이고 의지이고 량심입니다. 그것은 개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나의 눈앞에, 이 나라에 펼쳐진 살아움직이는 실체입니다!

그이를 둘러싼 병사들의 수는 시시각각으로 늘어만갑니다. 하지만 드넓은 광장에는 혼잡이 아니라 교요가 깃들었습니다. 기와장을 날려보낼듯싶은 사나운 바람소리도 그 교요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이께서는 연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김정일**동지께서는 연설이 아니라 오붓한 방안에서 식솔들과 이야기하시듯 가까이의 병사들을 상대로 다정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우리 함께 이

궁전을 잘 꾸려놓고 수령님을 천세만세 모셔가
자고 뜨겁게 말씀하십니다.

온 광장이 숨을 죽인채 그이의 말씀에 귀를 기
울입니다. 하지만 장군님을 볼수 있는 병사들은
얼마 안됩니다. 벌써 세번째, 네번째 돌레의 병
사들은 키통음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이의 음
성을 들을수 있는 병사들도 불과 몇이 안됩니다.
마이크도 없고... 더구나 바람소리때문에 세번째,
네번째 돌레의 병사들은 귀를 도사려야 할 형편
입니다.

하지만 온 광장은 숨을 죽이고있습니다. 온 세
상이 떠받드는 위대한분을 지척에 모시고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병사들은 더없이 만족스럽고 행복
스러운 모양입니다.

이 아침은 내 일생에서 가장 속타는 순간이기
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토록 만족해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뵈옵는 한없이 행복한 순간
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촬영기자들이 곁에 없는것이 한스럽
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소에 얼굴을 내밀지 못
하는것을 보니 아마도 병사들에게 밀려난 모양입
니다.

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이께서 이미 회의
장에 들어서셔야 할 시각입니다. 한숨 돌리실 사
이도 없이 또 회의장에서 길고긴 시간을 보내셔
야 할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죄스럽기 그지없
습니다.

마치도 초조해하는 저의 심정을 알아주기도
하시듯 김정일동지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가슴
을 흔듭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오늘은 이만 헤어
집시다.》

병사의 이야기 (2)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담뱃처럼 빈틈없이 돌
러선 이속을 뚫고들어간다는것은 어렵도 없는 일
입니다. 그렇게도 다정하고 인정받던 동무들이
이 순간엔 피가 흐르지 않는 목석들로 변한듯싶
습니다.

그렇다고 멍하니 서고 있을수도 없습니다. 어
떻게 하든 뚫고 들어가야 최고사령관동지를 뵈옵
게 아닙니까. 미칠지경입니다. 아무데고 틈바구
니에 머리를 들이킵니다. 어렵도 없습니다. 누군
가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뿌리쳤습니다.
또 당깁니다. 《왜 이래!》하고 역증을 내고보니
부분대장입니다.

《여기선 안돼!》

무작정하고 쫓아간곳은 바로 기증기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늘 오르내리던 그런 기
증기가 아닙니다. 몸체며 큰팔, 작은팔 할것없이
병사들이 까맣게 붙어있습니다. 마치도 쇠가 아
니라 사람을 쌓아 기증기모양으로 빚어놓은듯싶
습니다.

《행복이, 뭘봐?》

부분대장이 소리칩니다. 그가 올라서는곳은 그
런대로 사람들이 덜 붙은 광장반대편의 몸체입니
다.

별수 없습니다. 그쪽으로라도 올라가봐야 합니
다. 가름대들을 붙잡으며, 부분대장이 내밀어주
는 손을 잡으며 한치한치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것도 공연한 수고였습니다. 아무리 올라도 앞이
막히여 광장쪽은 한조각도 내다볼수가 없습니다.

한단을 더 올랐습니다. 마침내 손바닥만한 틈
을 찾아냈습니다.

첫순간엔 아무것도 가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까맣게 물켜선 병사들의 머리가 보일뿐입니다.

그러거나말거나 내가 붙어 있는 몸통이는 끄떡
없습니다. 간신히 트인 그 창구명같은 틈새로 열
심히 광장을 내려다봅니다.

수십수백겹으로 병사들이 짝 둘러싼 광장 한복
판에서 마침내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최고사령
관 동지께서는 분명 그 승용차근방에 계시것입니
다!

앞이 그만 막혀버립니다. 비키라고 소리를 지
릅니다. 들은척도 않습니다!

《비키십시오! 안보입니다!》

울음소리인지 웨침소리인지 나자신도 분간하기
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틈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기야 누굴보고 웨치는지 어떻게 알아들겠습니
까.

아무것도 볼수 없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제 당장 떠나실지도 모를텐데 이걸 어쩍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올라설만한 다른곳이 없
나해서입니다.

교예사들마냥 담장우에 병사들이 까맣게 올라
선 새로운 《올타리》가 막아서있습니다. 그 새로
운 《올타리》너머, 한껏 불어나 넓디넓은 합장강
은 장군님을 뵈겟다고 군복채로 헤엄쳐오는 병사
들로 까맣게 덮였습니다.

온몸에서 비지땀이 흐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
았습니다. 침묵더미, 자갈무지, 물탈혼합기... 까
맣게 내려다보이는 모래무지를 겨누고 하-나,
둘... 셋! 내려뛹니다. 하지만 모래무지가 아니라
자갈무지에 모자로 나떨어졌습니다.

아마 여느때 이랬더라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허리가 부러지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것입니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립니다. 옆
구리가 띠금거립니다. 하지만 그런것을 관심할
때가 아닙니다.

두주먹을 부르쥐고 광장 한복판을 향해 정신없
이 달려갔습니다.

부관의 이야기 (3)

꿈같은 일입니다. 장검으로 내려쳐도 끊어지지
않을것 같던 수십수백겹 병사들의 그 거대한
《가라지》가 《자, 시간이 없어 그러니 오늘은
이만 헤어집시다.》라고 하시는 조용한 말씀 한
마디에 툭 끊어져나갑니다. 승용차가 지나가야
할 정문쪽으로 자막대기를 대고 금을 굿기라도

한듯이 주옥 갈라져나갑니다. 나의 고향소리는 알아듣지 못하던 병사들이 그토록 조용하신 장군님의 음성은 어떻게 온 광장이 알아들었는지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차에 오르셨습니다.

병사들의 담벽사이로 차가 미끄러져갑니다. 헤어지기 아쉬워 어쩔 줄 몰라하는 병사들을 향해 그이께서는 창유리를 활짝 내리십니다. 손저어주십니다.

병사들의 흥분은 하늘끝에 닿았습니다. 차가 자기결을 지나는 순간들에는 만세를 부를 생각도 못합니다. 태양의 모습을 영원히 자기의 심장속에 새겨두려는듯 손을 흔들던채로 화석처럼 굳어졌다가는 뒤사람이 떠밀어서야 펄쩍 정신을 차리며 차를 쫓아옵니다.

뽕- 하는 경적소리가 울립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여전히 차창밖에 온 정신을 쏟아보고계십니다. 하지만 웃고계시지는 않습니다. 생각에 잠겨계십니다.

뽕뽕- 경적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경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다니는 이런 순간들에 어디서나 듣게 되는 경적소리입니다.

경적소리는 점점 다급해집니다.

멈춰설듯이 차가 속력을 죽입니다. 무심히 앞쪽으로 눈길을 돌리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이께서 타신 차가 지나가야 할 앞길에 병사들이 허리를 구부립니다. 돌들을 주어내고있습니다.

무뚝뚝하기 그지없는 운전사마저도 주먹으로 눈굽을 훔쳐가며 차를 몰고있습니다.

이제는 병사들이 장군님께서 타신 차를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야 할 차례가 되기전에 잔돌 한개라도 더 집어낼 생각밖에 없습니다. 별로 눈에도 뜨이지 않는 흙태기에 손바닥으로 모래를 박박 쓸어넣는 병사도 있습니다.

떨어지기 아쉬워 몸부림치는 병사들에게 눈인사, 손인사를 보내며 생각에 잠겨계시던

김정일 동지께서 문득 앞을 보십니다. 처음엔 웬 일인가싶어 굳어진 표정으로 찬찬히 보시던 그이께서 깜짝 놀라시며 등반이에서 상반신을 일으키십니다. 어쩔바를 몰라하십니다. 차창밖으로 상반신을 내미십니다.

《일어서시오!... 일어서시오!...》

그이의 음성은 떨리십니다.

《이러지 마오!... 손을 상해!...》

김정일 동지의 음성은 몹시도 갈리십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일어설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어찌할바를 몰라 손을 마구 내흔드십니다.

《자, 자, 일어서라는데... 이러면 내가 어떻게 가겠소!》

그래도 병사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돌들을 주어내는 병사들의 얼굴마다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양이 똑똑히 보입니다.

뽕!- 뽕!-... 경음기에 고장이 나기라도 한듯 쉽새없이 울립니다. 하는수없이 하나, 둘 일어서며 길을 내는 병사들사이로 차는 천천히 움직여 갑니다.

《차를 세우시오.》

엄하신 명령입니다.

차가 멎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차문을 열고 내리십니다. 나도 내렸습니다.

한손으로 차문손잡이를 잡으신채 장군님께서서는 움직일줄 모르십니다. 병사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인가를 하시려는 모양인데 입을 열지 못하십니다. 한참만에야 몹시도 노하신듯한 어조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동무들이 정 이러면... 난... 걸어가겠소.》

정말 걸어가십니다! 마치도 자신께서 걸으시는 자욱을 세여보기라도 하시는듯 땅바닥에 시선을 주신채 말없이 걸으십니다.

병사들이 벌떡벌떡 일어서며 길을 냅니다. 잘해드리느라 한것이 이렇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이께서는 자신의 앞길에 펼쳐진 광경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시는듯싶습니다.

아직 변성기도 넘기지 못한 애된 목소리가 흐느낌소리마냥 토막토막 끊기우며 가느다랗게 들려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차를... 타고가십시오. 안그러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선창이 되어 《타고가십시오.》, 《타고가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는 울음섞인 목소리들이 하늘가로 애절하게 울려옵니다.

문득 그이께서 병사들을 바라보십니다. 찬찬히 바라보십니다. 마치도 헤아릴수 없는 그 하많은 병사들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두시려는듯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또 무슨 말씀인가를 하고싶어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역시 끝내 입을 열지 못하십니다. 죄를 지은듯한 그 눈빛들... 차라리 엄하신 꾸지람이라도 하시기를 바라는듯한 그 얼굴들을 차마 마주하기가 어려우신듯 그이께서는 눈길을 드십니다. 아득한그곳- 층층 높이 솟은 고층건물들을 지나 하늘과 산발들이 맞붙은 그곳에 하염없는 시선을 주시며 걸어가십니다. 병사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 사랑의 시선이 가닿으신 그 하늘가에 닿으신듯싶습니다.

실사 얼음덩이로 빚어진 심장이라 할지라도 눈물없이는 마주할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 광경을... 눈물에 가리워 얼른거리는 이 모습을 나는 그 언제인가는 태어나고야 말 나의 화폭속에 담아봅니다. 여기에 창작가로서의 허구나 환상은 필요없습니다. 사실그대로의 세부들을 영원히 심장속에 새겨두는것이 중요합니다.

김정일 동지의 옷차림은 특별히 기억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철이면 늘 입으시는, 온 나라가 친숙해진 그 수수한 진희색난방입니다.

그러나 하늘가에 눈길을 주신채 걷고계시는 그 모습만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나신 지금의 모습에는 지난날의 모습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물론 수척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생각에 잠겨계실 때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저미는 크나큰 슬픔도 여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지없이 수척해지신 그 모습속에 더더욱 억세어진 산악같은 의지가 비껴여있습니다. 초목도 눈물을 머금을 그 슬픔속에도 활화산마냥 더더욱 용솟음치는 열정, 용암마냥 철철 흘러넘치는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 비껴여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수령님을 잃고나신 지금의 그이의 참모습입니다.

간격을 유지하느라 눈을 부릅뜨고서도 연방 눈물을 흘리며 차를 몰아오는 운전사의 모습은 근경으로 잘 기억해두어야 할것입니다. 장군님께서 걸어오시는줄도 모르고 돌이 가득 담긴 모자를 가슴팍에 부둥켜안은채 돌을 쪼는데만 여념이 없는 처녀애마냥 곱게 생긴 상등병의 모습은 (아! 생각납니다! 담배!) 그이를 둘러싼 병사들모두를 대신 할수 있도록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할 세부 인물입니다.

저-기 촬영기를 두손높이 받쳐들고 헤엄치듯 하는 촬영가들의 모습은 중경으로 잡을만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 높은 담장우에 올라서가지고도 한치라도 키를 더 돋궜보려고 발뒤꿈치를 쳐들다가 허우적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원경으로 처리하기엔 아쉽습니다. 하지만 모래무지며 자갈더미며 기증기며...키를 돋궜수 있는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까맣게 올라붙은채 손을 흔드는 저 모습들은 아무래도 원경처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

나의 이러한 관찰은 촬영기로 한바퀴 쭉-욱 훑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니다. 그이의 옷자락이 펄럭입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이 세상 모진 광풍을 한몸으로 다 막아나서는 거인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꼭- 다물리신 입이며 인간의 눈으로는 가닿을수 없는 아득히 멀고먼 신비의 세계를 내다보시는듯한 저 눈빛!...

종종 느끼군하는 신령스러운 느낌이 지금 이 순간에 또 나의 온 심신을 휩쌌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끝없는 지평선과 온 세상 천지가 그이의 자애로운 안광에 비낀듯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은 우리의 하늘이십니다.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인간세상의 하늘이십니다.

아, 저 표정!... 저 눈빛!... 눈물어리신 저 눈빛은 지금 아득히 가닿은 하늘가에서 그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고계시는듯싶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사무치게 그리우신 그 어떤분과 이야기를 하시는게 틀림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루일과의 첫시간마다 아버지수령님앞에 조용히 서서여 생존해계셨을 때의 그 나날들처럼 심중의 말씀을 드리실 때의 그 모습

입니다! 오늘 첫새벽에 수령님앞에 서계시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방금전에, 내부형성도안의 입구와 출구를 두고 하시던 장군님의 단호하신 그 음성이 또다시 귀전에 울려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수령님을 만나뵈워야 한다니던 그 말쑥이 아득한 메아리마냥 하늘가로 울려가는듯싶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과 어떤 말씀을 하실가요?... 어쨌든 나에게는 위대하신 두분께서 지금 잠들줄 모르는 영원한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병사들에 대한,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실것이라고 믿고싶습니다.

지금 나는 온 세상을 향하여 목청껏 웨치고싶은 심정입니다.

우리의 장군님께 온 세상을 맡기시라. 그러면 그대들앞에는 대대손손 끝없는 행복만이 펼쳐지리라!

병사의 이야기 (3)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나가실 그 길 한복판으로 무슨 정신에 뛰어들었던지 먼 후날에도 영영 생각날것 같지 않습니다. 나의 량심이, 나의 심장이 그렇게 하라고 떠민 모양입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영원히 계실곳이기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날마다 찾아오시는곳이기에 언제나 깨끗이 거두던 작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왜 이리도 험잡니까. 웬 돌들이 이리도 많습니까. 그이께서 타신 차를 어찌 이런 길로야 바래워드릴수 있단말입니까. 그래서..., 제일 커보이는 자갈하나를 얼른 치웠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도 엄청난 일로 번져질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걸어오십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이께서 지금 내앞을 지나가십니다.

나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릅니다. 바람소리도 환호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온 천지에는 오직 쉼- 쉼- 하는 내 심장의 박동소리로만 짹 들어찬듯싶습니다.

위대하신 그분의 머리칼 한오리, 눈비를 맞으시고 산바람, 바다바람에 거칠어지신 살결마저도 푹푹히 보입니다! 어글어글하신 눈동자에 그득히 고여있는 눈물도 보입니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서 고이는 눈물일겁니다. 그리도 대견스러우신 우리 병사들을 수령님앞에 내세워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고이는 눈물일겁니다.

달려가 안기고싶습니다. 그러면 그이께서는 《오냐, 우리 행복이로구나!》하시며 저를 껴안아 주실것입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안기고싶은 마음이 어찌 나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바쁘신 앞길을 또 지체시킬수야 없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있는것만 같습니다.

누군가 내 옆구리를 건드립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 저만치 앞에서 성
 큼
 성큼 걸어가십니다. 그이의 뒤를 승용차가 조용
 히 따라섭니다.
 병사들이 허둥지둥 차를 따라잡니다. 앞서졌다
 가도 다시 일어나 따라잡니다.
 나도 따라잡니다. 나의 두손은 저도 모르게 군
 복앞센을 더듬습니다. 소중히 간직된 그것을 만
 져봅니다.
 나의 앞에는 어느덧 수백수천의 병사들이 앞질
 렸습니다. 그 어떤 알수 없는 충동으로 나는
 무춤 멈춰섰습니다. 나의 등뒤에서 량옆에서 병
 사들이 마구 부딪칩니다. 때를 놓친 촬영가들이
 얼굴이 거뭇게 죽어가지고 허둥지둥 달려잡니다.
 시내물 한복판에 꼭 박힌 말뚝마냥 나는 사람들
 의 흐름 한복판에 그냥 서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와와 밀려옵니다. 하늘이 들리옵
 니다. 언뜻 검은 구름사이로 굵디고운 파아란 조
 각이 나타나더니 점점 자리를 넓혀갑니다. 마치

도 거대한 회전무대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것 같습
 니다. 영원할 우주의 년륜과 더불어 오로지 수령
 님만을 받들어모시려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의
 지가 하늘에 사무쳐서... 우리 병사들에 대한, 우
 리 인민들에 대한 끝이 없는 그 열도에 떠밀리워
 서 하늘도 저렇듯 높이높이 들리우는것만 같습니
 다!
 어느덧 병사들의 물결이 성글어져갑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것만 같은 느낌에 뒤를 돌
 아보았습니다.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아!...수령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언제나 내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곁
 어보십니다. 위대하신 최고사령관동지를 하늘치
 럼 믿고 받드는 우리 병사들이 너무도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저리도 환히 웃고계십니다! 온 천하
 를 한몸에 거느리시고 역세계 걸어가시는 최고사
 령관동지가 너무도 대견하시여 저리도 만시름을
 잊으신채 환히 웃고계십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이시여!

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

당신의 전사들은 총폭탄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끄떡없어라
 당신의 주체전법
 제국주의자들 녹여냈어라
 당신의 하느님은 인민
 당신의 행복도 인민
 위대하신 대원수님
 우리의 친근하신 **김일성** 동지

당신은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신분
 온 나라에 행복의 꽃 피우신분
 당신은 제국주의 침략을 짓부시고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드시였어라
 우리의 친근하신 **김일성** 동지

조선의 방방곡곡에 어려있는
 당신의 발자취
 조선을 위대한 승리에로 인도하시였어라
 당신은 자애로우신분
 세인은 한결같이 말한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다!
 위대하신 대원수님
 우리의 친근하신 **김일성** 동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
 당신은 조선의 심장, 조선의 태양이시여라
 당신과 꼭 같으신 위대한 장군
 비범하신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나니
김일성, 김정일 빛나는 이름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름

김일성 그이는 **김정일**
김정일 그이는 **김일성**!
 나는 행복하여라
 위대하신 대원수님
 우리의 친근하신 **김일성** 동지
 영원히 영원히 우리앞에 서계시여

(필자는 로씨야공민임)

태양의 노래

박호범

7월이여라
산에 들에 피는 꽃도
망울마다 그리움을 터치는
조선의 7월

나는 오늘도
글자마다 눈물에 젖는
시 한편
써 놓고 그 제목을
태양의 노래라 이름하였나니

그리워라
아버이
거리와 마을은 온통
그리움에 젖는 바다
걱정에 끓는 바다

언뜻 머리를 드니
아버이 우리 수령님
우리의 어린이들이 목에 둘러드린
붉은 넥타이를 날리시며
환하게 환하게 웃고계시여라

1

이해가 시작되던 밤 0시
수도의 거리거리는 다 잠들고
하늘의 별들도 꿈속에 묻힌 한밤
오직 한분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아버이수령님 곁에 계시었어라

새해의 새날을
수령님 곁에서 시작하시며
새해의 첫 인사를
수령님께 올리시며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아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시었어라

멀리 흘러간 그 시절
백두산의 흰눈우에
생의 첫자욱을 새기신 그날로부터
반세기를 넘고넘으시며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해가 뜰 때면 노을이 먼저 피어나듯이

수령님 깨시기전에 먼저 깨어나시고
해가 질 때엔 노을이 뒤따르듯이
수령님 주무신 다음에야 잠에 드시며
수령님께 자신을 다 바쳐오시는
우리 장군님

수령님의 만수무강이
제일가는 소원이라시며
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실때가
제일로 기쁘다시며
수령님은 인류의 태양이시고
자신은 태양의 전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장군님
혁명의 파란만장에
인간 55성상의 나날을 다 바쳐
인간지성의 최절정우에
우리 수령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받아들여주시었나니

피눈물의 그해
그 7월의 나날
인민들이 쓰러져 울고있을 때
우리 장군님의 집무탁에는
아버이수령님의
수많은 사진들이 놓여있었더라

그 한장한장의 사진들속에서는
백두산의 우등불이 타오르는 소리
그 뉘를 찾는듯 부르는듯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며
어머님 부르신 사향가의 노래가 들려와
지그시 눈을 감기도 하시고

그 한장한장의 사진들에서는
조국을 안고 돌아오시며
조국땅을
붉은기의 물결로 뒤덮어가시는
수령님의 발자욱소리가 들려와
깊은 사색에서 깨어나기도 하시고

번지시던 그 한장한장속에서
풍년벌의 농민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총을 멘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렇게도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의 사진을
따로 골라내시며

그렇게도 오래오래 들여다보시더니

수령님은 웃으시는데
장군님은 우시면서
그 사진들을 두손에 받쳐드시는
장군님의 심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었고
그 누군가 그 뜻을 다 알수 있었으랴

수령님을 마지막으로 바래드리려
거리로 달려나온 시민들이
목놓아 울던 7월의 그날
그날은 정말로
해는 찢어도 하늘은 캄캄
눈앞이 보이지 않는데

아, 우리 수령님
생존해계실 때처럼
환히 웃으시며
태양같이 웃으시며
거리거리를 누벼가실 때
하늘의 태양도 끝내야 눈물을 흘렸던가

눈물이 눈물을 씻어내리던 그날
우리 슬퍼서만 울지 않았다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면서

우리는 울었더라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선언하신
우리 장군님의 그 뜻이 너무도 높고 깊어
고마워서 우리 울었고
온 세상도 다 울었더라

2

이해의 새날이 시작되던 밤 0시
우리 장군님
금수산기념궁전을 나서실 때
궁전의 추녀아래에서
우리 수령님 환히 웃으시며
우리 장군님을 바래우고계시었어라

지난해도 수만리 전진길을 헤쳐왔고
이해에도 준엄한 행군길을 헤쳐가실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바래우며
우리 수령님
환히 환히 웃고계시었어라

아버이수령님의 그 웃음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면서
행복이란 행복은 다 안아오신
아버이의 자애
그 후더운 인정
그 끝없는 사랑이더라

아버이수령님 웃으실 때엔
하늘의 해님도 따라 웃고
한겨울에도 꽃이 피더라
나는 새도 노래를 부르고
생은 즐거워
사람들은 노상 얼굴에 웃음을 담더라

우리 수령님 가시는곳
웃으시는곳에는
새 거리가 일떠서고
기념비가 솟아오르고
아득히 멀리 바다를 밀어낸 땅에
황금나락이 설레이더라

그 거리거리를 걸으시며
그 별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우리 수령님은 말씀하시더라
저 하나하나에는
김정일장군의 창조가 깃들어있고
천리혜안이 비껴있다고

말씀하시더라
외국의 대통령들이
나를 만나보고는
모두들 태양이라고 하는데
진짜 태양은
김정일장군이라고

자신에게는 3대복이 있는데
인민을 잘 만난 복
동지를 잘 만난 복
후계자를 잘 만난 복이라고

김정일장군이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기에
자신은 그것이 기뻐 마음이 편안해서
늘 기뻐 웃는다고

김정일장군은
사상과 이론에서 철의 논리를 가졌고
정치에서 인간사랑의 철학을 가졌고
군사에서 백전백승의 장군이기에
자신은 조선의 앞날을 걱정 안한다고

아, 우리 수령님의 태양의 미소는
민족사 반만년을 안아일으키고

사회주의성새를 안아세운
위대한 인간
위대한 정치원로
위대한 백전로장의 웃음이었고

인류사 반만년우에
임금이 하늘이고 백성이 땅이던
그 하늘을 끌어내리고
그 땅을 하늘에 받들어올린
주체의 대성인
인간자애의 웃음이여라

우리 수령님의 태양의 미소는
밝아오는 새 세기를 향하여
붉은기 날리는 조선을 거느리시고
승리의 한길을 헤쳐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바라보시는
위대한 위인의 웃음이나니

아느냐 사람들이여
우리 수령님 한평생 쌓으신 위업을
저 대동강반의 주체사상탑에 비긴다면
장군님을 력사의 한복판에 세워주신
그 불멸의 업적은
그 탑우에 떠오르는 봉화와 같아라

태양은 영원
해빛은 불멸
우리 수령님의 웃음은
세상에 오직 한분
태양의 미소여라
태양의 웃음이여라

하늘을 우러러도
수령님 주신 하늘
땅을 디디어도

수령님 주신 땅
그 하늘에 넘치는것은
아버이에 대한 그리움
그 땅에 적신
맹세의 피눈물은 마를줄을 모르나니

우리는 영원하리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인류의 태양
아버이수령님과 함께 영원하리라

수령님의 유훈을 안고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가는
우리와 함께
오늘도 수령님은 가고계시여라

하늘과 이마를 마주한
개선문과 함께
우리 수령님 판문점 화강석에 남기신
그 친필과 함께
우리 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

어제와 다름없이
세기를 넘어 인류의 마음이 들어설
만경대의 사립문과 함께
만수대와 함께
금수산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 살리라

아, 우리 수령님을
태양으로 받들어올리시였고
우리 조선에
수령님의 태양의 미소를 엿어주신
아, 태양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주체의 이 조선은 길이 빛나리라!

위대한 하루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여 온 천지에 피눈물이 휘뿌려졌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세해가 흘렀다.

아버이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하는 우리 인민의 충효의 맹세로 날이 밝고 해가 저물어 찾아온 7월.

수도의 거리에는 인민의 마음인양 울긋불긋 온갖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났고 푸른 잎새사이마다 해빛에 반짝거리며 서있는 은행나무들과 분홍꽃아카시아들이 자기의 모습을 더더욱 푸르게 단장하고 독특한 향취를 풍기고있다.

백두의 수림처럼 사시절 푸르른 만수대는 7월에 들어서서 날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다.

손과 손에 소담하고 생신한 꽃송이들을 정중히 안고 만수대를 찾는 사람들속에 끼워 우리도 간다.

이들속에는 매달 8일이 오면 어김없이 가정에서 정성들여 가꾼 꽃바구니를 가지고 찾아오는 가족들, 매일아침 이곳에 올라 정성사업을 하고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것을 생활화해온 사람들, 백발로인으로부터 철부지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생을 둔 수천수만의 군중들이 모여왔다.

이런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만수대는 온통 꽃바다로 펼쳐졌다.

한차례한차례 아버지수령님과 심장의 말 나눌 영광의 그 시각을 기다리는 우리의 귀전에 은은한 노래선율이 들려온다.

한평생 인민 위해 바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꿈결에도 안고사는 마음
오늘도 그 품을 찾네

방송에서 올려오는 노래선율은 한평생 인민 위해 사랑의 길을 걷고걸으신 아버지수령님께 대한 칭송과 흠모로 온 폐부를 적시게 하였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인민행렬차》에 오르신 그때부터 팔순이 넘으시도록 순간의 휴식도 없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력에 넘쳐 사업하시던 위대한 수령님.

아버이수령님의 1994년 생애의 마지막시기를 돌이켜보는 우리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든다.

온 나라가 행복과 기쁨으로 흥성거리던 1994년 80고령의 불편하신 몸이심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새해신년사를 안겨주시어 크나

큰 고무를 주시고 제정당, 단체 책임일군들을 친히 만나 그들의 사업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빛내어나갈데 대한 중요한 교시를 주시였다.

무한한 혁명적 열정과 사랑으로 거창한 혁명위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1994년 새해에 들어서시어 경제부문 일군협의회도 수십차례 조직하시고 농장의 험한 포전길로 현지지도의 자욱을 옮기시는 등 보다 더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으니 그 나날들에 바쳐진 우리 수령님의 로고와 송고한 뜻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아버이수령님의 빛나는 생애가 하나의 세부로 집약되어 불멸의 력사를 전해주는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

감회도 새로운 1994년 7월 6일, 이날은 장마철 인데도 류달리 맑게 개였다.

이슬을 머금은 나무잎새며 소담한 꽃송이들을 바라보시며 향기론 송진내 풍기는 수림속을 산책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안광에는 끝없는 사색의 세계가 비껴있었다. 현정세의 요구로 부터 제기되는 당의 혁명적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협의회에서 토의될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따져보시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나가시였다.

아침일찍 사업에 착수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날아침 9시 30분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은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매우 정당한 경제건설 방침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과 우리 나라에 대한 압살, 제재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자면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날협의회에 이어 지금 있는 경제토대를 가지고도 우리 인민을 더 잘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인 전력문제를 빨리 풀자면 중유발전소를 건설하며 그 설비를 자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중유발전소건설! 이것은 지금까지 크게 논의되지 않았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었다.

언제나 인민생활문제로 사색과 로고를 바치는 인민의 친근한 수령님이시기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였고, 우리 나라 전력공업의 현실태와 전력공업발전의 세계적추세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는 열쇠와 실천적방도문제들을 하나하나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회의에 참가한 일군들은 오래동안 무거운 짐처럼 누르고있던 전력문제해결의 확실성있는 방도와 방법들을 찾게 되어 기쁨과 신심에 넘쳐있었다.

수령님께서 화학공업에 힘을 넣어 화학비료생산과 비닐론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협의회가 시작되어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경제문제를 놓고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세멘트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금속공업을 발전시켜 강재생산을 높일데 대한 문제, 짐배를 많이 무어 큰 짐배가 100척이 되게 하여 대외무역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 당의 혁명적경제전략 관철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명철한 해명을 주시었다.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치시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천재적예지로 과학적으로 밝혀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공업부문의 한 책임일군을 찾으시여 **《올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어떻게 공급했습니까?》**라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물으시었다.

그 일군은 6월말까지 전국의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다 새옷을 공급했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해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만 새옷을 해입히고 그밖의 학생들에게는 해입히지 못할줄 알았는데 6월말까지 전국의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다 새옷을 입혔으면 아주 잘하였다고 더없이 기뻐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새옷을 해주느라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일군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순간 일군들의 눈앞에는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마안산아동단원들에게 새옷을 해입히시고 해방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회의의정으로 연필문제를 토의하시던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뜨겁게 어려왔다. 그리고 온 나라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수백만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새옷을 해입히는것을 국가적시책으로 전통화해주시던 수령님의 그 높으신 뜻이 헤아려졌고 선물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시고 내 평생에 기쁜 날이 며칠 되지 않는데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라

고, 정말 마음이 즐겁다시며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던 그날의 수령님 모습이 떠올랐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날 회의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제아무리 제재소동을 벌려도 우리는 하나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지난날에도 우리가 제재를 받았지 받지 않고 산것이 아니고 하시며 우리가 잘 살수 있는 길은 오직 자력갱생하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제부문 책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도 간곡하게 교시하시었다.

인민생활과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지못하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사업작풍과 태도에 달려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말로만 외우면서 형식주의, 요령주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무책임적으로 일하였으며 일시적인 난관을 맞바어나가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일부 일군들의 이런 일본새를 놓고 심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이민위천》**의 사상을 다시금 심어주시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일군들은 인민을 선생으로 여기고 인민대중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

일군들은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할뿐아니라 인민대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것은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이며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 일군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대를 이어 실천해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실 때마다 일군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혁명가들의 일본새와 방법론, 좌우명을 일일이 깨우쳐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수령님의 뜻깊은 말씀을 새겨들던 일군들은 자기들이 수령님의 뜻대로 일하지 못해 오늘 또다시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니 전사된 도리를 못하는 자책감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인민의 총복답게 자기의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일념으로 가슴불태웠다.

새로운 결의로 충만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 오늘도 우리 가슴속에 천만금의 무게로 안겨온다.

《나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이었으며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한생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

인민들과 함께 투쟁해온 한생!

이것은 정녕 인민의 아들로 태어나시여 인민들 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신 인민의 자애로운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자신의 한생에 대한 빛나는 총화였다.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인민》이라는 성스런 이름과 더불어 위대하고 불멸하다.

《인민행렬차》에서 한순간도 내리지 않으시고 인민을 위해 뛰어다니신 피바다, 불바다, 가시덤불길은 그 얼마인가.

인민이 사는곳이면 아무리 멀고 험한 진펄길이 앞을 막아도 이 땅 끝까지 찾아가시던 우리 수령님. 그 사랑의 길들에 수놓아진 가슴뜨거운 사연 얼마이든가. 자신께서 지평이를 짊고다니시면 인민들이 가슴아파한다시며 지평이를 차에 두시고 인민을 찾아 험한 논두렁길을 걸으신 수령님의 그 마음 우리 어찌 다 알았으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의 존엄 지켜 대외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도 열어주시였으니, 진정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고 그이의 사색과 실천, 령도는 모두 인민을 위한것이였으니, 우리 수령님의 하루하루는 인민의 행복을 풍만하게 가꾸시는 창조 위대한 나날들이었다.

하기에 우주의 무게에도 견줄수 없는 수령님의 교시는 회의에 참가한 일군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영원한 불씨가 되어 퍼져울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끝으로 손을 힘차게 저하시며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웅심깊은 사색과 략관적인 선견지명으로 휘황한 래일을 내다보시며 경제부문 일군들을 경탄케 하는 담대하고 용의주도하고 로숙한 령도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발전전망과 실현방도까지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 력사의 그날 장시간에 걸쳐 협의회를 지도하시고도 밤늦게까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사업하시였다.

흐르는 물과도 같이 언뜻언뜻 스쳐가는 하루는 인간의 한생에 있어서 매우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하루는 혁명가의 생을 총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더우기 인생의 마루에 오르면 정력도 소모되므로 생의 마지막하루를 조국과 인민위해 불철주야로 값있게 보낸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인민을 위한 일을 하는것이 곧 자신의 휴식으로 된다는것 하루하루를 초긴장상태에서 사업해 오신 우리 수령님, 진정 그이께서 력사적인 7월 6일 하루에 바치신 로고는 조국의 무궁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였으니,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수령님의 사색과 로고로 응집된 7월 6일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사랑의 축도이며 위대한 수령, 세계정치원로로서의 위대한 령도의 한순간, 위대한 정치의 축도가 아닌가. 바로 이 위대한 하루로 하여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은 《이민위천》사상으로 근 70성상 단 한번의 로선상작으나 편향없이 어렵고 복잡한 《인민행렬차》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영광의 한생, 전무후무한 위인의 위대한 한생으로 더욱 빛나는것이다.

력사는 아직 알지 못한다.

력대 정치가들의 전기를 펼쳐보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해 것처럼 불같이 사신 그런 령도자를, 하나의 미결건 없이 생을 마친 그런 위인을 알지 못한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세기와 더불어 길이 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시고도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려 80고령에도 한여름의 피약별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련일 긴장하게 국사를 돌보시다가 집무실에서 순직하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마음 안고 이렇듯 만수대를 찾고 또 찾는것이다.

한평생 조국 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과 함께 계시네

음악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나 앞을 우러르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을 높이 드시여 우주의 한끝을 가리키고계신다. 못잇을 력사의 그날처럼 정력에 넘치신 모습으로 인민들속에 계시며 우리들에게 혁명의 밝은 전망과 략관을 안겨주고계신다.

저 멀리 우주의 한끝을 가리키시는 수령님의 그모습, 그 손길에서 인민은 7월 6일에 하신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들으며 그이의 현명한 가르치심에 귀기울이며 그이의 손길따라 나가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그려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7월 5일과 6일 교시는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유훈교시 관철을 위한 투쟁을 민족의 아버지를 잃고 피눈물의 바다가 된 조선에서 그 어떤 정치적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으로 세계의 이목이 우리 나라에

쏟리고 있을 때 조선에선 어떤 대답이 울려나왔는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구호를 새겨주시고 수령님을 태양의 모습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할 철의 신념과 의지였다.

태양의 위업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쉽없이 즐기치게 전지시켜오신 《인민행렬차》는 수령님 가리키신 승리의 높은 명마루를 향해 자기의 궤도를 따라 더욱더 힘차게 달릴것이다.

장군님과 인민이 하나로 된 사회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가 꽃피날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휘황찬란하며 우리 인민은 얼마나 높은 행복의 상상봉에 오를것인가.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타신 《인민행렬차》가 쉽없이 달리는 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철저히 관철 될것이며 세기의 기념비로 조국과 인민에게 빛나는 재부로 안겨질것이다.

본사기자 신경애

영웅의 고지에서

박두천

나는 썼노라
우리 아버지세대들이 피흘린 싸움터
영웅의 고지우에
둘러보면 오늘도 승리의 함성소리 들려오는듯
췌췌 설레이는 나무잎소리 나무잎소리...

어디메나 우리 아버지세대들이 자주 들려주던
불먼지에 휩싸였던 그 전호는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어
원췌의 무리에 뛰어들어 그자리는

어디메나
총창으로 깎아만든 화선악기로
승리의 연주회를 연 그자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맹세의 글발을 적어놓은 그 바위는

많은 세월 흘렀구나
바위도 모래알처럼
흩날리던 그자리에
지금은 푸른숲 설레이는 고지여

우리 장군님 이 고지에 오르시여
그날의 영웅들의 위훈도 치하해주시고
목숨바쳐 수호한 강토가 더없이 소중하시여
사색의 심연을 헤치시며 걸어보신 전호길

수령님 이끄시여
불굴의 기상을 펼쳐
승리의 7.27을 맞이할수 있었다고
철의 신념도 안겨주시며
전사들과 함께 허물없이 야전식사도 하신곳은 또
어디

아 전화의 나날에 돌격로를 열어간
전사들의 위훈
그 모든것이 소중하시여
한줌의 흙도 어루쓸어보시며
멸적의 화살표를 그으셨거니
내 가슴에 안겨오는 맹세의 글발이여

나는 이자리를 비울수 없으랴
아버지세대들의 피가 스며있고
우리 장군님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땅이여서

나는 이 땅에서 승리의 함성 또다시 터치리라
아버지세대들이 싸워이긴것처럼
최고사령관기를 휘날리며 통일의 7.27을 맞이하리라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우리의 7.27이 영원하듯이
우리 앞길엔 언제나 승리만이 열려져있으랴
한번 오르면 승리자의 높은 궁지를
가슴뿌듯이 안겨주는 고지여
아 영웅의 고지 조선의 고지여

적기가

박영

조선혁명은 붉은기를 높이 들고 시작한 혁명이며 전진하여온 혁명이다.

따라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붉은기의 노래가 있다.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항일의 처절한 불길 속에서 태어난 노래, 혁명이 준엄할수록 힘차게 부르며 심신을 다지고 승리를 안아온 신념의 노래 《적기가》.

혁명이요 《적기가》는 태어난지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계속혁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애창되고있다.

그것은 이 노래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피어린 추억과 함께 시련이 아무리 엄혹하다 하여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놓고 주저앉을수도 물러설수도 없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의 철의 신념과 깨끗한 양심이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적기가》를 부르며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3년상을 맞은 오늘 이 노래를 더 뜨겁게 새겨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바로 그것은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서 그 류레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하고도 준엄한 조선혁명을 개척하시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에 대한 철의 신념과 의지, 혁명앞에 자신을 다 바치신 그이의 혁명적량심과 열렬한 헌신의 력사가 어러오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요에 있는바와 같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하는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결의입니다.》

《적기가》.

간고하고도 머나먼 혁명의 길에서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조선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철의 신념과 결의가 어러있는 혁명의 노래 《적기가》.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쓴다
시체가 식어 굳기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엄혹했던 1935년, 다홍왜에서 높이 올려퍼졌던 혁명이요 《적기가》,

이 노래를 부르노라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투쟁의 최전두에 서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영상이 어러오고 손에 무장을 잡고 수령님을 우리러 뭉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신념의 군상, 결사의 군상이 안겨온다.

조국땅을 떠나 만주광야에서 해방의 피어린 싸움을 침략자들과 벌리던 그때, 좌경의 회오리바람까지 겹쳐들어 그야말로 조선혁명이 사느냐, 죽느냐하는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그 나날에 울려 퍼진 노래.

정녕 《적기가》는 초인간적인 의지와 불굴의 신념으로 조선혁명의 위기를 막아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드신 주체의 붉은기를 지켜 부른 참다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의 심장의 메아리였다.

혁명의 노래 《적기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가슴에 부둥켜안으시고 우리 혁명을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전기간 이 노래를 그리도 사랑하시고 뜨겁게 부르시였다.

혁명은 고난과 시련을 동반한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이 낡고 반동적인것을 때려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실현 하는 변혁과 창조의 투쟁과정이기때문이다.

허나 조선혁명처럼 간고하고도 준엄한 혈로를 헤쳐온 혁명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 인민은 《적기가》처럼 그렇듯 백절불굴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가 투철하고 비장한 노래를 알지 못한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통해 알았다.

투사들이 헤쳐온 그 길이 그렇듯 험난할진대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다 안으시고 그 진두에 서신 우리 수령님 겪으신 고행을 어떻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다는 말로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1941년 4월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되자 쏘일 전쟁이 일어나면 일제의 패망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과속에서는 동요의 파문이 일어났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배신의 더러운 진창길로 들어섰다.

이러한 때인 1941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7월에는 왕청현 자피거우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

《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 누구의 힘으로가 아닌 조선인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할 목적밑에 출발한 조선혁명일진대, 일부 사람들이 수류탄공장을 지어달라고 사회주의나라에 요청할때도 《연길폭탄》을 만들고 원쑤의 무장을 빼앗아 적들을 쳐부시며 싸워온 조선혁명일진대 동요할것이 무엇이고 놀랄것이 무엇이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구호와 연설은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적기가》를 부르며 싸워가는 조선혁명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파시한 력사적인 장거였다.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혁명이 전진할수록 우리의 붉은기 색조는 더욱 더 붉어지고 혁명의 노래 비장성 또한 더해진다.

전설속의 천리마가 이 땅에 창조와 건설의 네굽을 안고 내려쳐오른 력사의 땅 강선.

우리 인민은 강선으로 가는 길을 걸을 때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던 《적기가》의 노래소리가 오늘도 울려오는듯싶어 마음은 마냥 뜨거워한다.

미제를 때려부시고 전승의 축포가 높이 올랐지만 성한 벽돌 한장 없는 이 땅에 반혁명의 바람은 사면팔방으로 미친듯이 몰아쳐왔다.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북침나발을 불어대며 전쟁소동을 일으켰으며 종파분자들은 때를 만난듯이 당을 정면으로 도전해나섰고 수정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은 로골적으로 압력을 가해나섰다.

실로 조선혁명은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운명의 갈림길.

혁명앞에 놓인 그 길에서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로동계급을 찾아 강선으로 떠나시였다.

조국이 해방되었던 그해 가을날, 그렇게도 그리시던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도 그냥 지나시던 갈림길.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갈림길을 또다시 지나시여 강선의 로동계급과 무릎을 마주하시니 나라의 형편을 터놓고 이야기하시면서 강재 1만톤만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가자 하시며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자력갱생의 불씨를 지퍼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녁늦게야 귀로에 오르시였다.

평양으로, 뻗은 길우에, 달리는 승용차우에 무겁게 내려쬐이는 함박눈, 함박눈...

차창밖을 이윽도록 내다보시는 우리 수령님 눈내리던 백두광야, 《적기가》를 부르시며 싸우시던 항일전의 그 나날을 추억하시는가.

하염없이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옆에 앉은 일군에게 《적기가》를 알지? 나와 함께 부르지요 하시며 나직하나 힘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에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높이 들어라 붉은기발을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적기가》.

항일혈전의 백두광야에서 부르신 노래.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압록강기슭에서 부르신 노래.

엄혹했던 강선의 그 밤길에서 부르신 노래.

《적기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이런 나날에 부르신 노래였다.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철의 신념과 의지로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이어 1980년대말-1990년대초에 일어난 세계적인 대정치풍파도 이겨내시고 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시였다.

이 령도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을 붉은기의 신념과 의지로 살며 투쟁하는 불굴의 인민, 영웅적인민으로 키우시였다.

사람들이여.

오늘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으로, 세계혁명의 보루로 그 위용 떨치고있는 우리 조국의 창조물들을 우러르라. 그러면 세기적기적을 안고있는 그 창조물들에서 울려나오는 우리 수령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인민이 따라부른 《적기가》의 노래소리를 듣게 될것이다.

혁명의 노래 《적기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함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령도하여오신 전 로정에서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고수하시니 빛내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는 그 첫시작부터 세계혁명위업을 이끌어오신 력사로 빛난다.

항일전의 그 나날, 조종인민의 공동의 투쟁으로 일제를 때려부실 원대한 뜻을 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국군부대를 찾아가실 때였다.

라자구예로 백일행군을 다그쳐가시는 그이의 앞길을 한 너인이 두팔을 벌리고 막아나섰다.

그가 바로 얼마전에 반일공동전선을 실현하는 길에서 일제의 간악한 모략에 넘어간 동산호에게 학살된 리광동지의 부인 공숙자였다.

《장군님, 그리로 가시면 안됩니다. 거긴 장군님이 가실데가 아닙니다. 애아버지도 그러다가... 장군님, 부탁입니다.》

눈물에 젖은 녀인의 절절한 호소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운명을 안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신상을 넘려하는 인민의 간절한 부탁이었다.

어머니옆에서 눈물이 그렁해 서있던 리광동지의 애어린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뛰어갔다 오더니 한줌의 귀미를 가지고와서 수령님께서 타신 백마에게 내밀었다.

부디 우리 수령님의 그 길의 안녕을 바라는 애어린 소년의 모습에서 수령님께서서는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으시었다.

아, 그래도 수령님께서서는 떠나가셔야 했었다.

반제공동전선의 길에서 쓰러진 전우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비겁한자는 갈데면 가도 혁명의 붉은기를 휘날리며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가셔야만 하셨다.

걸음걸을 혈전으로 이어진 항일의 그 길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계혁명의 년대기우에 불멸의 자욱자욱을 새겨오시었다.

혁명의 배신자들이 제국주의공세앞에서 무릎을 꿇고 10월의 혁명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진행 되었다고 《아프지 않게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방도》를 고창할 때에도 《새로운 사고방식》의 간판밑에 《제국주의와 대결할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진영을 붕괴시킬 때에도 사회주의위업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더욱높이 드신 위대한 수령님.

세계혁명의 진로를 밝히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싸우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지성원하신 위대한 수령님.

오늘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은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채택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성지로 자랑떨치고있다.

평양선언은 조선명도 세계혁명도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철의 신념을 안으시고 싸워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함께 세계혁명을 위하여 높이 드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불멸의 기치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투쟁의 총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드신 조선혁명의 붉은기는 세계혁명의 붉은기이며 혁명의 노래 《적기가》는 조선혁명의 운명과 함께 세계혁명의 운명을 안으신 우리 수령님의 신념의 노래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를 조선혁명뿐만아닌 세계혁명의 대손실로 세계진보적인류는 그토록 슬퍼한것이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세계혁명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자주, 한길로 역세계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혁명의 노래 《적기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령도하여오신 80여성상의 위대한 생의 마지막날까지 혁명에 대한 헌신으로 혁명의 노래 《적기가》를 사랑하시었다.

여기에 1991년 5월 5일 하루에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초인간적인 정력의 높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새벽 5시 30분에 개성시를 향하여 금수산의사당을 출발하시었다.

-개성까지 400여리를 가시면서 도로와 수십개 굴과 다리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아침 7시에 길가에서 검소한 식사를 하시었다.

-7시 50분에 개성에 도착하여 영접나온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곧 고려박물관을 현지도하시었다.

-9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만월대를 돌아보시었다.

-10시 17분부터 10시 16분까지 선죽교와 표충비를 돌아보시었다.

-10시 37분부터 11시까지 고려태조(왕건) 왕릉을 돌아보시었다.

-13시 55분부터 14시 10분까지 개성방직공장을 현지도하시었다.

-14시 30분부터 15시까지 개풍군에 있는 공민왕릉을 돌아보시었다.

-15시 50분부터 16시 30분까지 박연폭포를 돌아보시었다.

-16시 30분부터 16시 50분까지 박연협동농장 인삼포전을 현지도하시었다.

-16시 50분에 박연협동농장을 떠나 귀로에 오르시었다.

-19시경에 평양에 도착하시었다.

-10시 37분에 책임서거를 찾으시어 오늘 현지도에 대한 력사학자들의 반영을 들으시었다.

하루에 자동차로 1, 100여리, 건장한 젊은 사람도 힘든 그 로정.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무려 10시간이나 야외에서 현지도로 보내시였으며 17시간 집무에 전력하시었다.

해외동포문필가는 어버이수령님의 생의 마지막 시기의 정력적인 활동에 대해 남조선의 한 잡지에 《**김일성**주석께서는 격무를 피하셔야 하는 년로한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37~38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 온갖 피로도 잊은채 강행군을 하셨다. 카터전대통령이 왔을 때 서해갑문 등 여러곳에 동행했고 장시간 회담도 하셨으며 북남고

위급회담 날자가 확정된 뒤에는 이제 통일을 위한 큰걸음을 떼는것이라며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고 폭우가 쏟아지는속에 현지도도 하시고 수많은 일군들과 만나 담화도 하시였다.》고 썼다.

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정녕 그이는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철의 신념으로, 초인간적인 정력과 힘으로 한평생을 혁명에 바치신 혁명의 화신이시다.

조국해방복을 위한 투쟁을 유격전쟁으로 선포하시고 벌려오신 력사의 그 광야에서부터 한평생 우리 수령님은 혁명의 그 보폭으로 투쟁하여오시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한생의 마지막길을 가시면서도 마지막과 낮과 붓이 아로새겨진 한쪽의 붉은기만을 안고가시는 수령님을 뵈으며 위대한 한평생의 자욱자욱과 함께 한 붉은기의 사상에 대하여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게 되었다.

혁명의 노래《적기가》.

위대한 수령이 사랑하시던 혁명의 노래는 위대한 령도자의 가장 사랑하는 노래로 되며 대를 이어 힘차게 불리워진다.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어있다
높이 들자 붉은기 맹세로 불타라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한길, 사회주의 위업의 한길로 힘차게 나가는 우리 혁명대오에 1930년대《적기가》와 함께 90년대의 적기가인《높이 들자 붉은기》노래가 메아리쳐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붉은기!

그 붉은기사상을 자신의 철학으로 새겨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적기가》를 제일 사랑하시고 가장 뜨겁게 부르신다.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려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고 웨치며 조선혁명은 오늘의《고난의 행군》을 항일의 나날 그 고난의 행군처럼 승리적으로 결속할것이며 조국통일의 새아침도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도 이땅에 기어이 안아올것이다.

그 길에서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타난다면 혁명의 길을 끝까지 함께 못갈자들이 자기들의 추악한 면모를 드러낸것으로, 제갈길을 찾아간것으로 여기 고생스러운 우리 대오에서 제명할것이며 더욱더 분발하여 싸워나갈것이다.

그 길에서 감옥도 교수대도 우리는 두려워 안 할것이며 혁명의 붉은기폭에 안겨 마칠 최후를 향하여 나아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스웨리에공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일행을 접견하신 석상에서《**미국놈들은 우리의 붉은기를 제일 보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별수 없습니다.**

우리는 붉은기를 계속 휘날릴것입니다.》라고 함주어 말씀하시였다.

아, 붉은기.

원썬들도 별수 없고 더욱더 힘차게 휘날려가는 조선혁명의 붉은기!

우리 혁명의 신념의 메아리로 계속 힘차게 울려 퍼질 붉은기의 노래!

혁명의 붉은기 휘날리는곳에 붉은기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붉은기의 노래 울려가는곳에 혁명의 붉은기가 높이 휘날린다.

붉은기의 위대한 기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 모시여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영상을 모신 조선혁명의 붉은기는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휘날릴것이며 붉은기의 노래는 더욱더 힘차게 울려퍼질것이다.

우리의 붉은 피는 주체의 붉은기를 물들이는 혈조가 될것이며 우리 심장의 고동은 붉은기노래의 메아리가 될것이다.

어느 한 문호는 인간이 빛낼수 있는 최상의 삶을 숭상하여《태양처럼 살다가 태양처럼 가리라》라고 명구를 남기였다.

아, 붉은기의 화신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정녕 그이의 한생은 태양처럼 빛을 뿌리시고 그태양의 빛을 우리 혁명의 붉은기에 물들여주신 영원한 태양의 삶이다.

사람들이여.

노래를 사랑하라, 우리 수령님처럼.

노래를 부르라, 우리 수령님처럼.

한목숨 다 바쳐, 한생을 다해 혁명할 철의 신념과 량심을 맹세로 담아 붉은기의 노래를 사랑하고 부르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은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서 꽃핍니다

신진순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에는 갈지자도 있고 바를 정자도 있으며 울리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든살나이에 이른 내가 나의 한생을 돌이켜보건대 내 한생의 나날에는 비오는 음침한 날이나 눈보라치는 혹한 날들이 없이 흘러왔다. 있다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암흑속에 헤매던 나날들이었고 해방후 어버이수령님 품속에 안긴후부터는 아침해돋이를 맞이할 때와 같은 환희로운 순간순간들로 이어져온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만일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우리 당의 오늘의 권위와 존엄에 대해서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광에 대해서도 결코 생각할수 없을것입니다.

과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우리 조선과 우리 인민이 무슨 빛을 내고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영광을 지닐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5월초 어느날 나는 뜻밖에도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생일 여든돛상을 받아안게 되었다. 당과 국가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몹시 분망하신 사업을 보시는 그이께서 온 나라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을 해나가고있는 이때 이 늙은이를 위해 이처럼 생일상까지 보내주셨으니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감사의 눈물은 끝없이 솟구쳐올랐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신진순동무는 우리 나라 3대 녀결중의 한사람이라고 하시였다는 뜻깊은 말씀까지 전해듣고보니 목이 꼭 메여오며 눈물이 앞을 가렸다. 진정 나같은게 뭐라고 이처럼 잊지않고 생일상을 보내주시고 또 내가 한생에 해놓은것이 뭐 있다고 3대 녀결중의 한사람이라고 뜨거운 믿음의 말씀을 해주시는것인가.

두볼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눈물속에 눈길을 드니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한눈에 안겨들었다. 그이의 품속에 안겨 걸어온 나의 성장의 나날이 비껴있는 영광의 기념사진들이었다.

해방후 수령님을 모시고 옆에 섰던 군중대회사진으로부터 시작해서 벽면 가득히 채워진 사진들은 어버이품속에 안겨온 내 행복의 일단을 보여주고있었다.

정녕 내가 위대한 수령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이런 영광, 이런 꿈같은 행복을 상상이나 했을손가.

해방전 처녀시절 서울감옥에서 모진 고문끝에 쓰러졌다가 누군가 통방으로 우리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저 백두산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우신다고 알려주었을 때 끝없이 가슴 울렁이며 그분을 뵈울날을 일일천추로 기다리던 나였다. 그러다가 해방된 평양에서 봄비는 전차안 비좁은 승강대에 우리와 함께 서계시며 해방조국을 위해 무엇인가해보겠다고 뛰어다니는 우리들의 일을 허물없이 물어주시고 방도까지 가르쳐주시던 그분이 오매에도 그림던 장군님이심을 몰랐다가 후날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내 얼마나 놀랐던가.

대륙적인 탁 터진 쾌활한 성격, 겸손명쾌한 태도, 순하게 쌍가풀진 눈, 웃을 때마다 두볼에 패이는 불우물로 하여 전날부터 잘 아는 친지와 같은 느낌을 주시는 이 젊은분이 과연 압담하던 그 시절 희망의 등대로, 우리 민족의 구심점으로 생각던 그분이심을 알게 되었을 당시 나의 가슴은 끝없이 설렘었다. 더우기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어 모두가 건국사업에 펼쳐나서야 한다고 하실 때 나의 심정은 캄캄한 어둠속에서 해빛 눈부신 밖으로 달려나온듯한 희열에 휩싸이는듯싶었다. 아직은 누구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왕우왕 하고있을 때 단마디로 건국사업을 위해 모두가 펼쳐나서도록 일깨워주시는 수령님을 뵈오니 이제는 우리 조선이 바로 서겠구나 하는 격정의 감정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나는 이처럼 어버이수령님을 곁에 모시고 한결 음한결음 성장의 자욱을 떼어나갔다.

어버이 수령님께서서는 1970년 4월 2일 친히 집에까지 차를 보내시여 나를 불러주셨으며 문밖에까지 나오시여 마중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나를 친딸처럼 맞아주시며 참으로 오래간만이라고, 이제는 머리가 다 세였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자신께서 력사연구소에 가시였다가 동무의 사진을 보고 생각을 하였는데 마침 신문에 발표된 동무의 시를 보고 찾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래동안 헤어졌던 딸자식을 만나신듯 그간의 사업정형을 일일이 헤아리시다가 관리위원장은 어디서 했는가 물어주시기도 하시고 지금 선네티면 일없다고 이제도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또한 작품 쓰는것이 마음같이 잘 안된다고 응석부리듯 말씀올리는 나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많이 쓰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편을 써도 좋은것을 써야 한다고, 파제

예브는 《피멸》 한편을 쓰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지 않았는가고 창작생활에서 지침으로 될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다.

작품 한편을 써도 력사에 길이 남을 좋은 작품을 써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안광에는 친부모보다 더 살뜰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에서 작가의 고상한 본분은 많이 쓰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한편한편이 금옥같이 다듬어져 세계사에 길이 전할것을 쓰는데 있음을 새롭게 자각케 되였다.

그후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창작을 위하여 현역작가로 있던 나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은 그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깊어져갔다.

수령님께서는 1971년 9월 력사적인 남북적십자 회담을 앞두고 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명단에 신진순동무를 넣자고, 그 동무가 적합하다고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었다. 그러시다가 내가 병치료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동무는 왜정때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유일한 여성인데 앓는다니 할수 없다고 매우 서운해하시였다 한다. 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7차전원회의때에는 조양탄광 3대혁명소조책임자의 토론을 들으시다가 문득 신진순동무가 왔는가고 부르시고 시를 쓰라, 당에 충성을 다하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활동이 정말 대견하다고 이에 대해 시를 쓰라고 거듭 거듭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나라정사를 론하는 회의에서도 이름을 짚어가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고 여러 국가행사들에도 부르시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내 외동딸의 혼사문제까지 관심하시여 사위가 군관이라니 좋다고 승인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여든돌이 되던 1991년 4월 15일이였다. 그날 나는 영광스럽게도 수령님을 모신 경축연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글썽 그이께서는 내가 만수축원의 인사도 올리기전에 몸소 축배잔을 부어주시며 일흔다섯살이라는데 몸이 펴 좋아졌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날이 가면 갈수록 커만가는 그 사랑은 우리 장군님에 의해 더욱 활짝 꽃피여났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때는 혁명가극 《피바다》를 한창 창조하던중이였는데 장군님께서는 휴식시간 누군가 옆에서 나에게 머리에 물감을 들이라고 권고하는 말을 들으시고 안된다고, 신 부위원장의 머리는 수령님께서 좋다고 하신 머리기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순간 나는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정말 사소한 문제도 수령님을 빼놓고 생각지 않는시는 충신중의 충신임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고

이런 위대한 분을 받들어 더 많은 일운 해야 하겠다는 맹세로 가슴 불태웠었다.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천품을 그대로 이으신 장군님께서는 내 손자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친필로 최별님학생을 종합대학 외문학부에서 공부시키라고 써주시는 등 사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피바다》가극단에서 창작공연한 민속무용조곡 《계절의 노래》를 보시러 나오셨다가 가신후 김원균동무를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 하시는 수령님의 전화를 받으시고 그를 만날때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을 몇명 더 같이 만나는것이 좋겠다고 이름까지 찍어주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은 아버지수령님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그이께서 하나를 생각하시면 열백을 앞질러가시며 생각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도 문무총효를 겸비한 걸출한 령도자이라고 감탄해마지 않으셨던것이다.

장군님의 이런 보살핌으로 하여 우리는 1993년 1월 11일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게 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이날 문학예술부문의 로장들인 동무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것이 매우 기쁘다고 하시면서 매 동무들의 이름을 찍어가시며 그들의 공로에 대하여 일일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신진순동무는 자신께서 해방직후부터 알고있는 사람이라고, 해방직후 녀성들과의 사업을 많이 하였다고, 아직 김정숙동무가 평양에 오기전이였기때문에 녀성들과의 사업을 주로 맡아하면서 김책, 안길 동무들과 련계를 가지고 일을 많이 하였다고 세월의 갈피속에 다 스러져가던 일까지 회고하시여 내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 통일된다음 수령님을 모시고 제주도도 다도해에 가고싶다고 하는 나의 말을 들으시고 고맙다고, 신동무도 통일될 때까지 건강하여 일을 잘 하여야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이처럼 건강하시여 앞으로 한 10년은 더 일할것 같다고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시던 수령님께서 뜻밖에 가실줄을 어찌 알았으랴.

세해전 7월의 그날 아버지수령님 령전에 서고 보니 못잇을 1월의 광경이 눈에 새록새록 밟혀오며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수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찬까지 마련해주시고 늙은 우리들이 읊고 부르는 시와 노래도 들어주시며 고맙다고 고맙다고 거듭 사의를 표시하시였었다.

우리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들이시다.

오래동안 나는 그분들의 슬하에서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으며 일해왔지만 매번 느끼는것이 두분의 위인풍모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다는것이다.

의리는 위인의 인격적 향기이고 가치이다.

청년 우리 수령님처럼, 우리 장군님처럼 한번
맺어진 동지들간의 의리를 귀중히 여기시며 영원
토록 지켜가시는분을 나는 더는 모른다.

하기에 수많은 외국의 벼들도 우리 수령님을
한번 뵈옵고 우리 장군님을 한번 뵈오면 그 인격
에 매혹되어 또 그 사상에 감화되어 그리고 그인
정이 고마와 다시 또다시 그 품을 찾아 대륙과
대양을 넘어 달려오지 않았던가.

나는 내 한생에 단언코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였기에 5천년 민족사에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위대하고 우리 인민이 강

대하며 우리 민족이 행성의 각광을 받으며 살수
있는것이라 웨치고싶다.

또 나의 인생 역시 위대한 두분을 모시여서 오
늘과 같이 보람찬 삶으로 이어져오는것이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있기에 래일의 우리 후
손들의 찬란한 행복도 언제나 변함없는 아침노을
처럼 황홀하게 기약되어있음을 확인한다.

그렇다.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과 미래는
은혜로운 아버지 그 품-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꽃피어났고 또
세월의 끝까지 이어질것이다.

우리의 승리, 조선의 승리는

한진보

전화의 그날
수령님 그어주신 화살표따라
침략자를 맞받아 진격, 진격하여
사흘만에 서울을 해방하던 그때
나는 애젊은 땅크병이었다

내 무엇을 속이라
해방의 기쁨안고 만세 높이
승리자의 환희에 잠겨있을 때도
속전속결의 그 첫 승전이
땅크의 속도에서 온줄 나는 알았다

불질하는 화점을 짓부시며 멸적의 기상안고
무적의 힘을 안고
대전을 향해 전속으로 달리는 진군길에서
나는 알았노라
심장으로 느꼈노라

전사의 길은 수령님 정해주신 길로
그이 뜻을 안고가는 영예로운 길임을
질풍같이 달리는 우리 땅크의 속도도
우리 수령님 전략의 속도임을

진격의 앞장에 선 우리에게
이번엔 전선지도우에
두툼한 가락지같은
붉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신 수령님

누가 알수 있었으랴
하늘도 모르는 그이 지략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었으랴
그이의 기묘한 전법
-원썹들이 숨돌릴새 없이
대전을 해방하라!

시가전을 벌리며
나는 보았노라
그물에 들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포위망에 걸려 허둥지둥하는 양키놈들을
패전을 모른다던 미군 정예부대 사단장이
나어린 전사에게 붙잡혀
두손 들고 살려달라 애원하는것을

나는 또 목격했노라
장진호반 눈덮인 함정골에서
탈주머니속에서 나오지도 못한채
그안에 엎디어 얼어죽는것을
짐승같기도 한
덜짙하게 키 큰 미국놈들을

수령님 열어주신 진군로따라
재진격의 길에 오른 우리
또다시 원썹의 뒤통수 후려치며
승전 승전의 길을 이어
전선동부 전선서부 그 어디라없이
그이 펼치시는 백승의 전법으로
침략자를 격멸소탕하였나니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신
우리 수령님의 담력과 지략 앞에
코대 부러진 미제는
무릎을 꿇고 항복의 도장을 찍었어라

아, 빛나는 승리
우리의 승리, 조선의 승리는
강철의 령장이신 수령님 이룩하신
위대한 승리여라

세 계절이 함께 오는 들에서

김영길

사람들은 누구나 봄은 꽃계절과 발갈이와 씨뿌리는 계절, 여름은 록음계절과 농작물비배관리와 김매기, 가을이면 단풍계절, 무르익은 오탁백과를 거두어들이는 수확계절로 알고있다. 또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다음에 가을이 온다는것도 달리 될수 없는 자연의 법칙으로 사람들의 머리속에 굳어진 상식이다.

아마 여름에 봄과 가을이 함께 온다고 하면 누구나 선뜻 믿으려 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여름속에 봄과 가을이 함께 오는 들에 서있다.

절기로 보면 하지가 눈앞에 온 때라 산과 들에는 록음이 우거지고 오탁이 무성하게 자라고있었다.

오늘 나는 웅진읍협동농장에서 보리가을을 시작한다고 하기에 취재겸 들구경도 할겸 해서 아침술을 놓기 바쁘게 낮 한가락을 얻어들고 들판으로 향했다.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파아란 하늘에는 종달새들이 높이 떠서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농장원들의 일손에 흥취를 돋구어주었다.

모를 낸 들판은 벌써 논고랑이 보이지 않는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에 점점이 널려있는 김매는 기계들이 경쾌한 동음을 울리며 오고간다.

푸른 들 한옆에 대조되게 펼쳐진 황금의 보리바다는 이따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장쾌한 파도를 일으키며 설레인다.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망망한 보리밭엔 다치면 터질듯 통통하게 영근 보리알들이 빼곡이 들어차 무겁게 고개를 숙인 이삭들이 땅이 꺼지게 실려있다. 그 《바다》를 헤가르며 두대의 종합수확기가 서서히 잘 익은 보리를 썩썩 베어 입이 메여지게 쓸어넣는다.

그러면 순식간에 알보리가 되어 폭포처럼 쏟아져내린다. 농장원처녀들은 그것을 제창 하얀 비닐마대에 받아서 옆에 따라오는 화물자동차적재함우로 척척 옮겨심는다.

종합수확기와 적재함우에 타고있는 처녀총각들의 입에서는 흥에 겨운 노래소리가 그칠새 없다.

그런가 하면 보리가을을 한 저쪽에서는 발갈이가 한창이다. 갠간칠을 한 《천리마》호 프락포르가 콩무니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검실한 흙물결을 일으키며 달린다. 뒤따라 이랑기계를 단 프락포르가 지난간다. 그러면 살찐 이랑이 단번에 다 석개씩이나 생긴다. 빨강고 파랑고 노란 수건들을 쓴 처녀들이 나비처럼 나풀거리며 새로 생긴 이랑에다 뒤그루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옮겨심는다.

참으로 세 계절이 함께 찾아온 여름속의 봄과 가을 풍경은 장관이었다.

나는 들의 풍경에 심취되어 한동안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마음은 봄편으로 쏠렸지만 낫을 들었는지라 가을편에 가붙었다. 하지만 낫질이 필요없어 나는 그저 농장원들의 말동무나 해주었다.

《정말 보리가 잘됐습니다. 이쯤 되면 정당 댕톤은 날것 같군요.》

나는 누구에게라 없이 말했다.

《댕톤이라니요? 그보다 뒤톤은 더 날것 같수다.》

나이가 지긋해보이는 농장원이 회열에 넘쳐 대답했다.

나는 놀랐다. 옛날 개인농사를 할 때에는 한정보에서 보리 두톤만 나도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여기다 뒤그루로 심는 저 강냉이까지 합치면...

나는 놀라움과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재차 물었다.

《저 뒤그루 강냉이에선 얼마나 날수 있습니까?》

《강냉이도 보리 못지 않게 나지요. 올해 지력도 높였겠다, 비료도 착실히 장만해놓았겠다, 못나두 댕톤은 문제 없수다.》

농장원은 흐뭇한 낯빛으로 장담을 했다.

《정말 대단한데요...》

나는 탄성을 올렸다.

《이제 다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덕분이지요.》

순간 봄과 가을이 함께 오는 이 들에 바쳐진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이 가슴 찢릿이 헤아려졌다.

길세 험하고 바람 세찬 웅진반도를 한해에도 두차례씩이나 몸소 찾아주시고 군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적산온도가 높은 웅진반도에서는 다른데서 하는식으로 농사를 하지 말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2모작농사를 하여 알곡수확고를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그루와 뒤그루로 심을 종곡과 품종, 매영농공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그리고 2모작농사를 하려면 종합적기계화를 해야 한다고 하시며 강력한 기계군단을 무어 보내주시고 2모작농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과학연구기관까지 꾸려주셨으며 저택에서 손수 가꾸신 종자도 친히 보내주시지 않았던가. 한 지방의 농사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을 쓰시는 수령님이시기에 한밤중 집무실창가에 스치는 바람소리를 들을시고도 친히 전화로 웅진반도에 태풍이 불지 않는가고 알아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

시고 먼 외국방문의 길에서까지 1모작농사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던가.

1모작농사를 잘해서 정당 알곡 10톤만 내도 좋다고, 13톤을 내면 대단하다고, 15톤은 자신의 소원이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신 어버이수령님!

그후 이고장 농민들이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잘 관철해서 정당 앞그루 보리에서 7.6톤, 뒤그루 강냉이에서 5.8톤을 냈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정당 13톤이면 대단하다고 웅진읍 협동농장이 1모작농사에서 장훈을 불렀다고, 이제는 1모작농사에서 자신이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질것같다고 그토록 못내 기뻐하시며 이들에게 친히 감사까지 보내주시었다. 그러시고 그후 농업부문일꾼들에게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의 예바는 1모작농사에 있다고 하시며 웅진, 강령, 벽성벌을 통털어 웅진벌이라고 부르자고 친히 벌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이제부터 웅진벌에서 1모작농사를 본때있게 해보자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인자하고 거룩하신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긴 이고장 농민들은 1모작풍년벌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영광의 그날을 이제나저제나 손꼽아기다리며 들을 가꾸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할줄이야...

1모작농사를 잘해서 정당 알곡 15톤을 내는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은 이제는 유훈으로 남았다. 이들은 7월의 그날 비분의 눈물을 흘리며 어버이수령님 령전에 심장의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는 1모작농사를 잘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정당 알곡 15톤을 기어이 내어 1모작풍년벌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꼭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안고 들에서 살며 벌을 가꾸어왔다.

하여 어버이수령님 서거 3년상을 맞는 올해에 흐뭇한 보리작황을 마련했다. 뒤그루 강냉이에서도 이처럼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것마다.

오늘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1모작풍년벌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나의 눈앞에는 30여년전 수령님께서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서계시던 력사의 지점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오시여 열정의 미소를 지으시는 것같은 상상의 순간이 펼쳐졌다.

수수한 잠바옷차림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허리에 두손을 얹으신채 봄과 가을이 함께 찾아온 풍요한들을 바라보신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잘 관철했다고, 여름속의 봄과 가을 풍경이 참으로 불만하다고, 이제는 우리 수령님께서 한가지 소원을 푸시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는데...

생각할수록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시울 뜨거워진다.

웅진벌의 이 풍경! 여름속의 봄과 가을, 세 계절이 함께 온 풍요한 들!이 어찌 자연이 준 혜택이라 하랴!

이것은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시려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우리 수령님한평생 들길을 걸어오셨고 오늘은 우리 장군님 수령님의 그 소원을 풀어드리려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전당, 전민을 이끌어오신 결과이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 모시여 어버이수령님 소원을 활짝 꽃피우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이 있음을 새삼스레 절감하며 동음 소리 높은 수확기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날알향기 구수한 풍요한 들, 싱그러운 흙내에 함뻑 취하는 좋은 날이었다.

조선의 메아리

신문호

불구름 몰아오며 원쑤무리 밀려들 때
장군님은 최전연의 고지우에 오르셨네
천출명장 우리 장군 추상같은 불호령에
천만산악 메아리쳐 원쑤무리 바들바들
아해 조선의 메아리 울린다

사회주의 우리 락원 삼키려는 개떼무리
원쑤놈들 숨통 찢러 붉은 화살 그으셨네
천출명장 우리 장군 추상같은 불호령에

승리함성 터져올라 적진지가 무너진다
아해 조선의 메아리 울린다

장군님의 담력으로 고지마다 철의 성새
천하대적 쳐온대도 락엽처럼 짓뭇개리
천출명장 우리 장군 추상같은 불호령에
제국주의 뉘를 잃고 온 지구가 흔들흔들
아해 조선의 메아리 울린다

세기와 더불어 영원할 태양의 노래

최연경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만가지 복중에 가장 큰 행복이 수령복이다.

한것은 만리창공에 빛나는 태양이 있어 세상만물이 생을 받아안고 활력을 가지듯이 원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만이 운명의 참된 주인으로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기때문이다.

하기에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는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크나큰 수령복을 두고 《우리는 태양의 나라에 삽니다.》라고 온 세상을 향해 심장의 격정을 터치였다.

그렇다. 우리는 위대한 태양의 나라에 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빛발쳐나오는 태양의 빛과도 같은 예지로운 사상으로 우리가 숨속에 든든한 마음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쏟아져 흘러드는 태양의 뜨거운 별과도 같은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모두를 한품에 안아 삶도 운명도 다 지켜 주시고 인간존엄의 상상봉에 높이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인민에게 일찌기 누구도 가져본적 없는 가장 위대한 세계관, 주체사상을 안겨주시여 지구를 통체로 움직일수 있는 지레대를 마련해주신 천하제일의 사상의 거장이시며 력사의 변두리에서 세상을 올려다보면서만 살아온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세계를 한눈으로 굽어보며 운명의 주인으로 살게해주신 정치의 원로이시였고 오랜 세월 우리 인민이 뒤집어쓰고 살던 사대와 교조의 낡은 허물을 송두리채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천하제일의 **김일성**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를 가슴터지게 안겨주신 애국애족의 최고화신, 조선의 위대한 어버이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의 로고와 사랑을 다 바치시여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주시였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건드리지 못하는 강대무비한 사회주의보루로, 세상사람들이 우러르는 희망의 등대로 전변시켜주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진두에 천하명장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내세워주시여 우리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마련해주시였다.

진정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인류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민, 위대한 조국- 이 위대한 모든것을 우리에게 다 마련해주신 우리 인민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뜨거운 마음과 한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3돐을 맞는 우리 작가들은 전체 인민과 함께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거이 되새겨보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더불어 빛나는 태양의 노래의 력사를 긍지에 넘쳐 자부에 차서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주체문학의 력사,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태양의 노래로 시작되고 태양의 노래와 더불어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태양의 노래와 함께 영원무궁할 위대한 태양의 노래의 력사, 영광스러운 수령송가 문학의 긍지 높은 력사이다.

일찌기 조선혁명이 주체의 닳을 올리고 그 첫기슭을 떠난혁명의 려명기에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인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부른 첫 노래는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었다.

송가에는 위대한 령수를 애타게 기다리던 이 나라 강산에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통일과 단결의 중심으로,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게 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끓어넘치는 기쁨과 환희, 열렬한 흠모와 충성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을 처음으로 맞이한 혁명의 려명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수령송가를 가지게 된것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조선의 긍지이고 영광이며 최상의 행복이다.

혁명의 개척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억센 뿌리가 내렸듯이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우리 인민이 천만년을 두고 영원히 부를 위대한 태양의 노래의 빛나는 시원을 열어놓았다.

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 우리 시인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인민에게 안겨준 첫 노래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우리 인민은 이 노래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알고 혁명의 참뜻을 배웠으며 이 노래 높이 부르며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영광에 찬 승리의 한길을 긍지높이 걸어왔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성스러운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이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수령송가를 우리 인민에게 안겨준것은 수령의 작가, 시인으로서 위대한 어

버이께 드린 최대의 인사였으며 그것은 력사와 사회주의위업 앞에 긍지높이 말할수 있는 가장 값높은 주체문학의 총화였다.

세상사람들은 듣고있다.

여기 지구의 동쪽 한끝에 거연히 솟아 붉은기
높이 날리는 사회주의조선에서 울려가는 혁명의
노래, 영생불멸의 태양송가를, 그 노래 태양과
대륙을 넘어 수억만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
러 자주의 성전으로 일떠세우리라.

해방후 첫시기에 혁명시인 조기천은 장편서사
시 《백두산》을 창작하여 절세의 애국자, 만고
의 빨찌산 김대장을 《백두산호랑이》로 우리 인
민앞에 높이 받들어모시었다.

참으로 항일혁명문학의 숭고한 전통을 이은 우
리의 주체문학이 태양의 노래로 시작되어 태양의
노래와 더불어 승승장구해온것은 얼마나 값높은
조선의 긍지이고 영광인가!

위대한 태양송가,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에 바쳐
진 혁명문학은 위대한 사상의 영재, 령도의 영재,
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진두에
모시여 그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
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
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형상창조를 우리
문학의 초미의 문제로,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
우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었다.

그이의 비범한 예지, 뜨거운 충성심에 떠받들
리어 이 땅에는 수천년 인류문학사가 알지 못하
는 총서 《불멸의 력사》가 태여났고 혁명영화
《조선의 별》과 《민족의 태양》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최상
의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형상한 총
서 《불멸의 력사》,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충성심의 고귀한 결
실이며, 이 세상에서 오직 한분이신 그이께서만
이 체현하고계시는 예술적천재의 빛나는 산아이
다.

정녕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1931년》,
《백두산기슭》, 《두만강지구》, 《준엄한 전구》,
《고난의 행군》이 그리고 《빛나는 아침》, 《5
0년여름》, 《조선의 힘》, 《승리》등 총서 《불
멸의 력사》의 갈피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
의 그 자애로우신 영상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깊이 영원무궁토록 간직하게 해주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고 또 바쳐오신 하늘같은 그충효
와 한평생의 로고가 얼마나 뜨겁게 수놓아져있는
가!

우리는 생생히 가슴속에 되새겨본다. 총서 《불
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1931년》의 토기점굴
소사하집장면이 어떻게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
러간후에까지도 어버이수령님께 그토록 잊을수
없는 추억을 불러드린 주옥같은 장면으로 빛나게
그려질수 있었는가를. 그리고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이 어떻게 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에 대한 것처럼 빛나는 화폭으로 되고 장편
소설 《백두산 기슭》에서 그 저주로운 《민생단》
문서보따리를 불태워버리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
상이 위대한 인간애, 인간신뢰의 가장 거룩한 화
폭으로 영원히 력사에 새겨지게 되였는가를, 우
리 문학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생활을 력사적사
실그대로 진실하게 그럴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
의 가르치심이 있음으로 하여 만대에 길이 불멸
할 이 빛나는 력사적화폭들을 창조할수 있었다.

진정 그 누구도 수십년의 력사를 가진 그 어느
당도 열지 못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의 초행
길을 빛나게 개척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조국
과 인민 앞에,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그불
멸의 업적,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민의
마음속에 환한 미소를 주시는 그 자애로우신 태
양의 영상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게 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은정을 우리 어찌 천만권의 책을
쓴들 다 적을수 있으며 수천수만곡의 노래론들
다 노래 할수 있으랴.

참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 이것은 사상의
영재, 령도의 영재이시며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이 가장 빛나
게 반영된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총서이며 사상
적으로 심오하고 예술적으로 완벽한 혁명문학의
최고정수이다.

이것은 말그대로 인류문예사에서 특기할 력사
적 사변이라고 할수 있다.

물건대 사람들이여, 인류문예사의 새 장을 열
어놓은 로동계급의 문학이 인류의 자주위업에 이
바치하여 어언간 150여년의 력사를 기록해왔건만
그 언제, 그 어디에 이토록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한 문학이 있었던가.

총서 《불멸의 력사》, 이것은 정녕 하늘땅을
다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충성심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비범한 예술적천재의 산아이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
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작가들
과 전체 인민의 열화와 같은 충성심의 순결한 결
정체이다.

사회주의작가로 자처하던 혁명의 배신자들이
로동계급의 문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회주의
를 찬양한 노래들을 헌신짝처럼 켜버릴 때 우리
시인들은 당송가와 조국찬가로 우리 당을 더 순
결하게, 더 높이 떠받들어올리였고 사회주의조국

에 바치는 우리 인민의 혈연의 애정을 온 세상이 눈물을 머금고 부러워하게 궁지높이 노래했다.

아버이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슬픔에 몸부림칠 때 우리 작가들은 수백편의 추모시와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추모설화를 400여편이 나 내놓아 눈물의 바다, 피의 바다를 텅고 산악같이 일떠서라고 우리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시인 김만영은 아버지수령님의 서거 1돐과 2돐에 즈음하여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를 삼가 드려 경애하는 장군님의 상실의 아픔을 덜어드리었고 우리 인민을 주체위업의 완성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오늘 우리 인민은 신념의 노래, 충성의 노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높이 들자 붉은기》를 높이 부르며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아버지 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대로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역세게 싸우고있다.

우리 작가, 시인들은 세상천지가 다 변하고 설사 지구가 깨여진다 해도 지난날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더 높이, 더 힘차게 부르고 또 부를것이다.

위대한 태양의 노래, 이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우리 인민만이 부를수 있는 영원한 조선의 노래이다.

우리들, 조선의 작가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수 없는 태양의 노래의 창조자된 크나큰 궁지와 행운을 안고 이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더 많이 창작하여 인민들을 주체위업완성에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우리가 부르는 한편한편의 태양송가는 청탁받은 원고와 같은 의무의 생산품이 아니라 한자한자 혁명의 신념으로 심어 가꾸고 혁명의 량심으로 쪼아 새긴 심장의 노래로 되여야 한다.

신념과 량심으로 하는것이 혁명이며 또한 신념과 량심으로 부르는것이 혁명의 노래이다.

하기에 리인모동지는 수십년세월 모진 악형을 당하면서도 수령을 옹위하고 혁명을 지키었으며 자기의 신념을 담은 작품들을 썼으며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산 모범을 보여준 길영조영웅도 태양의 노래를 남기었다.

우리에게는 하늘처럼 믿고사는 억척같은 마음의 기둥이 있다.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 온 누리를 찬란히 비치시는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진두에 서계신다.

조선이 없는 세계란 있을수 없음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신 천하명장,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조선의 장군, 그이께서만 계시면 우리 가는 앞길이 그 아무리 험난하고 우리와 맞선 원수 또한 그 어떤 대적이라 하여도 우리는 필승불패한다. 제국주의는 망하고 사회주의는 이긴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녀이고 정신이며 허물수 없는 배짱이며 신념이고 량심이다.

우리는 이 신념, 이 량심을 안고 우리 혁명의 충신들처럼 그이께서 바라시는 신념의 노래, 량심의 노래,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작가들은 한편의 작품을 써도 이것은 내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지은 태양의, 노래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해야 한다.

우리가 부르는 태양의 노래, 수령형상문학은 사상적심오성과 예술적완벽성에 있어서 최상의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수령형상문학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우리의 목표는 비할바없이 더 높고 더 원대하다.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절대적 기준, 고전적본보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이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거기에 수록된 위대한 인간, 위대한 력사, 위대한 생활의 숭고성에 있어서뿐아니라 그 내용의 철학적심오성과 생활반영의 진실성, 사람들을 울게 하고 웃게 하며 통탄케 하고 환호하게 하며 사랑하게하고 증오하게하는 그 감화력에 있어서 동서고금의 그 어떤 문학작품도 무색케 하고 비길데 없게 하는 전대미문의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조선사람은 물론이고 이 책을 읽고 진실로 감동되지 않은이는 이 세상에 없다.

그것은 말그대로 한생을 두고 가장 위대한 인간의 심장속에 응집되여온 위대성의 분출이며 그 총화이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위대한 수령님의 문풍을 따라배워 우리 부르는 한편한편의 태양의 노래가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최상최고의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의 철학적심오성이다.

수령형상문학에서 사상적심오성이란 수령의 위대성형상의 심오성이며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도의 강렬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은 그 사상과 령도, 덕망에 있어서 그 한계가 없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실재하였던 위대한 사건과 사실들을 남김없이 발굴체득하며 그 하나하나의 력사적사실들에 담겨진 거대한 의의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야 한다.

작가, 시인들이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하고 충성의 열도가 높을수록 형상의 사상적심오성은 더욱 확고히 담보되게 된다.

작가, 시인들은 누구보다도 참된 충신, 효자가 되어야 한다.

수령형상문학의 예술적완벽성은 주로 위대한 역사적현실의 진실한 예술적반영, 위대한 인간의 생활의 감동적인 반영에 의하여 담보된다.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떠나 참다운 인간학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면 그것은 위인을 형상하는 경우 더욱 절대적인 요구로 나선다.

우리는 보다 더 왕성하게, 보다 더 다양하게 수령형상문학을 창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총서《불멸의 력사》의 해방후편, 그속편들을 더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계속 창작하여야 하며《우리는 맹세한다》,《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와 같은 가요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조선의 별》과 같은 혁명영화문학도 더 많이 내놓아야 하며 서사시도 더 많이 쓰고 실화문학과 아동문학, 서정시도 써야 한다.

동시에 수령형상을 직접 주제로 하지 않은 작품들에서도 모든 형상을 수령의 위대성과 결부시켜 창조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을 위대한 태양의 노래로 충만되고 수령에 대한 충성이 차넘치는 수령의 문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태양의 위업이 대를 이어 계승되듯이 위대한 수령님을 노래한 태양의 노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노래한 태양의 노래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 문학은 가요《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노래한 수많은 가요들과 함께 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온 나라 전체 인민을 기쁨과 환희에 휩싸이게 하였다.

얼마나 기다리고 념원하던 우리의 태양송가인 가.

송가는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 시며 우리 인민에게 행복을 주시고 세계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는 인민의 령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적으로 감명깊게,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참으로 훌륭히 노래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오늘의《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섰고 4월의 봄 예술축전에 참가한 세계예술인들은 경탄과 부러움의 정을 안고 흠모의 노래, 충성의 노래《**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축전무대에 올리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또하나의 태양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를 가지게 된것은 조선의 크나큰 영광이고 자랑이며 긍지이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이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을 노래한 태양송가를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시대를 굽이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투철하게 반영하는것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투철하게 반영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수령형상문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첫째가는 과업이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은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뿐아니라 숨결과 맥박에서도 장군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고 체질화한 충신의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시인, 작가들은 시대와 력사가 맡겨준 커다란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태양의 노래가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다.

《민촌》에게 따사로이 비친 은혜로운 해빛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가 리기영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

리수립

문학에 대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나라 현대소설문학의 거장인 작가 리기영을 《민촌》이라는 그의 필명과 더불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작가적출발의 초기부터 그가 즐겨 써온 필명, 근로하는 민중이 화목하게 사는 마을을 의미하는 《민촌》이라는 호에는 리기영이 자기 한생을 열정과 애정을 다하여 안고 모태진 창작적지향과 생활세계가 인상적으로 집약되어있다.

리기영의 해방전문학에 관한 사람들의 소박한 표상은 대체로 《농민문학》이라는 개념에 귀착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일제가 강점한 고향농토에 명줄을 걸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소박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 운명의 길을 개척하려던 작가의 열렬한 소망은 《원보》나 《고향》으로 프로레타리아소설가의 명성을 얻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해방전시기에 과연 어느정도로 성취되었던가.

해방전 세월 작가가 창조한 문학세계는 단합하여 지주, 자본가계급과 착취제도에 맞서 나서는 근로민중들의 생활세계였다. 그것은 분명 인민의 편에 선 진보적문학의 세계이기는 하였으나 당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밝혀낸 참다운 혁명문학의 높은 경지는 못되었다. 왜냐하면 당대의 현실을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에서 심오히 분석하고 형상화한 작가의 혁명적세계관과 미학적리상이 준비되어있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나는 자신의 창작을 두고 또다시 우울한 생각에 잠기었다. 근로대중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위한 올바른 창작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인민이 바라는 소설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후날 그 시기의 심정에 대하여 쓴 이 글은 작가 자신이 그 세월 자기 문학을 두고 변민속에 모대했던 사실을 말해준다.

하강하기 시작한 자기의 문학세계를 두고 변민하며 차마 작가적량심을 버릴 수 없었던 그는 1944년 3월 드디어 붓을 꺾고 일제의 탄압을 저주하면서 강원도 깊은 산골, 내금강, 병무리로 들어가버리고말았다. 지난 세월 《민촌》의 하늘에는 태양이 비쳐들지 못하였다.

하지만 암흑의 두메에도 끝끝내 은혜로운 광명은 비쳐왔다.

조국이 해방되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하시었으며 바로 그분께서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시며 작가 리기영을 새 조선문화건설대의 골간으로 믿어 친히 불러주셨던 것이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이날은 바로 온 나라가 민주개혁으로 들끓던 1946년 3월의 하루였다.

1945년 10월 어느날 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주위에 결속시켜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이듬해 3월에는 지방에서 교육사업에 나섰던 작가 리기영을 친히 접견하시고 평양에 와서 문학예술사업에 전심하도록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가족을 빨리 데려오도록 훌륭한 주택과 운수수단까지 배려하여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돌려주시었다.

그해의 3월은 작가 리기영에게 있어서 감격의련속으로 이어진 참으로 류다른 봄날이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3월 15일, 평양과 각 도에서 선출된 100여명의 대표들과 래빈 방청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대회가 열리었다. 작가는 이 대회에서 영광스럽게도 개회사를 하였다.

혁명적인 작가, 예술인조직은 작가, 예술인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에 결속시키는 공고한 혈연적뉴대로 된다.

북조선예술총련맹의 창립은 모든 작가, 예술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력사적인 계기로 되었다. 이날이있어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지난날의 온갖 낡은 문예관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민족문학, 주체문학의 기치아래 참다운 인간학의 길로 희망에 넘쳐 전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문학예술운동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운동으로 조직화되고 힘차게 전개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이날 리기영을 비롯한 새로 선출된 예술총련맹집행위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북조선예술총련맹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강령적인 담화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예술총련맹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민중에게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중에게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적문학예술!

바로 이것이였다. 리기영이 오매불망 갈망하던 《민촌》의 문학, 바로 그것이 민중에게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문학에 관한 사상으로 선명한 빛을 뿌리며 현실로 안겨온 것이었다. 마치 캄캄한 밤 노도속에 휘말려 구원을 부르짖던 어부가 대를 만나 삶의 기슭에 운명의 쪽배를 대인 감격이라 할가. 《민촌》문학은 드디어 수령의 혁명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는 참다운 혁명문학의 세계를 찾았으며 민족이 창조한 인민적문학유산을 계승발전시키면서 당의 력도밀에 비약하며 전진하는 벽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문학건설의 옳바른 궤도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수십년을 찾아 모대기던 문학의 리상세계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밝혀주신분, 그 위대한 승은 다름아닌 작가를 새 조선건설의 역군으로 믿어 주시고 그 앞자리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어버이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그해 5월 14일 북조선 각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예술인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에서 작가, 예술인들을 문화전선의 투사라는 고귀한 칭호로 불러 주시며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문화전선의 투사, 이 얼마나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카프》(《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약칭)에서 활동한 그의 작은 경력을 헤아리시고 새 문학건설의 핵심골간으로 내세워주시였으니 수령님의 무한한 신임과 사랑속에 그는 해방후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조조 문화협회중앙위원회 위원장, 제1기부터 5기까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부의장 등 여러가지 국가적 및 사회적직무에서 문화전선의 선봉투사로 활약하였다.

진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밝은 빛과 파사로운 열로 작가 리기영, 아니 이 나라의 모든 작가들을 포근히 안아주신 은혜로운 태양이시였다.

이때 리기영의 나이 50이었다. 때늦은 감도 바이 없지는 않았으나 다시 문학소년이 된 심정으로 새 문학건설의 넓은 길위에 나선 그날의 작가를 그가 그해에 창작발표한 단편소설 《개벽》의 형상세계에서 련상해볼수 있다.

이 소설은 물론 자서전적성격의 작품은 아니다. 작품에는 토지개혁을 앞둔 농촌생활이 그려져있을뿐이다.

토지개혁을 말아 주관하게 될 농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어제날의 머슴 원철지, 그 소식을 정녕 믿을수 없어 몇번이고 부정하다가 드디어 그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확인하게 되자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깊이 간수해두었던 단벌 두루마기를 펼쳐입고 《개벽이야, 이거야 말로 천지개벽이야!》라고 부르짖으며 문밖을 나서는 원철지의 형상, 그를 작품속의 농민으로만

보기에는 그의 호흡과 열정속에 작가의 걱정이 너무나도 진하게 배여있다.

실로 그것은 《민촌》의 하늘에 솟은 태양을 우러러 걱정을 더친 작가 리기영의 그 모습,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작중의 원철지가 50년을 살았다는 머슴살이 해수마저 당시 리기영의 나이와 똑같은 50이니 이 또한 얼마나 기묘한 일치인가. 실로 《개벽》이라는 작품의 두 글자제명은 암흑의 《민촌》이 광명의 《민촌》으로 전변된 꿈같이 놀라운 현실에 대한 격동적인 확인인 동시에 그 개벽천지위에 찬란히 솟아오른 인민의 태양, 그 은혜로운 품을 레찬하여마지 않은 작가의 다함없는 환희와 감사의 분출이였다.

드디어 《민촌》에는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 이날부터 작가가 오르고 오른것은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영광스러운 봉우리였다.

장편소설 《땅》의 창작은 그 뜻깊은 첫걸음으로 되였다.

력사의 새 시대는 새로운 문학을 요구하며 그것은 새로운 문예관과 창작방법을 가진 작가에 의하여 창조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땅》의 창작과정을 통하여 리기영은 주체의 문예관, 주체사실주의의 숭고한 세계에 눈뜨게 되였다.

작가 리기영은 1947년 4월 자기가 쓰려는 해방후 첫 장편소설 《땅》의 경계문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올리였다. 경계문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가 구상한 소설의 줄거리에 동의를 표시하시고 꼭 성공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 소설에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적힘을 가지고있는가를 잘 그려야 하며 그것으로써 력사의 창조자는 다름아닌 바로 인민대중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인하여야 한다는 교시를 주시였다.

실로 이 가르치심에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진실로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문예관이 맥맥히 넘치고있었다.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이 구현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적, 로력적 열의가 충천하고있는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생활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는 위대한 진실을 힘있게 천명할데 대한 주체사실주의의 전형화원칙이 밝혀져있었다.

작가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서 지난날 자기가 가졌던 문예관으로는 도저히 그려낼수 없었던 새로운 높은 세계를 내다보았다. 지난시기 형상의 중심에 인간을 세우고 그들의 항거와 투쟁을 그리노라 하였으나 자기는 사람들을 사회의 물질경제적조건들에 보다 많이 제약되는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보고 그리는데 지나지 않았다.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창작에 구현하려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체현하고 계시는 혁명적문예관의 숭고한 경지에 하루빨리 올라야 한다는 강렬한 의욕이 작가의 온몸을 휩싸아났다. 작가는 주인공 팍바위를 토지개혁을 계기로 어제날의 머슴이 새 농촌현실의 주인으로 태어나며 그 투쟁의 앞장에서 이신작적하며 대중을 선도하여 로력의 위훈을 떨치는 모습으로 감명깊게 그려나갔다. 황무지였던 술버덩개간을 밭기하고 농기구를 개량하여 그 앞장에 서며 나라에 보탬을 주기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주인공의 감명깊은 형상은 새 나라의 주인된 근로농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위력을 잘 보여주었다.

작가는 한편 주인공의 육체적힘을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형상을 부각하여나갔다.

그가 쓴 수필 <<땅>과 팍바위>에 의하면 원래 팍바위의 원형인물은 몸도 채소하고 기온도 장사처럼 센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러한 원형을 작가는 새 농촌건설의 앞장에서 남들처럼 열몫, 스무몫을 해제끼는 우람찬 인간으로 그려낸 것이다.

이점을 두고 말할 때 당시 작가가 아버지수령님의 교시에 담겨있는 주체의 심원한 미학을 충분히 깨달았다고 볼수는 없을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육체적능력의 량만적인 강조보다는 사상정신적인 자각과 성장, 대중을 발동하고 조직함으로써 얻어지는 위력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내는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였겠는가.

하지만 아버지 수령님의 뜻깊은 가르치심에 접한 작가가 낡은 문예관을 털어버리고 새 시대의 문예관을 구현하는 실천적인 첫걸음을 크게 내디딘것만은 확실하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땅>은 해방후 소설문학사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사실주의를 구현한 성과적으로 무게있게 등장하였다. 작품은 전국문학예술축전에서 1등으로 당선되었다.

주체의 문예관과 주체사실주의의 체득, 그것은 또한 작가로 하여금 문학에 대한 관점과 방법에서 로동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설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관점과 립장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견결히 옹호하는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근본담보이기때문이다.

작가 리기영에게서 주체사실주의의 새 세계를 터득하는 과정은 그가 해방전에 소유한 <프로레타리아문학>과 이 문학의 로동계급성을 최상의 경지로 높이는 투쟁과 잇달아있었으니 이 새로운 높은 도약을 손잡아 이끌어주신분도 위대한 스승,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였다.

해방전 <카프>에서의 창작경력은 작가로 하여금 자기 문학의 로동계급성에서 은근한 자부를 가지게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부질없는 과신이였음을 자책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으니 창작된 소설 <땅>에 로동계급적선이 서지 못한 심중한 결함이 나타난것이다.

소설 <땅>의 창작방향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9년 어느날 소설을 각색한 동명의 연극을 친히 보아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주인공의 혼인관계선이 로동계급적 견지에서 옳게 맺어지지 못하였음을 찾아내시고 작품에서 지난날의 머슴이였던 팍바위를 지주의 첩으로 있던 파부에게 장가들게 한것은 잘못된 실정이라는 심각한 지적의 교시를 주시였다. 당시의 연극과 그 원작인 소설에는 해방후 나라의 주인으로 성장발전하는 주인공 팍바위가 지난날 지주 윤상렬의 첩이였던 진순옥이라는 녀성과 결혼하여 새살림을 꾸리며 옥동자까지 낳는 인간관계가 그려져있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성의 견지에서 융합될수 없는 결합이였으며 미감상견지로 보아도 아름답지 못한 형상이였다.

작가는 팍바위를 진순옥과 결합시키면서 지난날 동정의 눈물속에 소설들에 등장시켰던 빗값에 첩이나 민며느리로 팔려간 불쌍한 녀성들을 생각하였으며 해방된 오늘 그들에게도 복된 생활을 주어야 하리라는 순수 인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있었다. 또한 진순옥의 지난 생활상<오점>은 그로 하여금 고빈끝에 투신자살을 시도하게 함으로써 해소된것으로 만족하는 주관적사고에 빠져있었다.

온갖 개인리기주의적주관에서 탈퇴하여야 인간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릴수 있고 근로인민대중을 진실하게 전형화하려면 그 사회계급적본질을 밝혀내야 하며 그것을 로동계급적인 대가 바로 선 인간관계우에서 튼튼히 담보해야 한다.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는 작가로 하여금 작품의 로동계급적선이 허약할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지키고 높이 발양시켜야 할 혁명문학, 주체사실주의문학을 일치기문학, 범백문학으로 만들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연극이 수정되였을뿐아니라 장편소설은 재판되는 기회에 주인공 팍바위가 약혼한 남자가 왜놈의 강제징병에 끌려나가 홀로 있는 처녀와 결혼하는 것으로 수정되였다.

실로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하신 손길은 지난날 <카프> 문학의 미숙한 경지에서 해매고있던 작가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 주체문학의 세계에로 이끌어올린 은혜로운 손길이였다. 작가는 장편소설 <땅>의 창작과정에 참으로 숭고한 세계에 올라 눈떴으며 다음번 장편소설 <두만강>의 창작은 그러한 성장을 뚜렷이 확증하였

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힘을 확인하는 관점과 립장을 한층 뚜렷이 하면서 우리 나라의 근대력사를 장엄한 서사적화폭으로 펼쳐나갔다. 박금손일가의 3대에 걸치는 장구한 력사적행로의 중심에서 울리는 작가의 웅심깊은 목소리는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작가의 이러한 성장을 더없이 기뻐하신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장편소설 《두만강》이 발표되었을 때 그에게 인민상계관인의 높은 영예를 안겨주셨다. 주체의 문예관을 확립하며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뚜렷이 그려내는데서 사회주의문학의 진미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터득하여나간 작가의 창작적전환은 이렇게 장편소설 《땅》을 첫걸음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작가로 하여금 묘사대상으로서의 인민을 알게 한 이 뜻깊은 첫걸음은 혁명을 알고 수령을 아는 다음걸음으로 더욱 높여 이어졌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로부터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 때 운명의 주인이 될수 있으며 그것은 진실하게 밝혀낸 생활의 철학이라야 참다운 혁명문학, 주체사실주의문학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대작, 혁명소설을 창작할데 대하여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작가의 창작적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었다.

혁명소설에로의 이행은 시대의 절실한 요청이었음과 동시에 작가 리기영의 보다 높은 창작적 발전을 위한 중심과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63년 11월 5일 작가들과 력사적담화 **《혁명적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에서와 이듬해 1964년 11월 7일에 하신 력사적연설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혁명적대작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혁명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린 폭있고 깊이있는 혁명적작품에 대하여 가르쳐주심으로써 대작의 면모를 선명히 그려주시였다. 그것은 혁명의 수령에 의하여 조직령도되는 위대한 투쟁의 실천속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교양되고 수령의 두리에 조직적으로 결속되어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주위업승리의 주체적력량으로 자라나는 인민대중의 장엄한 모습이었다.

리기영은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에서 자신이 여직껏 알지 못하였던 숭고한 인간학의 세계, 혁명적대작의 세계를 가슴씩차게 받아안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더구나 해방후 장편소설작가로서의 지위를 한층 확고히 하여가던 리기영의 세계관과 미학관발전에 새로운 양양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작가는 이때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아버지수령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였던 이야기들을 되새겨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 기회있을

적마다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들려주신 우리 혁명의 뜻깊은 력사적사건과 사실들은 실로 그 어디서도 들을수 없는 혁명의 철리가 웅심깊이 안겨오는 혁명문학의 고귀한 원천이었다.

잊을수 없는 1947년 4월, 작가들의 소청을 받아 주시여 한밤이 지새도록 저택에서 항일무장투쟁의 피어린 나날들을 회고하여주시실 때 가슴속에는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나서신 만고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흠모심이 차넘쳤었다. 또한 1955년 3월 최고인민회의를 지도하시기에 바쁜 시간을 내시여 작가를 휴게실에 불러 전쟁때 미제야수들의 맹폭격으로 파괴된 석암저수지를 반당종파분자들의 태공을 물리치며 군대와 인민을 발동하여 끝끝내 복구해내던 나날을 회고해주시실 때 작가에게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 당과 인민이 하나로 뭉친 위력이 가슴뿌듯이 안겨왔었다.

어찌 그뿐이라, 1960년 정초 그가 입원치료를 받고있을 때 몸소 병문안오시여 담소를 나누시던 그이께서 해방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 박헌영을 만나 그 반인간적본성을 직감하시던 인상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실때 그의 가슴에는 인민의 운명, 혁명의 운명을 맡아주시실 위대한 수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한분이시라는 그 한생각만이 짙 차올랐었다. 작가는 지나간 나날들에 받아안은 그 가지가지 이야기를 되새겨보며 가슴을 쳤다.

그 모든 이야기들에 일찌기 참다운 혁명소설의 세계가 담겨 있었거늘 자기는 어찌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단말인가.

문학의 묘사대상인 인간, 인민대중을 알고 소설의 화폭에 바로 그려낸다는 말은 혁명적작가에게 있어서 인민들의 력사생활을 수령, 당, 대중의 3위 1체속에서 밝혀낸다는것을 의미하며 인민들을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 자기 인민의 투쟁력사를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주축으로 하여 형상한다는것을 말한다.

그러고보면 자기가 품들여 써낸 《두만강》의 세계관 규모는 요란하였어도 혁명소설의 본격적인 경지에 오르지 못한 미숙하고 부끄러운 작품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리기영은 자신의 세계관과 미학관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분발해나섰다.

그의 노력은 1960년대 하반기에 벌어진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사업과 결합되어 비상이 추진되었다.

주체문학의 높은 봉우리, 혁명소설의 심원한 세계에 오를수 있는 주체의 혁명관, 혁명적수령관이 그의 신념의 기둥되어 솟아오르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형상

하는 혁명소설을 창작할 영예로운 과제를 그에게 맡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주제로 한 소설창작문제가 제기되자 그 작품은 아버님과 동시대사람인 리기영선생이 잘 쓸 수 있을것이라고, 그에게 씌우는것이 좋겠다는 크나큰 신임의 교시를 주시였으며 그것을 잊지 않고계시다가 독립군의 녀걸 리관련이 조국을 방문하였을때에는 리기영선생의 혁명소설창작에 필요할것이라고 그와의 상면도 친히 조직하여주시는 세심한 배려까지 돌려주시었다.

작가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친히 주신 창작과제를 혁명소설문학의 높은 경지에 오르고야말 굳은 각오속에 받아안았다. 그리하여 작품의 제목도 《력사의 새벽길》로 달았다. 그는 이 제목에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적역할을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과 함께 혁명소설문학의 새 길우에 높이 올라서고야말 자기의 굳은 결심과 넘치는 자부심도 담았다. 70대의 연령임에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사모쳐오르는 혁명적수령관을 간직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일가를 온 누리에 자랑떨칠 일념으로 수령님과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사적지를 전면적으로 답사취재하는 길에 올랐다. 낮에는 사적지며 전적지를 찾아 취재를 하고 밤에는 펴판방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사색을 무르익혀가는 그에게서 언제나 모자라는것은 시간이었다. 그를 방조하여 당시 함께 다니던 작가는 지금도 밤을 지새워가며 일하던 그의 일과를 놀랍게 추억하고있다.

작가는 그가 흘러간 한생의 어느 시기보다 이 나날 가장 정신적양양기에 살았던것 같다고 하였다.

그의 답사와 취재는 드디어 혁명의 성산 백두산마루에서 끝났다.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백두산마루에 선 그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었다.

백두산정에 처음 올라서가 아니었다. 그에게 백두산은 두번째였다. 바로 그때문에 때늦은 대책과 더불어 다지는 결의 또한 류달리 벅찼던것이다. 그가 백두산에 처음으로 오른것은 1961년 이었다. 장편소설 《두만강》창작이 3부에로 진입하게 되면서 주인공을 항일유격대원으로 활동시킬 구상을 세운 작가는 동북지방의 지리와 력사를 알기 위하여 그 일대를 답사할 의향을 당에 제기하였었다. 하지만 이 제기가 경애하는 수령님께 보고되어 극진한 배려속에 항일혁명전적지 답사문제로 전환되어 추진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가 책임지고 사업하던 기관의 부위원장을 몸소 전화로 찾으시여 답사사업을 잘 도와줄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을뿐아니라 어느 한 항일혁명투사를 통행시키

도록 하시고 신변안전과 교통을 넘려하시여 승용차를 가지고갈데 대하여서까지 세심한 배려를 돌리시었다.

그리하여 1961년 5~6월 두달기간에 걸쳐 혁명전적지답사의 은정어린 나날이 흘러갔으며 난생처음 백두산에도 올라 항일의 혁명정신을 가슴뿌듯이 안아보았던것이다.

하지만 그때에 체험한 그 정신, 그 기개를 그대로 쏟아 자기의 문학세계를 혁명문학의 최절정으로 끌어올릴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다.

이 얼마나 당과 혁명앞에 죄스러운 일인가!

내 이제 쓰러져 한줌의 흙이 된들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제를 기어이 수행함으로써 혁명문학의 숭고한 높이에 오르코야말리라. 백두의 절정에서 그의 심장은 이렇듯 승엄한 맹세로 고동쳤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을 훌륭히 형상한 첫 혁명소설로 출현하게 되었으며 그 출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대작창작의 출발을 알리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예사적사변으로 되었다.

우리는 해방후 리기영의 창작적발전을 장편소설 《땅》에서부터 《두만강》에로, 《두만강》에서부터 《력사의 새벽길》로 이어지는 영광에 찬상승선으로 표상하게 된다. 주체사실주의의 길에서 작가 리기영이 40여년을 오르코오른 이 줄기찬 상승선, 바로 그것은 위대하고 은혜로운 스승의 손길에 이끌려 나래를 편 끝없이 영광넘치고 행복한 창작적행로였다.

《민촌》에 비친 태양의 빛발은 또한 작가의 창작생활을 극진히 보살피주고 정치적생명을 굳건히 지켜준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이었다.

리기영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살피심은 친아버지도 따르지 못할 세심하고 뜨거운 은정의 바다였다. 오늘도 유가족들은 집문제로 하여 아버지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이야기를 두고두고 외운다. 처음에는 해방직후인 1946년 3월, 지방에서 살던 작가를 자신의 곁에 불러주시며 서재가 달린 여러칸짜리 주택을 마련해주시였고 정전직후 벽돌 한장이 귀하던 시기 석암저수지주변의 경치좋은곳에 창작실을 훌륭하게 지어주시였으며 또 그다음에는 식구가 많이 늘었음을 헤아리시여 다심한 사랑을 기울여 현대적인 1층짜리 문화주택을 건설하여 주시었다.

옛적에 한 명인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교양에 불리한 환경을 피하여 세번씩이나 집을 옮겼다는 《삼천》(세차레의 집을 옮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생활의 진리를 끌어내면서 어머니 역시 명인으로 후세에 자랑하고있다.

하지만 것처럼 준엄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년대들을 헤쳐나가시면서 나라의 수령되시는분이 한 작가를 위하여 40년세월 다심하게 집객정을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배려하셨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아직 있는적 없다.

해방후 줄곧 국가적직무를 맡고있는 작가에게 주되는 고충은 행정사업때문에 현실생활에 침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것이였다.

마침내 1955년 10월 한 모임석상에서 리기영은 아버지수령님께 자기도 현실체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응석부리듯 말씀을렸었다. 그의 마음속 생각을 헤아려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선뜻 적당한곳에 창작실을 하나 짓자고 말씀하시는것이 아닌가.

당황한 작가는 너무도 죄송스러워 새로 짓자면 자재와 자금이 들겠는데 자기는 어느 농촌집 한칸을 얻어 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구차스럽게 남의 집을 빌릴것이 있는가고 말씀하시고나서 즉시 곁에 있던 일군에게 적당한 곳을 택하여 집을 한채 지어주고 행정사업을 하는 한편 현실에 나가 체험을 하면서 좋은 글을 쓰도록 해드리라고 은정넘친 지시를 내리시였다.

석암저수지 주변의 훌륭한 창작실은 바로 이렇게 마련되였다.

창작실이 건설된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도 친히 이곳에 나오시여 그의 생활을 구성구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이렇듯 헤아릴수 없는 은정속에 안겨살았기에 그토록 행정실무에 바빠 지내면서도 작가는 장편소설 《땅》의 속편들과 다부작장편소설 《두만강》 등 방대한 량의 작품을 후세에 남길수 있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작가의 건강문제에 언제나 각별히 관심하시였다.

전반생이 다 지난 50대의 리기영을 품에 안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 후반생에 창작의 왕성기를 마련해주시려 건강문제에 특별히 마음쓰시였다.

작가가 세상을 떠난지 세해가 되여오는 1987년 봄, 아버지수령님께서 신미리에국렬사릉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리기영의 묘소앞에 이르시여 묘비에 새겨진 생애의 년대들을 보시면서 그는 생전에 술도 안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고정한 사람이였다고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작가의 장수를 그토록 대견히 여겨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으며 유가족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작가의 생전에 그를 만나실적마다 리선생님은 건강하셔야 된다는 진정에 넘치는 당부의 말씀들과 함께 그의 건강을 늘 세심히 보살펴주시던 일들이 눈에 삼삼 안겨와서였다.

해마다 설명절이 오면 세찬과 진귀한 꿩을 보내주시였고 어느해 여름에는 압록강가에서 손수 낚으신 물고기를 말리워 보내주시면서 건강을 바란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시였다. 예순때에는 선물과 장수축원의 인사를 함께 보내주시였으며 일흔뎡생일에는 푸른 로송나무에 한쌍의 흰학이 앉아있는 대형액트를 보내시면서 이 송학처럼 부디 장수하시기를 바란다는 은정깊은 말씀까지 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1960년 정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던 작가에게 병문안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외국출장때문에 곧 퇴원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회의에는 젊은 사람들을 보내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한 다음 퇴원하여 좋은글을 써야 한다고 거듭거듭 간곡히 당부하기도 하시였다.

흔히 동양의 작가들은 육체적조건때문에 나이들어 창작하기 힘들다고들 한다. 하지만 리기영이 《인생70고래회》(일흔까지 사는 사람은 예로부터 드물다는 말)라는 그 70도 20년을 넘겨 90까지 완강한 정신로동을 하여가며 많은 작품을 써낼수 있는것이 어찌 친부모가 준 육체의 덕이라하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 육친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높이에서 사랑의 빛발로 작가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살펴주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기쁨과 자랑을 담아 작가를 민족과 인류앞에 높이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이 사랑속에서 작가 리기영은 《**김일성상**》과 《**인민상**》을 비롯하여 가지가지 최상급의 국가적 표창을 다 받는 무상의 행복을 지녔었다.

지어 우리 나라에서 학위학직수여제도가 처음으로 제정되었을 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작가에게 첫 문학학사학위까지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학위로 말하면 과학적인 업적을 기본으로 수여하는것이여서 문학작품창작과 같은것에는 그 수여가 레외적인 현상으로 된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관례를 벗어나 작가인 리기영에게 문학분야의 첫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시였으니 표창이면 표창, 명예칭호이면 명예칭호, 그 모든것을 다 안겨준대도 모자랄것만 같으신 수령님의 그 사랑에는 정녕 끝도 한계도 없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무한대한 사랑은 작가 리기영을 온 세상에 당당히 내세워 자랑할 혁명적인 작가라는 확신에 기초한 드림없는것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1961년 3월 어느날 문예총 집행위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남의 나라에는 큰 작가가 많고 우리 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공청사업을 지도하실 때 로신의 작품 《아큐정전》을 보았는데 그것은 봉건을 반대했을뿐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리기영을 비롯한 선진적작가들의 작품

은 얼마나 고상한가, 다른 나라 작가만 내세우는 것은 민족허무주의이다, 우리 나라 작가들을 내세워야 하며 자기의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간곡히 깨우쳐주시었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새로 선거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내각성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력사적인 기념촬영을할 때였다.

촬영장소로 나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촬영대를 둘러보시다가 뒤에 서있는 리기영을 보시고 걸음을 멈추시었다.

그이께서는 로인을 뒤에 서게 하여서야 되겠는가고, 자신의 바로 옆자리를 가리키시면서 어서 나오시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주저하는 일군들에게 빨리 의자를 가져오라고 분부하시였으며 사양하는 작가를 끝내 자신의 곁자리에 앉히고서야 사진을 찍게 하시었다.

여느 기념사진도 아니고 국사와 관련한 사진, 공화국의 정치사에서 중대한 력사기록으로 남을 사진을 촬영하는 존엄높은 자리에서 이처럼 고귀한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심중에는 물론 로작가를 존대하시는 고상한 레의도덕의 세계가 넘쳐있는것이 사실이다. 허나 이와 함께 작가 리기영을 세상에 우리 민족을 자랑떨치는 귀중한 존재로 값높이 여기시는 그 남다른 신 마음이 자리잡고있는것이였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작가가 세계적인 판도에서 마음껏 기를 펴고 활동할수 있도록 언제나 마음쓰시며 보살피시었다.

1946년 8월 외국을 방문하는 첫 인민대표단이 무어졌을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작가 리기영을 그 단장으로 임명해주시고 친히 문수리비행장으로 배웅까지 나오시었다. 그이께서는 그에게 비행기가 얼마후면 떠나게 되는가를 문의하시였는데 시계를 갖고있지 못했던 그가 대답을 못거려자 그자리에서 자신이 갖고계시던 회중시계를 꺼내드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이 시계가 별로 좋은것은 못되지만 단장에게 시계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어서 받으라고 하시면서 사양하는 작가의 손에 굳이 그것을 쥐여주시었다. 수령님의 은정깊은 시계를 품에 안고 만리대공에 날아오른 그날 작가의 가슴에 일었던 그 걱정을 어찌 여기에 몇마디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작가의 사후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배려로 유가족들이 소중한 가보로대를 물려가는 그 회중시계는 수령님의 은정을 오늘도 만대에 길이 전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랑과 믿음속에 작가를 보살펴주시고 기쁨과 자랑으로 내세우셨을뿐아니라 그의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주시고 작품을 굳건히 지켜주시었다.

전후시기 당선전부문의 책임적지위에 있던자들은 혹심한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에 빠져 주체

를 잃고 지난 시기 진보적문학활동을 하여왔으며 해방후 당을 위해 충실히 일하고 있는 리기영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의 과거를 깎아내리려 하였으며 음으로 양으로 구박하려 들었다. 사태는 심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5년 13월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연설을 하시면서 리기영을 비롯한 **《카프》** 작가들의 지난시기활동과 업적을 주체의 경륜속에 안아 견결히 옹호하여주시었다.

당시 일부 불순분자들은 그때 변절자들이 있었기때문에 **《카프》**를 인정할수 없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 궤변을 격분에 넘쳐 단죄하시면서 그러면 리기영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우수한 프로레타리아작가들이 주요핵심으로 활약하던 **《카프》**가 무의미한 존재였단말인가, 우리는 **《카프》**의 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를 거부하고 무슨 밑천으로 혁명을 하겠는가, 이런것을 다 버리면 우리 인민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것으로 된다고 엄하게 질책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결론하시면서도 반당분자들의 **《주장》**에 거듭 타격을 가하시면서 물론 **《카프》**에 일부 변절자들이 있었지만 **《카프》** 자체는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한 진보적인 문예단체라고 강조하시었다.

참으로 **《카프》**의 진보성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거듭되는 교시는 사대와 허무의 나락으로부터 우리의 현대문학사를 구원하고 우리 혁명에서 주체확립의 전환적계기를 마련한 력사적선언이였다.

그리하여 리기영의 해방전문학은 조선혁명의 리익을 지키고 우리 인민의 요구를 구현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경륜에 안기여 튼튼히 보호되였다. 이 이상 더 힘있는 보호와 크나큰 영광이 또 어데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초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지던 시기 문학작품처리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리기영의 장편소설 **《두만강》**(3부)을 사랑의 품에 안아 극단한 좌경적경향으로부터도 견결히 보호하여주시었다.

당시 일부 일군들은 그가 쓴 장편소설들에 일련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장편소설 **《두만강》**을 회수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었다.

이러한 사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작가와 작품을 귀중히 여기고 아꼈데 대한 사랑의 교시를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이날 어떤 나라에서는 지식인과 그들의 작품을 마구 다루어 없애는 바람에 결국 무

인지경을 만들어놓았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었다.

이처럼 작가와 작품을 아끼시는 공산주의적 태도와 아량, 참다운 애국, 애족, 애민의 립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리기영의 작품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에 이룩된 문학적재부는 믿음직하게 보호되고 영원한 빛을 후세에 뿌릴수 있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신 작가, 수령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애정, 높이신 평가와 굳건한 보호속에서 혁명과 인민을 위해 한 뭉을 단단히 하여온 작가 리기영의 문학적 위치와 업적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시고 영원히 빛내여주시신분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었다. 1980년 10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대표구성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리기영의 이름이 명단에 없는것을 알아보시고 우리 당이 아끼는 작가, 일생을 창작에 바쳐온 작가인데 건강이 허락지 않아 설사 당대회장에 못나온다 해도 대회대표로서 선출하며 가정에서 텔레비존을 시청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해줄데 대한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1984년 8월 작가가 생을 마치게 되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못내 애석함을 금치 못하시며 그는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우리 나라의 문학 예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던 작가로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였다는 말씀을 주시어 리기영의 한생에 대해 내리실수 있는 가장 큰 평가를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작가의 애도와 장례행사에 국가적 성격을 부여하도록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였다는 말씀을 주시어 리기영의 한생에 대해 내리실수 있는 가장 큰 평가를 주시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작가 리기영에게 기울이신 사랑과 믿음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대한것이였다.

이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기지 못하였더라면 리기영의 작가적생명은 고작하여 《카프》문학의 계선에서 끝나버리고말았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떠나 주체사실주의작가로서의 리기영에 대하여, 그의 문학의 높이와 영원한 생명력에 대하여 결코 말할수 없다.

탁월한 령도자를 만나야 참다운 혁명적작가가 있는법이다. 자주위업에 대한 작가의 충실성을 굳게 믿고 참다운 사상과 미학, 극진한 믿음과 사랑으로 작가를 깨우쳐주며 이끌어주는 수령이 있어야 그품에서 참다운 혁명적작가가 태어날수 있으며 한생의 끝까지 혁명문학의 길을 드림없이 걸어나갈수 있는것이 아닌가.

혁명적작가로 한생을 영예롭게 살려면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하며 오직 한마음 지식과 재능을 바쳐 령도자에게 충성다해야 한다.

령도자와 작가의 호상관계에 관한 이 위대한 철학의 진리성, 영원불멸하는 생활력을 중시하는 자리에 리기영이 서있다. 바로 이때문에 그의 작가론이 이렇듯 우리에게 소중한것이다. 그의 작가론은 우리모두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더욱 깊이 새겨주는 생활의 생동한 교과서이다.

기나긴 한평생 언제나 우리 작가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모두를 주체문학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생애를 그리움에 넘쳐 회고하는 우리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러 이 세상 끝까지 따르고 또 따를 불같은 맹세가 용솟음쳐오고 있다.

영원한 태양을 우리러 바치는 충성 또한 만대에 다함이 없으리라!

추억의 탑

최성진

영웅조선의 존엄높은 모습이
불멸의 화신으로 여기 솟았다
수억만 인류의 심장을 격동시킨
승리의 만세소리 여기서 메아리친다

전화의 그날은 멀리 흘러갔어도
사람들이여, 길이 추억하라
청춘도 생명이 조국에 다 바친
이 나라 아들딸들의 피어린 군공을...

화강암헌시비에 새겨진 글자들은 붉은 노을속에
빛나고있었다. 저녁노을이 화강암헌시비를
기폭처럼 감싸안고있는것이였다.

고요가 깃들기 시작하는 저녁이였다. 참관자들은
의 걸음은 뜸해졌다. 하여 기념탑구내는 벌써 정
적에 싸였다. 가까운 살림집구회쪽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말소리, 기념탑앞
도로를 지나가는 무궤도전차의 소음만 아니였더
라면 한몫 육탄이 되어 적진으로 뛰어드는 인민
군용사들의 멸적의 웨침소리, 기관단총의 소리,
적함을 맞받아 돌진하는 어뢰정대의 기관소리며
가 상상속의 그것으로가 아니라 생동하는 현실로
느껴졌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역도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조선로
동당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끝났습니다.》**

여기는 전승기념탑이다. 바라보면 영웅전사들
의 불굴의 모습이 안겨와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
온 세대도 전후복구건설의 교향악을 들으며 성장
한 세대도 그리고 이자 방금 소년단벙타이를 맨
나어린 세대도 여기에 오면 생각이 많아진다.

나는 헌시비에 새겨진 비문의 한자한자를 다시
금 새겨보며 걸음을 옮기였다.

사람들이여, 추억하라... 매 세대의 추억은 어떤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1. 녀선생의 이야기

《애, 여기서 누가 주인공인가?》

《저야워 해군지휘관아저씨가 주인공이지 누구
겠니. 봐라, 지휘관아저씨가 지금 적함을 향해
앞으로 하고 웨치고있지 않니.》

《아니야,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기본이
아니야. 영화에서 봤지. 군대라면 누가 더 용감

한가가 기본이란말이야. 그러니 여기서 자폭을
하려고 포탄을 안고 서있는 저 해병아저씨가 주
인공이란 말이야!》

《아니야, 지휘관아저씨가 기본이야!》

인민학교 1학년생이나 되어보이는 두 소년이
해군군인들의 군상앞에서 싱갱이질을 하고있었다.
영웅성이라는것이 화려한 장미색으로만 채색되
기 쉬운 그런 연령기의 소년들에게 흔히 있을수
있는 싱갱이질이였다.

군상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라는 주제였다.
파도를 타고 넘어 어뢰정이 나아가고있었다. 그
들은 마지막 어뢰마저 적함을 향해 날려버렸다.
이제 남은것은 하나뿐이였다. 사랑하는 어뢰정과
함께 폭탄이 되어 기어이 적함을 까부시고야말
겠다는 결사의 각오뿐이였다. 앞에는 사나운 파
도, 그 너머에는 가증스러운 적함이 있었다...

《학생들, 여기서 뭘들해요?》

맑은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울리였다. 듣는 사
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젊은 녀자의 무척 아
름다운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청소도구를 든 처녀였다. 싱갱이질을
하는 아이들의 담임교원인것 같았다. 참관자들
의 기본대렬들이 떠나가자 기념탑주변을 청소하
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것이다.

방금전까지 싱갱이질을 하던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 사연을 말했다. 그애들은 선생님이 자기의
주장을 인정해주기를 저마다 바라는 눈치였다.

녀교원은 철없는 아이들의 말을 듣더니 가까이
에서 듣고있는 나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히였다.
그러더니 인차 정색해지며 해병들을 올려다보았
다. 무슨 말을 할가? 나는 그 녀선생이 과연 어
느 아이의 주장을 긍정해주겠는지 궁금해졌다.

《학생들, 저분들은 모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영웅들이예요.》

녀교원의 목소리는 조용히 울리였다. 주위가
더 조용해진듯했다. 철부지소년들의 눈동자가 녀
교원을 향해 빛나고있었다.

녀교원이 말했다.

《동무들은 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아저씨들이
어뢰정으로 적의 중순양함을 까부신 이야기를 들
었을거예요. 바로 저 해군아저씨들은 생명을 다
바쳐 조국의 바다를 지켜냈어요. 최고사령관동지
의 명령을 받들고 죽음도 두렵없이 싸운 그 정신
은 더없이 중요한것이고 학생들이 모두 따라배워
야 할거예요...》

용감한 해병이 기본이라고 하던 소년이 조금 우쭐해하는 기색이었다. 하긴 어린것들이 아직이야 어떻게 녀선생의 그 말을 다 이해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제 나이들어 청년기에 이르고 어른이 되면 다 이해할수 있으리라.

나는 그 녀교원이 훌륭하게 생각되었다.
《매일 여기에 나오군합니까?》하고 나는 물었다.

그들은 평양대보인민학교 학생들과 선생이었다. 녀교원은 매일저녁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기념탑주변을 깨끗이 쓸었다. 그러는 나날 아이들의 가슴속에 영웅전사들의 넋을 심어주었다.

《저의 아버지도 조국해방전쟁참가자랍니다.》 녀교원은 말했다.

《아버지는 지금도 자주 말하군한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전쟁세대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 세대들이 어떻게 성실했고 어떻게 깨끗한 량심을 지녔던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새 세대들이 그것을 잊으면 모든걸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사회주의도... 우리들의 생명도... 모든걸말이에요.》

녀교원은 더 말이 없었다. 그윽히 빛나는 두눈동자! 눈길은 적함을 향해 돌진하는 영웅해병들의 모습에 닿아있었다. 녀교원의 가슴속에서는 분명 뜨거운것이 타번지고 있었다. 나는 금시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운 세대들처럼 아이들을 억세게 키우려는 녀교원의 맹세의 속삭임이.

1. 영예군인부부의 이야기

호젓해진 기념탑구내길로 삼륜차가 굴러왔다. 삼륜차우에는 꽃다발을 든 영예군인이 타고있었다. 젊고 의젓하게 생긴 영예군인이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젊은 안해가 뒤에서 삼륜차를 밀었다.

영예군인부부들을 볼 때마다 사랑과 존경심을 느끼게 되지만 이날의 감정은 류다른것이였다. 그것을 무엇때문인가? 화려한 옷차림때문인가? 처녀시절이 금시 끝난듯 애뵈보이는 젊은 안해의 수줍어하는 웃음때문인가? 아니면 꽃다발을 안고 기념탑을 찾아오는 영예군인의 소행때문인가? 어쩐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싶었다. 삼륜차는 포병들의 군상앞에 이르러 멈춰섰다.

직사포를 고지예로 끌어올리는 영웅포병들의 군상이었다.

영예군인청년은 아름다운 안해의 도움을 받아가며 군상의 대돌우에 생화다발을 얹어놓았다. 《영예군인부부지요?》 나는 다가가며 말을 걸었다.

영예군인의 안해는 그러지 않아도 부끄러워하던 얼굴이 더욱 빨강게 익어버렸다. 한송이의 붉게 익은 딸기를 보는것만 같았다.

영예군인이 사람좋은 인상을 지어보이며 그렇다고 친숙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놓아준 생화다발을 보면서 물었다.

《아버지가 전쟁때 포병이었소?》

청년은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제자신이 포병으로 복무했습니까.》

《아, 그렇구만. 언제 결혼했습니까?》

영예군인의 안해는 더욱 부끄러워했다.

《오늘이 저희들의 결혼식날입니다.》하고 영예군인이 또 대답했다.

나는 그제야 애뵈보이는 젊은 안해가 류별나게 부끄러워하는 까닭을 알았다.

《신혼부부로구만! 옛 포병들의 축복을 받으러 여기에 왔단말이지. 그건 좋은 일이지.》

영예군인청년은 영웅포병들을 둘러다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부끄럽습니다.》이윽하여 청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영웅포병동지들은 우리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위하여 피흘려 싸웠지요. 위훈많은 저분들의 세대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일없이 영예군인이 되어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과 배려만 받고있지 않습니까.》

그는 또 침묵했다. 눈길은 여전히 영웅포병들의 군상에 닿아있었다. 직사포를 고지예로! 병사들이 가파로운 고지우로 포를 끌어올리고있다. 한 전사는 미끄러지는 포바퀴아래에 한몸을 들이밀고있다...

나는 눈굽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나는 목이 꺾 메여 가까스로 말했다.

《동문 지금도 포병시절에 살고있구만! 아니 동문 부끄럽지 않게 살고있소! 피흘린 세대를 잊지 않고 그들의 삶에 자신을 비추어보지 않소. 시대를 자각하는 인간들만이 그렇게 할수 있지.》 붉은 노을은 한쌍의 아름다운 부부를 감쌌다.

피흘린 세대의 넋의 축복인양. 오, 조국이며,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라.

3. 젊은 상위의 이야기

《차렷!》

고요가 깃들기 시작하는 기념탑구내에 때아닌 구령소리가 울리었다.

1211고지방위자들의 군상앞, 내뒤로 들어온 군인들이 거기에 정렬하여섰다. 지휘관인 상위가 군상을 향하여 거수경례를 올리었다. 나는 쉬엿 명령이 내리자 거기로 다가가 상위를 만났다.

《우린 모두 1211고지에서 왔지요.》상위가 말했다.

《아, 1211고지에서요?!》 나역시 반색의 소리를 질렀다. 1211고지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조국의 고지인데 얼마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곳

전연고지를 현지도하셨다는것이 문득 생각났기때문이었다.

상위가 말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1211고지를 시찰하시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피흘려 싸운 격전터들도 보아주시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위훈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처럼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울줄 아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여기 평양에 오니 우리 장군님께서 언제나 잊지 못하시는 1211고지 영웅방위자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서있는 이 기념탑을 그냥 지나갈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1211고지 수호자들, 아직은 포화에 찌들지 않은 새 군복차림에 번쩍이는 군화를 받쳐신은 인민군전사들앞에 영웅방위자들은 그날의 모습으로 서있다. 팔다리를 부상당한 전사는 수류탄을 입에 물고 육탄이 되어 적진으로 굴러내릴 결사의 각오로 불타고있다. 두팔을 부상당한 전사는 턱으로 중기의 압철을 누르는데 방순너머로 적을 쏘아보는 두는동자에 황황 불이 일고있다. 중기주변에 수북히 쌓여가는 탄피의 수는 그대로 쏘아죽인 원수의 수자가 아닌가!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 주지 말라!》고 바위우에 글발을 새기던 전사들이 고지로 올라오는 적의 무리를 맞받아 백병전으로 나아가고있다.

나는 포도우를 울리는 군화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다. 붉은 저녁노을이 깔린 기념탑구내, 아치형의 기념탑정문으로 군인들의 대오가 가고있었다. 그들이 울리는 힘찬 군화소리, 군화소리! 1211고지 군인들이 기념탑을 떠나가는것이였다. 영웅방위자들의 불굴의 정신을 받아안고 최전연초소로 가고있는것이였다.

4. 로병의 이야기

락동강도하전투를 형상한 군상앞에 머리흰 로병이 서있었다. 로병은 묵묵히 영웅전사들을 바라 보며 굳어져있었다. 꼭 다문 두툼하고 시꺼먼 입술, 찢지 않은 인생길에 새겨진 이마우의 주름살들, 바람에 가벼이 날리는 흰 머리칼들만 아니라면 그 역시 군상의 한부분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갑자기 로병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였다. 못잊을 옛 전우들을 추억하는가? 희생된 전우의 모습이 떠오르는것인가?

《전쟁때말이요.》로병이 말했다. 《락동강에서 술한 우리 사람들이 희생되였소. 작가동무도 락동강이 피빛이 되어 흘렀다는 말을 들었겠지요? 그건 전쟁사자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요. 그건 사실이였소. 지금도 난 그때를 잊을수가 없소. 고향이 평양인 나의 한 전우는 락동강을 도하하

가 적탄에 치명상을 입은채 물속에 떨어졌소. 나 무때가 포탄에 부서져나가는통에 그렇게 되였소.

전우들이 그를 구원하러 다가갈 때 그는 <나를 생각하지 말라! 빨리 교두보를... 교두보를...> 하고 물속에 가라앉았소. 자기 한몸보다 전투임무의 중요성을 더 먼저 생각했던거요. 우리 전우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였소...》

영웅전사들의 군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뜨거운것이 어려있었다.

탄우속을 뚫고 락동강의 물결우를 떠가는 통나무뚝, 그우에서 중기사수는 대안의 적들을 향해 불을 토하고있다. 거기 락동강물속에 영영 가라앉은 로병의 옛전우, 평양내기 전사가 아닌가!

승리를 위해 희생되였다는 로병의 이야기가 귀전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승리를 위하여... 오, 승리란 무엇인가?

5. 대답

나는 기념탑구내의 중심길이에 거연히 서있는 승리상을 찾았다. 승리의 상징인 영웅전사의 모습은 붉은 노을이 비낀 조국의 하늘을 배경으로 솟았다. 만세높이 나아가는 전사의 모습, 창공을 향해 기관단총을 쳐든 전사의 온몸엔 피줄이 살아뛰는것만 같다

전사의 등너머에서는 비웃자락이 기폭처럼 날리고있다. 저 전사의 비웃우에 얼마나 많은 철의 우박이 쏟아져내렸으랴. 포연은 얼마나 배여있으랴. 얼마나 많은 싸움터마다에 저 방수포자락을 날리었으랴. 승리의 기발처럼, 기발처럼...

나는 다시 기념탑구내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한몸 육탄이 되어 영웅전사들은 싸우고있었다. 팔다리를 잃은 전사는 여전히 수류탄을 입에 물고 놓지 않고있으며 중기사수는 턱으로 중기의 압철을 누르고있었다. 어뢰정 51호는 여전히 적함을 향해 돌진하고 월미도의 영웅중대장은 《쫘!》 구령을 내리고있었다.

어딘가 멀리에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뜨거운 목소리가 울려왔다.

《승리란 무엇이겠나? 그건 자기의 수령을 위하여 이 땅의 수많은 전사들이 피로써 이룩한 귀중한 전취물이지. 우리 당의 백전백승도 영웅전사들과 영웅적인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하나하나의 승리에서 오는것이 아니겠나.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린 청춘을 아낌없이 바쳤고 오늘도 수많은 전사들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육탄정신으로 살고있는것이 아니겠나!》

그것은 오늘도 영생하는 사람들, 혁명을 위하여 희생된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이였다.

청춘시절과의 상봉

정영종

1

그날 내가 집으로 돌아온것은 새벽녘이었다. 대학졸업송별모임이 있었던것이다. 무슨 이야기들 벌어지지 않았으랴. 더욱 부강할 내 나라, 내 조국의 래일이며 기사로서의 과학적성공, 생활과 사랑, 가정. ... 한마디로 무한히 광활하고 신비로운 미래와의 첫 상봉인셈이었다.

피괴한 방안에 들어선 다음에도 나의 머리는 그 행복한 《상봉》의 여운으로 휘— 내돌리었다. 그러다보니 아버지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인차 가려보지 못했었다.

(아마! 우리 부공장동지가 또 일감을 집안에 잔뜩 끌어들이신게지.)

아닐세라 빠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는 책장우에 희긋희긋 쉰 머리를 수긋한채 옛 기관사시절처럼 묵직히 앉아 무언가 골똘히 들여다보고있었다. 책장들이 누르끼레한것으로 보아 오래된 서류같았다. 내가 등뒤까지 다가가서야 아버지는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두눈은 그 퇴색한 종이장속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듯 흐릿했다.

《호, 여태 안주무시고 뭘하세요?》

《어— 문옥이나.》

비로소 아버지의 얼굴에 느슨한 웃음이 피었다.

《널 기다렸지. 그래 실컷들 놀았니?》

《우리가 송별모임한걸 아셨어요?》

《알지, 네가 최우등한거랑 연구소에서 담화한거랑... 허허, 어쨌든 졸업을 축하한다!》

아버지는 서류철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워보였다. 지어 내눈과 마주치기를 저어하는듯한 이상한 느낌조차 들었다. 나는 은근히 속이 썩기였다.

(혹시 《그 일》까지 아시는게 아닐가?...)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접했을 때 나는 심한 가책에 휩싸였었다. 몇해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방의 어느 화학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폐수를 효과적으로 리용처리할데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연구과제로 삼긴 했으나 학업을 구실로 여태 손조차 못댄것이었다. 새롭게 결심을 가다듬은 나는 방학기간 그 공장에서 지내면서 마침내 폐수로 수입원료를 전혀 쓰지 않는 우리 식 날염제를 뽑을것을 착안해였고 지금껏 그 연구를 심화시켜왔다. 대학졸업은 나에게 현지에 다 그 생산공정을 꾸릴 결심까지 가지게 만들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

시를 새 세대기사인 바로 내가 앞장서 관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 연구소를 마다하고 그 공장을 배치지로 선택했던것이다.

집에는 아직 비밀로 붙였다. 딸의 의사라면 늘 리해하고 존중해온 아버지였지만 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슬하의 유일한 자식인 나를 멀리 떠나보내고 늙은 내외만이 땡그라니 남아 외로움을 벗삼자고 선뜻 나설가?

그런데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뜻밖의 소리였다.

《문옥아, 아버지진 오늘... 년로보장을 받았구나.》 《예?!》

나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공로 많고 노련한 철도일군을 어째서?... 내 얼굴에 얼마나 짙은 당혹과 애원의 빛이 떠올랐던지 아버지는 공연히 군기침을 낚았다.

《그래 너도 졸업이고 나두 졸업이다. 나이가 있잖니 어쨌든 의미심장한 일치인셈인지. 아무쪼록 잘해다오. 네 나이때를 왜들 부러워하는지 그걸 잊지 말구. 나두... 네가 부럽구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왜서인지 눈물이 쿵 솟았다. 그래서 이리 심란해하셨던걸.

그랬던걸!

아버지는 껄껄 웃었다.

《됐다. 다 큰 처녀라는게. 그래 너의 그<로보트>기사는 기뻐하더냐?》

이를 어찌나?!... 나는 혀를 깨물었다. <로보트 기사>란 내가 졸업하기만 하면 술개미처럼 덮쳐가려고 노리고있는 Z무역회사의 청년이었다. 물론 재능과 열정을 겸비한 그를 나역시 은근히 마음에 두고있다. 그런데 그만 내 결심을 비취볼 생각을 못했다. 혹시 아버지보다도 그가 더 나의 발목을 잡으려 하지는 않을런지...아니, 아니, 언젠가 그 동문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내 인생에는 두가지 승리가 있어야 하오 하나는 지능로보트이고 다른 하나는 동무의 사랑이요.》

마음에 두루 복잡하실 아버지를 위로할겸 나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 동문 내게 훌쩍 반해있어요. 그러니깐 ... 난 기관차이고 그 동문 방통이야요.》

말해놓고보니 지방으로 진출하려는 내 속심을 드러내놓은것 같아 나는 호호 하고 웃음으로 얼무렸다. 다행히 아버지는 별다른 기미를 못느낀

듯 혀를 찼다. 《원, 대학까지 나왔으면 말도 좀 고상해야지. 넌 누굴 닮아 그리 팔랭이냐?》

《아버지가 그걸 바라셨지요.》

《저런 얌전하게 놀라고 남녔 육한 내가?》

《어쨌든 아버지의 눈은 달리 말해오셨어요.》

《허허허...》

창밀으로 새날의 첫 무궤도전차가 지나가며 펄펄 불꽃방전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놀란듯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움쭉 일어섰다.

《이건 ...네 젊었을때 일기장이다. 부끄러운게 많기는 하지만... 보아라 그다음 얘기를 해보자. 진지하게 말이다.》

아버지는 나갔다. 웅-웅- 하는 전차들의 동음이 점점 더 자주 창을 흔들기 시작했다. 나의 가슴도 격동으로 뒤흔들렸다. 언젠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새파란 종각시절부터 매일밤 일기를 썼다는 소리를 들은때로부터 문득 타는듯한 호기심을 촉발시키던, 바로 그 일기장이 내 손에 들어온것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2

잠자리에 누운 나의 눈앞에는 한 처녀가 육박해왔다.

일기장의 갈피속에 40여년간이나 깊이 숨어있던 눈이 커다란 쌍태머리처녀이다.

아름다운가? 잘 모르겠다. 다만 누렇게 변한 사진속에서일망정 티없이 활짝 웃는 그 얼굴이 다음 세대의 대표자인 내앞에서도 꺼릴것이 전혀 없다는듯한 자신만만하고 지어 오연한 표정이라는것, 그때문에 강한 인상을 준다는것이다.

줄음을 밀어내며 먼 기적소리가 울려온다. 기관차화실의 후끈한 열기조차 느껴진다. 살펴보니... 사진속의 그 처녀를 찾아 옛시절의 아버지가 몰아가는 기관차이다. 기관차는 맹렬히 달린다. 연통으로 내뿜을 무덕무덕 뿜으며, 아득히 흘러가버린 과거를 따라잡으며!...

...불의에 달려든 적야간습격기의 공습, 하늘에 연줄연줄 매달리던 조명탄, 시창을 박산내며 뒹뒹 날아들던 파편의 회오리... 그속에서도 기관사로 갓 임명된 봉섭은 열차를 숨씨있게 뿜아 목적지인 쌍암추도역에 들여세웠다. 화실의 열기와 폭풍에 온몸이 팍투성이가 된 조사들은 신임기관사의 성공적인 첫 승무를 제일처럼 기뻐하며 떠들썩 축하해주었다.

그러나... 봉섭은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다.

(어디쯤일가, 태룡기관사의 처가집은?...)

차정비를 하면서도 그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푸릿한 새벽빛에 조으는 바다가마을쪽을 더듬었다. 태룡기관사! 자기를 기관사로 키워준 엄격하고 친밀한 스승, 그는 지금 없다. 한주일전 전신

가까운 간이역에서 시한탄을 안아내고 희생된것이었다.

숨지면서 그는 봉섭에게 이런 말을 남겼었다.

《기관구장의 동의를 얻었네. 곧 기관사로 임명될거야. 잘해보게. 그리구... 기관실에 책꾸레미가 있는데 우리 처제에게 전해주게나. 언제부터 부탁하던건데... 쌍암 수산합작사에 다니지...》

하여 그는 왔다. 그러나 이제 초면의 처녀앞에서 무엇부터 말하며 어떻게 위로한단말인가?

마침내 조사들을 휴식시키고 혼자 역구내를 빠져나온 봉섭은 바다가로 나갔다. 피로운 상면에 앞서 뒤숭숭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것이였다.

함포사격에 군데군데 짓이겨진 방풍림을 지나니 검푸른 새벽바다가 펼쳐졌다. 잠을 깬 바다는 심호흡하듯 천천히 꿈틀거리고있었다. 그때마다 일매질 하얀 물이랑이 부그그 끊어번지며 기슭으로 달려오군했다. 밤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마선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봉섭의 시선을 유난히 끈것은 해안가까이에 허리를 물에 잠그고 나란히 솟은 크고작은 두 바위였다. 그것은 꼭 쫓고쫓기우는 두 술래잡이군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저게 태룡기관사가 들려준 술부라는 나무군총각과 어령이란 해녀가 굳어졌다든 쌍암이구나!)

《쌍암》이란 두마디는 그를 다시 시름겨운 생각으로 되돌려세웠다. 봉섭은 모래볼에 펄쩍 주저앉았다. 그다음 발밑에서 반짝이는 조가비들을 무의식적으로 주어모으기 시작했다. 유구한 세월 파도에 씻기고 해풍에 다듬어진 무지개빛 조가비와 골뱅이들, 혹시 이것들이 쌍암전설의 목격자들은 아니겠는지...

갑자기 지척에서 와- 웃음이 터졌다. 봉섭은 편쪽 정신이 들었다. 홀수선이 푹 잠기게 미역을 높이 실은 전마선이 바로 코앞 모래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대여섯 잘되는 처녀들이 그우에서 입을 싸쥐고 자기쪽을 흘끔거리는것이였다. 한결같이 몸이 실하고 별에 감실감실 탄 얼굴이 둥그런 처녀들이였다. 봉섭은 당황해났다. 기관사와장을 낀 덩지 큰 사내가 감상적인 소녀애모양 조가비주이를 한다고 쪼고까불었을것이다.

뒤전에서 노닐하던 키가 늘씬한 쌍태머리처녀가 기슭에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바줄!-》

배전에 사렸던 바줄이 뽕-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다. 쌍태머리는 숨씨있게 그것을 잡자 몸을 젖히고 배를 모래볼로 끌기 시작했다. 기슭에서 어리광치던 하얀 파도가 그의 걸어올린 종아리를 휘감으며 거품을 일쿠었다.

봉섭은 창피를 면할 생각으로 성큼 쌍태머리앞으로 다가갔다.

《인주시오. 내가 끌지요.》

처녀는 어째서인지 어깨를 흠칠 떨더니 천천히 허리를 펴며 돌아섰다. 얼굴 절반을 채운것 같은 커다란 눈이 한동안 까딱않고 봉섭을 쳐다보았다.

《정말 해보겠어요?》 마침내 처녀가 속삭였다.

《털차를 끌 때처럼 숨씨를 보이겠다는거지요. 좋아요!》

마감말은 벌써 웃음기를 머금은 듯처럼 울렸다. 누군가 키득거렸다. 봉섭은 말없이 바줄을 넘겨받았다.

이상하게도 쌍태머리의 눈매가 자꾸 시선을 끌었다.

(저런 큰 눈을 어디서 본것 같은데?!...)

배는 생각처럼 쉽게 끌리지 않았다. 잠간사이 봉섭은 정갱이까지 바다물에 흠뻑 젖고말았다. 쌍태머리처녀는 호호 웃었다.

《기관사로는 어쩔지 배군은 못되겠어요!》

봉섭은 깜짝 놀랐다. 처녀가 사내들처럼 한번 응!— 용을 쓰자 물속에 무겁게 잠겼던 배가 단번에 훌쩍 모래불에 올라앉았던것이다. 파도를 때 맞추 리용했겠다는 추측은 그후에야 떠올랐다.

《얘들아 <까마귀>들이 오기전에 빨리!》

쌍태머리가 구령을 쳤다. 처녀들은 불이 번쩍 나게 미역을 부리는 족족 모래불에 묻기 시작했다. 다급하면서도 정확히 맞물려돌아가는 그들의 손돌림은 마치 흥겨운 노래가락처럼 틀동적이었다. 그 노래가락의 선창자는 쌍태머리처녀였다.

뒤전으로 밀려난 봉섭은 계면책은 생각도 잊고 엉겨주춤 굳어졌다. 어쩌면 저 처녀가 《그》일지도 몰라?!...

그 잘나 쌍태머리가 허리를 폈다. 봉섭은 미처 눈길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처녀의 커다란 눈이 일순 장난기 어린 미소로 반짝했다.

《호, 왜 그렇게 뚫어지게 봐요?》 처녀기 유쾌하게 웨쳤다. 《얘들아, 이 기관사총각을 좀 봐. 나한테서 눈을 못떼는걸.》

처녀는 자못 진지하게 봉섭을 마주 보았다.

《어때요, 내가 맘에 들었어요. 예?!》

이크 이런 도깨비같은 팔랭이!... 기겁한 봉섭은 뒤걸음질쳤다. 그의 입에서는 제 귀에도 매우 어리석게 들리는 변명이 절로 튀어나왔다.

《무슨 소릴 그렇게... 난 바다일이 흥미있어서... 정말이요!》

까르르 웃음이 터져올랐다. 이번 처녀는 모래불에 데굴데굴 굴기까지 했다. 쌍태머리도 허리를 부여잡고 돌아갔다.

《됐어요, 기관사동무. 그만 퇴행하랴요!》

봉섭이가 자신을 수습한것은 그때였다. 철도용어를 어렵지 않게 번지는 이 처녀, 그렇다. 전쟁전태룡기관사를 찾아 기관구에 나타났던 쉼라복차림의 고종녀학생이 바로 저녀이었다.

뜨거운것이 목구멍에서 울컥 치밀어올랐다. 봉섭은 사납게 얼굴을 찌프리고 쌍태머리를 노려보았다.

《동무가...— 태룡기관사 처제지요? 그렇지요?! 태룡동진 잘못했는데 동문...》

핵 돌아선 봉섭은 모래불에 덩구는 책꾸레미를 집어들자 처녀를 보지도 않고 내밀었다.

《받으시오!》

봉섭은 모래불을 마구 걷어차며 걸었다. 몸이 슬취한것처럼 비틀거려졌다. 난 왜 그렇게 성을 냈을까? 처녀가 모를수도 있지 않는가. 이제라도 좇아오면!...

처녀는 따라오지 않았다. 승무원대기실에 누운 봉섭은 오래동안 뒤척거렸다...

밤 아홉시, 드디어 출발지령이 내렸다. 역무실에서 그 지령을 받은 봉섭은 기관차로 향했다. 어째서인지 마음이 허전해났다. 먼 전장의 메아리처럼 우르르- 팡! 하는 밤바다소리가 그의 신경을 애달프게 굵었다.

차굴입구에 거의 이르렀을 때 희끗한 사람형체가 소리없이 몸을 막아섰다.

《떠나세요? 기관사동무!》

봉섭은 심장이 흠칫 떨렸다. 쌍태머리처녀다!... 비로소 봉섭은 자기가 이 하루 내내 그를 생각하였다는것을 깨닫고 놀랐다. 그러나 정작 입을 열자 목소리는 자기의 의사와는 달리 사뭇 랭답하게 울렸다.

《왜 왔소? 빨리 말하오. 난 시간이 없소.》

처녀는 말없이 봉섭을 건너다보았다. 어둠속에서도 커다란 두눈이 어글어글 빛나고있었다.

《낮에 전 우리 집 사진첩에서 아저씨하고 같이 찍은 동무사진을 찾아냈어요. 동문 선생님앞에 별 반는 학생처럼 두손을 옆구리에 딱 붙이고 꽃꽂이서있더군요. 그래 전 동무가 ... 참 좋은 동무였구나하고 믿어졌어요 ... 성났어요, 봉섭동무?》

《...》

처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목소리가 별안간 흐느낌처럼 떨렸다. 《우리 아저씨 절 ... 몹시 사랑했어요, 팔랭이라고 놀려대면서도...그걸 좋아했지요. 그래서 제가 더...웃으려 한거예요. 눈물을 짜고 한숨이나 쉬고 있으면 아저씨를 더 욱되게 할것 같아서...더구나 반장인 제가 우울해지면 모두가 사기를 잃을가봐 여태 숨겨왔었는데... 동무가 공개해버렸군요.》

봉섭은 슬며시 눈길을 피했다. 그랬었구나. 그런것도 모르고 난 처녀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구나!

차굴안에서 호각소리가 울렸다. 뒤미처 한줄기 상호등불빛이 레루에 반사되어 번쩍거렸다.

처녀는 놀래여 머리를 흔들더니 가슴에 안았던 자그마한 보통이를 주저주저 내밀었다.

《이건 바다특산물이에요. 맛이나 보세요.》

《아니, 이러지 마오.》

《됐어요. 동문 내게 귀한 책을 가져왔는데 전 요즘 선장공부를 하고있답니다. 전선에 나간 남동생들을 대신해야지요. 아저씨하고 경쟁하자고 약속했었는데 ...》

처녀는 말끝을 흐렸으나 곧 활기있게 뒤를 이었다. 《어때요. 아저씨를 대신해서 저하고 경쟁하잖겠어요?》

봉섭은 바다가에서처럼 흥겨운 불꽃이 튀기는 처녀의 눈빛을 다시 보게 되었다. 마음이 절로 혼 혼해났다.

《까짓거, 그럼시다!》

《그럼 우리 통성하자요.》

《내 이름은 벌써 알더구만, 그러니...》

《춘금, 리춘금이예요!》

둘은 전우답게 굳게 손을 마주잡았다.

기관차가 해안굽인돌이를 지날때 봉섭은 어둠에 묻힌 바다에서 깜박이는 작은 불빛을 보았다. 밤고기잡이에 나선 춘금이네 전마선일까? 아니, 파도처럼 영악스러워보이던 그 처녀의 어글어글한 눈동자이리라.

봉섭의 귀전에서는 고르로운 차륜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 소리는 춘금의 목소리로 끊임없이 속삭이는것이였다.

《어때요. 내가 맘에 들었어요, 예?!》

3

아버지의 일기는 계속되였다.

첫 편지를 받았다. 너자답게 동글동글한 고운 글씨나 그 어투는 전혀 달랐다.

《수고해요.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보면서 전합니다. 어제 처음 기관선을 몰아보았음. 분하게도 불합격. 첫 경쟁은 제가 진셈임. 축하해요. 하지만 우쭐하진 마세요. 안녕! 춘금.》

편지라기보다 긴 전보다. 내 안부를 묻지 않은 건 답장에 써보내라는 요구일것이다. 좋다. 오늘 밤 드디어 전선승무에 나가니 본때를 보이고 쓰자.

놈들이 기관구를 쏜 나흘째 폭격했다. 전선과 후방에 대한 <절단작전>이라고 한다. 여러 회선의 철길이 끊어지고 급수탑도 날아났다. 돌격작업으로 어제야 겨우 복구했다. 그길로 전선에 나갔었다. 탄약을 싣고왔다고 어찌나 기뻐들 하던지, 기관사의 공지가 이렇게도 큰것인가!

우리 렬차편선에 낙지방통이 들었다. 전지로 꼬리표를 비쳐보니 <신포수산>이다. 웬일일까. 마음이 허우룩해지니말이다.

(일기장에 붙여놓은 쌍태머리의 편지)

《...어제 우리 작업반 두 처녀가 희생되였어요. 낙지잡이를 하다가 함포사격을 맞았던거예요. 수옥인 글씨 숨지면서도 절더러 노래를 부르라더

군요. <에헹 에헹 배 띄워라 전선에 보낼 고기를 잡잔다> 하는 노래를 말어요. 낚시줄을 꼭 움켜잡은채 눈도 못감은 그애앞에서 우린 복수를 맹세했어요. 그길로 낙지잡이등을 다시 켜어요. 놈들의 목표가 되는줄 알면서도!

봉섭동무, 정식 경쟁을 호소해요. 전 오늘 선장 자격을 받았답니다.》

한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잠을 자본 기억도 없다. 군수물자수송량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기관차 대수는 줄어드니 (엇그제 또 한대가 폭격에 깨어졌다.) 두릅배기 세릅배기가 보통이다.

춘금이라도 그렇게 바쁜게지. 그래서 요즘엔 편지도 없는가보다.

내 얼굴이 말이 아니라며 태룡동지 아주머니가 어제 자기 집으로 잡아끌었다. 성의껏 차린 음식상이 목을 메게 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태룡동지뭇까지 힘껏 싸우겠습니다!

사진첩을 구경하다가 춘금의 고종시절 사진을 발견했다. 오래동안 눈을 못뗀던것 같다. 그 집을 나왔을 때 나는 소스라쳤다. 내손에 문제의 그사진이 쥐여져있지 않는가. 이크, 이게 언제 어떻게?... 가슴이 활랑기려 도적놈처럼 황황히 출행량을 놓았다.

머칠후 봉섭은 특별임무를 받았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전선동부의 적들을 호되게 짓밟 겔 큰 작전을 펴시었는데 그 군수품수송을 위해 기관구에 보충되는 기관차들을 시급히 인수해 오라는것이였다.

봉섭은 가슴이 뛰었다. 얼마나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임무인가.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작전을 다름아닌 내가 직접 떠맡들게 되었으니. 나의 결심으로!

봉섭의 완강한 제기로 기관구에서는 지금껏 야간운행만을 해오던 전례를 깨고 렬차 하나를 대낮에 출발시켰다. 경애하는 최고시령관동지의 명령은 위험하다 해도, 실사 목숨을 바친다 해도 단 한순간의 지체도 있을수 없으며 오직 제때에 무조건 수행하는 길만이 있을뿐인것이다.

예전대로 렬차는 적기들과 함포사격의 끈질긴 시달림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에는 역도 아닌곳에서 아주 멋어버렸다. 렬차 앞 로반에 기관차대자리 하나를 삼킬만한 폭탄구멍이가 아가리를 썩 벌린것이었다. <제길, 장밤 씨름해두 바쁘겐군.》

기관사가 봉섭을 돌아보며 랑패스러운듯 신음소리를 쳤다. 그때 질통을 지고 지나치던 애된 처녀가 발썩 웃으며 끼어들었다.

《렬차는 인차 통과할거예요. 두시간안으로! 산도리를 쌓고 그우에 레루를 척 놓거든요.》

그러던 처녀의 눈이 둥그래졌다.

《아이, 봉섭기관사동지 아니세요?》

《오!...》

《절때 바다가에서... 아, 우리 선장언니한테 편지를 보내군하잖나요. 그걸 우린 늘 공개독보하는데!》

《그럼 춘금동무의 배에?!...》

《맛았어요!》

처녀는 반가와서 툭툭 뛰었다. 봉섭은 절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바다처녀들이 복구를 도우러 나왔을 땐 쌍암이 지척이란 소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춘금이도?!... 얼결에 사위를 둘러보는데 그 눈치를 챈 처녀는 금시 시무룩해서 중얼거렸다.

《저... 우리 선장언니 못나왔어요. 함포사격에 그만 팔을 상했거든요. 피를 너무 흘려 의식까지 잃고 하마트면 큰일날뻔했어요.》

《뭐-요?!》

가슴을 떠박지르는 둔중한 아픔에 봉섭은 한동안 돌미륵처럼 굳어졌다. 다음순간 그는 기관사의 어깨를 왓살스레 움켜잡았다.

《복구에 두시간이 걸린다고 했지요? 예?!》

《?!...》

《기다려주우. 그전으로 내 꼭 돌아오겠소.》

기관사의 덩돌해진 눈길? 의식 못하면서 그는 내달렸다. 판자노리를 툭툭 치받는 뜨거운 피의 분류가 걸음마다 소리쳐댔다. 《부상!》, 《큰일!》... 어째서 아직까지 의식을 못차리고있는가. 어째서?...

십리가까운 길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의 발길을 멈춘것은 사위여가는 노을속에 우뚝 솟은 낮익은 두 바위였다.

그 밑에는 거대한 발동선 한척이 파도에 조용히 흥떡이고있었다.

(저게 혹시 춘금이 몰던 배가 아닐까?)

저릿한 아픔이 가슴을 누벼갔다. 비로소 봉섭은 자기가 덤벼치다나니 춘금이 언제 상했는지, 지금 집에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조차 알아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후- 한숨을 내쉬고 지척지척 배앞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머리우에서 침착한 여자목소리가 울렸다.

《올라와요. 저쪽에 잔교가 있어요.》

흠칠 고개를 든 봉섭은 선미끝에 그린듯 서있는 쌍태머리의 형체를 가려보았다.

《동무가?!...》

꿈속처럼 허둥지둥 걸음을 내질었다. 발밑에서 판자로 립시 만든 잔교가 삐걱거렸다.

춘금은 갑판우에 마주 서자 왼손을 내밀었다.

《미안해요. 손이 어지러워서... 먼발치에서부터 동문줄 짐작했어요. 철길복구장에서 왔겠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스름속에서도 처녀의 눈이 더 커진게 알렸다. 생각났인지 목소리마저 별로 힘없이 가날프게 들렸다.

《난 다 알고왔소. 어찌된 일이지?》

《뭘 그래요?》

《판전피우지 마오.》

《아- 오른팔에 찰과상, 이미 완치됨. 보다싶이 첫 출어를 준비함! 이젠 맘이 놓여요?》

호호 웃고난 처녀는 봉섭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아까부터 묻고싶었는데... 기관차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반갑다는 소리 끝내 없구나...)

봉섭은 배전에 맥없이 기대었다. 생각하면 돌부리를 걸어차며 미친듯 달려온 일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한것인가.

《난 승무중이 아니요.》 봉섭은 습습히 내뱉었다. 《출장을 가뻤소. 중요한 임무를 받았지. 헌데 차길이 끊어졌구... 동무 소식도 듣게 되었소.》

춘금은 잠자코 있었다. 어둠에 묻힌 긴 해안을 우르르- 짱 두드리고는 쉼- 물러가고 그리고는 다시 합성을 지르며 돌격하는, 태고적부터 불려오는 파도의 영원한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듯했다. 어딘가 초연한 모습이였다.

이윽고 처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쌍암전설을 들어본적이 있어요?》

《?!...》

《술부와 어령에 대한 이야기... 저 바위예요.》

봉섭은 처녀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태룡기관사로부터 들었던 전설내용이 피땀 머리를 스치자 춘금의 의도가 한순간에 명백해진것이였다.

...도끼 하나로 가난한 마을사람들 모두가 들어가 살수 있는, 암만 파내도 마르지 않는 쌀독과 비단케가 갖춰진 신비한 집을 짓던 술부가 하루는 어령이라는 미모의 해녀에게 반해버렸다. 그는 1년 안팎이면 끝낼수 있는 그 일감을 중도에서 철회리고 매일같이 바다가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어령 역시 기특한 술부가 마음에 들긴했으나 마을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슴이 아팠다. 하여 짐짓 코웃음을 쳤다.

《흥, 보기도 싫어. 내곁에 가까이 오지 말어. 난 통왕님께 네가 이제부터 삼백날동안은 바다물에 한발만 잠귀도 바위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

술부는 독같이 성났다. 마을을 위해 큰 일하는 장한 내가 싫다구?! 네가 아무리 물찬 체비갈기 로니 존귀하신 통왕님의 어여쁨까지 샅을테냐!... 약이 오른김에 술부는 어령을 꺼안으려고 풍덩 바다에 뛰어들었다. 순간 그의 몸은 어쩔사이없이 바위로 굳어지고말았다.

어령은 대성통곡했다.

《아, 삼백날이란 말귀를 잘 알아듣게 해줬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겼사오리까. 그대앞에, 마을

앞에 죄진 이 몸도 더 살기를 바라지 않나이다!»…

파도가 높아가고있었다. 봉섭의 가슴속에서 두 모옥감이 길길이 치솟아올랐다. 그는 거칠게 내뱉었다.

《고맙소만 나도 알고있소. 그러지 않아도 되돌아가려던 참이요. 철길복구도 거의 끝났을테니까.》

《그렇군요… 그랬었군요.》

《뭘가 그렇다는거요?》

《동무의 도착과 복구 끝! 얼마나 정확해요.》

《날… 조롱하는거요?》

봉섭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때 기관실문이 열리면서 한 처녀가 머리를 내밀었다.

《언니, 다 됐어요.》

《수고했어. 그럼 시동!》

춘금은 봉섭을 향해 돌아섰다. 그다음 쌀쌀히 속삭였다.

《동무같은 졸장부에게 반할가봐 겁나는군요!》

처녀는 배안으로 사라졌다. 동시에 탕탕… 기관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미처 잔교로 뛰어내릴 새도 없이 배는 움푹 자리를 뚫다. 봉섭은 눈이 뒤집혔다.

《무슨 짓이요, 무슨 추태요, 엉?!》

정신없이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으나 춘금은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아연실색해진 봉섭을 실은 채 배는 유유히 한바다로 내달렸다.

…얼마후 춘금은 한절반 열이 빠진 봉섭을 철길 복구장결의 해변에 부린 다음 바다처녀들을 싣고 사라졌다.

렬차에 앉아 온밤 흔들리우면서도 봉섭은 타는 듯한 수치감에 내내 몸을 떨었다. 그는 깨달았다.

복구장에서 만났던 애된 처녀가 귀찮은 자기 편지의 《공개독보》, 그것은 그들 두 심장만이 은밀히 나눌 비밀이란 여태 없었음을, 춘금에게 있어 자기는 단순히 실무적인 《경쟁대상자》였을뿐임!

4

아버지는 나흘만에 돌아왔다. 문가에서 손가방을 받아들던 나는 보자기에 쓴 증기기관차모형을 띠여보자 절로 서글퍼졌다. 내가 아주 어릴적부터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늘 보아오던 조가비로 만든 좀 초라한 구식장식품, 그래서 한번은 《아버진 전 기화시대에서 증기시대로 퇴행하실셈인가부지요.》하고 뽕을 했더니 아버진 이렇게 대꾸했었지.

《그 시대와의 상봉은 나를 젊게 만든단다.》 그것도 이젠 아버지와 함께 《은퇴》하는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부국장시절처럼 정력과 활기에 넘친 모습이었다. 나의 인사에 아버지는 흡족하여 두손을 마주 비볐다.

《이번 려행길에 난 큰소득을 얻었다. 년로보장 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를 발견했거든. 현대 네 려행은 어떻게 됐지?》

《려행이라뇨?!》

《허 그 <과거로의 려행>말이다.》

나는 당황해났다. 가슴을 조이며 그 《과거》를 탐색하긴 했어도 일기장을 넘겨준 아버지의 의도만은 미처 파악할 정신적여유를 못가져본 나였다. 모든건 《로보트기사》 탓이었다!

우리했던 그대로 나를 찾아온 그는 《일시적충동에 운명을 맡기는건 경술성의 극치》라느니 자기의 《지능로보트를 존중해달라》느니 하며 한사코 설복하려들었다. 오랜 싱갱이끝에 아주 지쳐버린 나는 그만 짜증을 내고말았다.

《됐어요. 그렇다면 우린 더 만날 필요가 없는 것 같군요!》

솔직히 나는 그를 존중정도가 아니라 내 녀를 불어넣어서라도 완성시켜줄만큼의 각오와 애착을 갖고 대해온터였다. 그래서 골백번을 더 따져본 후 그에게도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크지도 않은 회사에서 교역하는 기계명세나 주무르느니 자력쟁생의 정신으로 생산정상화투쟁을 벌리고있는 그 화학공업지구에 로보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게 더 보람있고 의의있는 승리가 아니겠는가.

…그에 나는 아버지에게 전후사연을 털어놓고 말았다. 어차피 한번은 고백하지 않을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러면서도 반대할 경우를 예견하고 마음을 바짝 도사려먹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내게로 허리를 굽힌 아버지의 눈가에는 이슬이 그렇거렸다.

《그런걸… 공연히 일기장을 썼구나. 공연히!》

《?!…》

《허허… 문옥아, 우리 유보도에 나갈가?》

아버지는 여느때없이 어린애같은 기분이 되어 나를 앞장서 이끌었다.

대동강기슭의 어느 등나무넝쿨밑 돌의자에 나란히 앉자 아버지는 나에게 눈을 꺾쩍해보였다.

《얼마나 한심했냐. 글썄 난 년로보장이란 저기 로인들처럼 장기관 아니면 한가한 낚시대의 세계라고 쓸쓸히 생각했구나. 늙으면 인생을 노엽게 여긴다는 말도 괜한 소리 아닌가부다 하구.》

흥겨워하는 아버지의 기분은 내게도 감염되었다.

《호, 노여움이란 스스로에게도 불만스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거지요. 현대 아버지야 불만을 느끼실 일이 있어요?》

《어- 그건 <과거려행>에서 발견한거냐?》

《난… 두가지 발견을 했어요. 첫째론 아버지가 절 왜 팔랭이로 키우시는지, 그런 딸을 좋아하셨는지 알게 된거예요.》

《저런! 왜냐?》

《둘째로!》 나는 못들은체 계속했다. 《내가 그 <로보트기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거예요. 그렇게 여겨졌을뿐이지… 차라리 잘됐어요. 무거운 짐을 던셈이니까요.》

불쑥 목이 메여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성문제로 고민하는것을 시시한 일로 여겨오던 나였다. 그런데 왜 이리 속이 답답할까?

《흐음-》

아버지는 긍정인지 불만인지 가슴이 가지 않는 코소리를 내었다. 담배를 꺼내들었으나 불은 붙이지 않고 어딘가를 지그시 굽어보았다. 그다음 한숨끝에 혼사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사랑이란 무거운거란다. 그래서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

《그럼 아버지 제가 그 동물…》

《난 그렇게 믿는다!》

아버지는 딱 잘라말했다. 나는 약이 올라 경솔한 질문이라는것을 의식하면서도 툭 내뱉었다.

《아버진 그 춘금이란 처녀를 대할 때처럼, 저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하시는게 안예요?》

노여움을 탈출 알았던 아버지의 입가에 느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문제에선… 전에두 오늘두 내 판단이 정확했다구 믿는다. 착오는 전혀 다른데 있었지. 솔직히 난 인민생활문제로 제일 걱정이 많으신 우리 장군님께 하루라도 더 빨리 기쁨을 드릴수 있는 일을 조건이 어렵고 난관이 겹친다고 네가 회피할가봐 걱정했구나. 그래서 일기장도 준건데… 로파심이였거든. 젊은 시절에야 그래야지. 춘금이두… 바로 그랬었지…》 나는 바짝 귀를 강구었다. 아쉽게도 아버지의 일기는 후련없는 노래처럼 중도에서 끊어지고말았는데 지금 그 계속을 《읽게》 된것이다.

5

봉섭은 이틀후 다섯대의 기관차를 끌고 되돌아섰다. 군사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긴급한 군수화차들까지 가능한것 물었으므로 동해선을 절반가까이 통과했을 때에는 렬차길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래도 봉섭은 계속 욕심을 부렸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새 작전을 앞장서 이끄는 기관차가 되리라 굳게 마음다진 그였다. 하여 도중의 어느 화물역에 잠시 머물렀을 때 역장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우린 쌍암에서 급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도 한두량 더 대기시키도록 렬차해주시오.》

그는 쌍암이란 지명을 랑담하게 입에 올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속에 춘금이라는 처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에게 굳이 납득시키려고 했다.

…자정무렵, 렬차는 드디어 쌍암추도역에 들어섰다. 우연인지 그곳에는 수산합작사의 물고기 방통이 기다리고있었다. 그것을 안 봉섭은 기관차를 떼어 급수장에 들여세우는 한편 조사에게 조차작업을 독촉하라고 떠밀어보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역에서 최선을 다하고있을것이다.

(정말 난 왜 그를 보냈던가?…)

우르르- 팡!하는 귀익은 밤바다의 숨결소리가 기관실에까지 흘러들었다. 봉섭은 기분이 우울해졌다.

얼마후 조사가 싱글벙글하여 계단을 뛰어올랐다.

《곧 끝납니다. 헌데 혼이 났습니다. 무슨 처녀들인지 왁 달려들어 저마끔 인사를 하는데는… 자기네 물고기를 제때에 뽑아주어 고맙다는거지요. 그래 기관사동지에게 인사하라고 대표를 한명…》

《대표》는 벌써 기관실에 올라와있었다. 조사는 입을 하 벌렸다. 소개도 하기전에 《대표》의 입에서 《안녕하세요, 봉섭동무!》하는 말이 튀어나왔던것이다.

봉섭이 역시 놀랐다.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것처럼 모질게 굴던 춘금이 반가움으로 환해진 얼굴로 자기를 마주보고있었다.

《동문줄 짐작했어요. 우리 짐을 예정보다 앞서 뽑는다기에… 그렇게 짚이더군요.》

봉섭은 왜서입지 몸이 굳어졌다. 그는 눈치빠른 조사가 어느 사이 자리를 피한것도 알지 못했다. 서서히 그러나 불안스럽게 고동치는 심장의 박동소리만이 고막에 짹 들어찼다. 내가 이게 뭔가, 이 이틀동안 내내 유쾌하고 씩씩하게 말하고 행동해온 내가?!… 비로소 그는 지금의 대담한 승부속엔 춘금이라는 한 처녀앞에 자기를 끝까지 옹호하고 시위하려는 타는듯한 초조감도 반영되었음을 부끄럽게 의식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절로 심술궂은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런들 동무에게야 무슨 대수겠소. 기관차주인이 출장부인담에야.》

처녀는 주의깊게 봉섭을 건너다보았다. 그다음 불쑥 호호 웃었다.

《노여웠어요, 그날 일로?》

《아니, 그렇게까지 웅졸하진 않소.》

《역시 동문… 제 맘에 들었어요.》

《난 그 반대요!》

《이제 좋아하게 될거예요. 그렇게 만들겠어요.》 《흥!》

돌연 눈앞이 캄캄해지며 기관차가 들썩했다. 거의 동시에 압축된 뜨거운 공기의 흐름이 시창으로 알각 쓸어들었다. 벽력같은 폭음은 그뒤에야 고막을 때렸다.

《합포사격이예요!》

춘금의 날카로운 속사임이었다. 재빨리 실내등을 끄고 바다쪽에 눈을 돌린 봉섭은 심연같은 어둠속에 영영 녹아버린듯하던 먼 수평선아근이 평곳거리는 섬광으로 온통 불타오르는것을 보았다.

벌써 온 하늘은 어떤 기괴한 짐승때가 사납게 울부짖으며 질주해오는듯한 소름끼치는 평음으로 가득찼다. 합포사격을 적지 않게 겪어온 봉섭에게도 이처럼 야만스러운 광경은 처음이었다.

봉섭은 재빨리 가감변을 틀어잡으며 춘금에게 소리쳤다.

《렬차를 물어야겠소. 내리오!》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조사가 숨가빠 부르짖었다.

《테루가… 급수선테루가 끊어졌습니다!》

등골로 쭉 소름이 줄달음쳤다. 조금만 더 지체해도 기관차가 박산날수 있다는 생각에 봉섭은 이를 악물고 고함쳤다.

《조사, 신호하오. 기관차를 뒤로 뽑겠다고!》

그때였다. 누군가의 손이 그의 팔을 부여잡았다. 봉섭은 고개를 돌리자 먼저 숯불처럼 황황타는 두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어찌서인지 봉섭을 망막깊이 새겨두기라도 할듯 파르르 떨리며 분주히 그의 얼굴 이곳저곳으로 헤엄쳤다.

《기다려줘요!》

처녀가 불같이 속삭였다. 짧은 동안을 두고 그는 거둬 되풀이했다.

《기다려줘요. 뒤쪽은 온통 개활지대예요. 기관차가 당장 결단나요. 부탁이예요. 내가 이제…》

어느결에 뻥 돌아선 처녀의 옷자락을 봉섭이 날쌔게 틀어잡았다.

《어찌자는거요, 응?》

《다 알게 돼요. 부디 잘 가세요. 책임적인 임무를 맡았다는데! 또 만나요.》

《춘금이!》

지척에서 또다시 포탄이 터졌다. 눈부신 그 섬광속에 처녀의 얼굴이 확 드러났다. 전혀 낯설어보이는, 엄격하게 굳어진 모습이였다. 가쁜 숨소리와 함께 춘금이 명령조로 부르짖었다.

《꼭 내 말대로 해요! 알겠어요?!》

처녀는 사라졌다. 봉섭이 마지막으로 본것은 그의 등뒤에서 춤추던 쌍태머리뿐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관차의 장갑관을 짱!-짱!- 때리며 파편과 자갈들이 울부짖고있었다…

《…그가 어디로 무엇때문에 가는지를, 알았다면 난 그때 못가게 잡았을게다. 그는 자기의 배

으로 달려갔다. 그리곤 그 배를 물고 바다로 나갔다.

아니, 내가 미리 알았더라두 결코 못막았을게다. 배의 불을 환히 켜고 합포사격을 자기에게 유도할 결심을 한 춘금이를 누가 어떻게 막아낸단말이나. 그는 우리 렬차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새 작전을 받드는 중요한 군수화차들로 편성됐다는걸 잘 알았던것이다.

아직두 눈앞에 생생하구나. 죽가마 뿔뿔하는 바다가운데서 곤두박질하면서도 그냥 달리던 그의 배… 춘금인 폭탄에 등이 깨지자 기름걸레에 불을 달아 갑판우에 높이 쳐들었었지. 그런 다음… 갑자기 거기서 불기둥이 확 치솟는게 아니겠니. 같은 배의 처녀들이 선장언니를 목이 터지게 부르며 바다가로 쏟아져갈 때 나만은 갈수 없었다. 렬차를 출발시켜야 했으니까. 자꾸 멀어져가는 바다를 아무리 돌아보아야 불빛같은게 더는 보이지 않을 때 가슴이 막 타던 생각을 하면…

그날부터 나는 신경이 이상하게 날카로워졌구나. 누가 내 이름만 불러두 끔찍 놀라구 통신원이 먼발치에서 지나가두 가슴이 쿵당거리구… 그러면서도 나는 춘금이가 꼭 살았으리라고 믿었다. 그처럼 생활을 사랑하던 군센 처녀가 잘못될리는 결코 없으리라고… 그때에야 나는 내가 그 처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왔다는걸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날 내게 자그마한 소포가 왔는데 발신인주소가 《쌍암수산합작사 녀성호선원일동》이었다. 심장이 당장 멎는것 같더구나. 속이 떨려 오래동안 퍼볼수 없었지. 마침내 뜯어보니 천으로 정히 싼 물건우에 길지 않은 편지가 얹혀있었다.

《기관사동지에게 드리려고 리춘금선장언니는 이걸 품들여 만들어왔답니다. 우리가 대신 완성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경쟁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복수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소포속의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이젠 너두 알겠지… 옳다. 조가비기관차였다. 늘 팔랭이처럼 굴어 섬세성이란 없는줄 안 그가 바다가에서 조가비를 쫓던 나를 마음속에 새겨뒀을줄은… 그제나를 울렸단다. 허나 춘금인 영영 간계 아니다. 지금도 조가비기관차를 쳐다보면 그처녀는 이렇게 명령한다.

<내 말대로 해요. 알겠어요?!>… 그렇게 춘금인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 나를 이끌어주었다.

쌍암전설의 그 《솔부》가 되지 말라고, 시대의 부름에 그때의 청춘시절처럼 한몸 아낌없이 불태워 가라고!…》

×

그 《시대의 부름》을 받들어 나는 떠난다.

아버 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의 길,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기술로 떠받들어갈 보람찬 창조의 길을 떠난다.

역두에는 부모님과 많은 대학동창생들이 나왔다. 나는 명랑하게 웃고 떠들썩하니 많은 말을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에게 어떤 언짢은 추측, 내가 심중의 아픔을 감추려고 짐짓 태연을 꾸미는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갖게 한 모양이었다. 노상 안절부절 못하던 아버지는 끝내 나를 한쪽으로 끌어냈다.

《너... 연락을 안했느냐?》

《무슨 연락을요? 누구에게요?》

《판전 부리지 말아.》 아버지는 혀를 찼다. 《내가 며칠전에 그에게 전화를 했다. 고민이 많더구나.》

《그랬겠군요!》

나는 더 《판전》을 부릴수 없어 《로보트기사》가 보낸 쪽지를 꺼내보였다. 거기에는 간단히 《나는 인생의 <승리>를 포기할수 없음. 현지에서 만납시다.》라고 씌여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대뜸 환히 밝아졌다.

《역시 내가 늙었나부다. 로파심이 많거든.》

《아버진 어머니가 그 일기장속의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나 걱정하시라요!》

《허허, 추억도 죄냐? 그건 절대 못버려. 내 생에서 제일 훌륭했던 소중한 청춘시절인데,

그리구 알아둬라. 네 어머니 춘금이의 후임선장이었다.》

《어마나!》

발차신호가 울렸다. 승강대에 올라선 나에게 묵직한 가방을 들려주며 아버지는 비로소 상기한듯 귀땀했다.

《네가 자리잡으면 나두 인차 내려가겠다.》

《?!...》

《언젠가 말했지. 할 일을 발견했다구. 그곳련합에서 철도인입선을 배로 늘룬다누나. 고문으로 와달라는거지.》

《아이, 그럼 우린 늘 함께 있게 되겠군요.》

《기쁘냐?》

《아버지는요?!》

《기쁘다. 내 청춘을 네 생활에서 다시 볼수 있으니말이다.》

미끄러지듯 역홀을 벗어난 렬차는 속력을 놓기 시작했다. 나의 삶을 래일로로 즐기치게 이끌어 가며! ... 그 《래일》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쌍대머리치너 춘금이와 같을까?

(그래야 해! 아버지가 일기장을 여태 소중히 건사한건 바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위한 총폭탄시절을 맞은 딸의 모습에서 자신의 청춘시절과 즐겨 《상봉》하기 위해서일테니까...)